

城南文化研究

第 8 號

성남문화원

2001

城南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목 차

논 문

조 유 전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古代歷史).....	3
백 남 옥	高麗末과 朝鮮初의 城南地域에 관한 考察.....	25
문 수 진	성남시의 集姓村 研究	47
김 기 빈	성남시 관내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 研究 ...	77
지 교 현	“삼학사전”과 함창의리의 유학적 평가.....	105
천 화 숙	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 YWCA의 운동을 중심으로 -	133
한 춘 섭	학고(鶴皋) 권오선 文士의 漢詩 연구	171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

조 유 전*

<목차>

- I. 선사시대의 유적·유물
 - 1. 구석기 시대
 - 2. 신석기 시대
 - 3. 청동기 시대
- II. 역사시대의 유적·유물
 - 1.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시대
 - 2. 고려시대
 - 3. 조선시대

- 1 -

오늘날 행정구역상의 성남시는 1973년 7월, 경기도 광주군(廣州郡)에서 분리 독립된 신 도시(新都市)이다. 여기에서 잠깐 성남시의 연혁을 살펴보면 17세기 조선 인조(仁祖)때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축성된 후 성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성남(城南)으로 불려오게 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그러나 남한산성을 포함하여 성남이 포함된 지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한강 유역을 아우르는 한산주(漢山州)에 속해 있다가 고려 현종때 광주목(廣州目)으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초 태조왕때 다시 광주(廣州)로 이름이 바뀌게 되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었다. 이와 같이 성남시는 광주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새로운 도시가 된 지 불과 30년이 채 못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광복된 1946년 3월, 광주군 증부면 성남출장소(城南出張所)가 설치되어 단대, 수진, 복정, 상대원, 창곡, 탄리의 6개 리를 관할하게 된다. 출장소가 설치된 것은 증부면 중앙에 남한산성이 자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성남출장소란 행정명칭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어 1964년 증부면 성남출장소에서 광주군 직할의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었는데 이는 1960년 중반이후 서울시가 급격하고 과도한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무려가 건물로 도시 빈민층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대두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순위 장소로 선정된 곳이 광주대단지(廣州大團地)건설이었다. 이것은 서울에서 철거되는 도시 빈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69년 4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1년에는 경기도 성남출장소로 한 단계 더 승격되어 광주군의 대왕면 10개리, 낙생면의 11개리, 돌마면의 11개리, 중대면의 6개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다시 1973년 7월 1일 드디어 독립성남시로 승격되어 성남, 중동, 신흥, 태평, 단대, 은행, 수진, 상대원, 복정, 분당, 이매, 여수, 신촌, 고동, 시흥, 판교, 금곡, 운중 등 18개 동으로 출범했다. 이후 1989년부터 진행된 성남시 분당(盆唐)신 시가지 건설이 이루어져 지금은 인구 백만에 임박하는 대 성남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성남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근대의 유산으로 탄생된 신 도시이지만 그 근본은 한강을 포함한 과거, 광주영역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남의 고대역사를 말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의 성남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잘 알지만, 성남의 뿌리는 광주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서울과 광주군을 포함한 지역내의 선사시대를 살펴야 성남의 고대역사가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시각을 넓혀 본고에서는 한강변과 광주시를 포함해

지금까지 알려진 유적과 유물을 통해 성남의 고대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

I. 선사시대의 유적·유물

1. 구석기 시대

성남시의 행정구역내에서는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 유적·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변 광주시 구역내에서는 학술단체의 지표조사에서 여러 곳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조사된 구석기 유적은 다음과 같다.

◇ 牆枝里 유적

- 소재지 : 광주읍 장지리 산1번지
- 내용

광주읍내의 경안중학교 옆 남쪽 구릉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유적에서 주먹도끼, 여러면 석기, 굽개 등이 수습되었다.

◇ 宮坪里 궁틀유적

- 소재지 :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
- 시대 : 구석기시대~백제
- 내용

중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유적 발굴작업의 일환으로 충북대학교에서 1986년 조사했다. 청동기시대 지석묘 3기, 백제시대 돌무지 2기와 구석기시대의 맨석기층이 발굴되었다. 이 밖에도 주변에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산포지와 조선시대 도요지 등이 분포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발굴조사된 지석묘와 출토유물은

6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

중부휴게소에 이전 전시하여 보관되고 있다.

◇三里 유적

○소재지 : 광주군 실촌면 삼리 산 26-9 일대

○내용

곤지암에 있는 경기도 종축장내 북쪽 구릉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9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지표조사되어 2000년 1월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고토양층이 두껍게 확인되었으며, 찻개, 몸돌, 여러면 석기, 격지 등 다양한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아울러 일대의 지표조사에서 기와편도 수습되었는데, 고려시대 기와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蘆谷里 유적

○소재지 : 광주군 실촌면 연곡리 198-3 일대

○내용

1997년 단국대 한국민족학연구소 곤지암천 유역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연곡리 마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발견 당시, 밭은 단면에서 구석기 시대층이 확인되었고, 몸돌, 찻개, 굽개, 격지 등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池月里 유적

○소재지 :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28-3 일대

○내용

중부고속도로 중부 3호터널 주변 경안천이 비스듬히 흘러가는 남쪽 반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토양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으며, 찻개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楸自里 遺物散布址

○소재지 : 광주군 오폐면 추자1리 408-1 일대

○ 내용

유물산포지는 오폐초등학교 주변의 비교적 넓은 농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밭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곳에서 구석기인 몸돌이 수습되었다.

2. 신석기시대

성남시와 광주군 일대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유구가 확인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없다. 다만, 인근 서울과 하남시 등의 유적 존재로 보아 이 지역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중요 신석기 유적은 다음과 같다.

◇ 岩寺洞 유적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내용

암사동유적(사적 267호)은 한강변의 비교적 낮은 모래밭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토기 취락지이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때 퇴적된 흙이 벗겨져 내림으로써 발전된 후 196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대학교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의하여 조사되어 왔으며, 현재 선사유적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1975년 발굴조사에 의해 시대가 다른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각기 빗살무늬토기층, 빗살무늬토기와 무문토기가 섞여 있는 층, 그리고 교란되어 빗살무늬토기편과 석기, 백제토기편 등이 함께 수습되고 독널과 전골터가 드러난 층이 이것이다. 이와같이 암사동유적은 비록 신석기시대가 그 중심년대를 이루지만 백제시대까지 오랜 세월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생활터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 漢沙里 유적

8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역사

○ 소재지 : 하남시 미사동

○ 내용

미사리유적은 1960년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래 수 차례 걸쳐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암사동유적과 함께 신석기 시대의 중요 유적이다. 1979년에 미사리 섬의 북쪽 일부가 사적 269호로 지정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적 일대의 정비 차원에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3차에 걸쳐 서울의 여러 대학박물관 합동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삼국시대에 걸치는 많은 취락지가 확인되고, 특히 백제시대에 경작했던 밭 등이 처음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3. 청동기시대

성남시의 청동기 시대 유적은 탄천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분당 신 시가지 조성시 청동기 시대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많은 지석묘(고인돌)가 발굴 조사되었다.

◇ 太平洞 支石墓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산18-1

○ 내용

이 지석묘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조사된 것으로 지금은 멸실되었다. 원래는 탄천변의 동-서방향으로 길쭉한 구릉 능선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현재, 고속도로가 지석묘가 위치한 곳을 관통하여 건설되었다. 유적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면 지석묘가 위치하였던 구릉은 동편의 청량산 줄기가 서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유적 서편의 탄천을 만나 끊기는 부분이다. 유적의 서편으로는 탄천이 남-북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탄천 너머로는 둔전동 일대에 넓은 들판이 형성되어 있다. 동편으로는 완만한 산지가 청량산과 검단산까지 이어지는데, 지금은 성남시

도시개발로 지형이 변해 원래의 지형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발굴조사보고서를 보면 이 지석묘는 258×167×80cm 규모의 개석 하부에 다시 160×84×36cm의 판석재가 덮여 있는 형태이며, 보고자는 이중개석식 지석묘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주변지역과 지석묘 하부에서 조선시대 자기편·기와편 등과 같은 후대의 유물들이 채집되어 지석묘가 완전히 교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太平洞 遺物散布地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산21-1 일원

○ 내용

태평동 유물산포지는 앞서의 지석묘가 위치하였던 능선의 서편 구릉부에 형성된 유적이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상의 성남 분기 이브에서 북으로 약 700m떨어진 지점의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의 지형은 도로 동편의 구릉지까지 이어져 있었으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양분되어 지금은 별개의 구릉처럼 나뉘어져 있다.

산포지의 남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낮아지고 있고 탄천으로 유입되는 개천인 태평천이 흐른다. 이 태평천은 현재 복개되어 도로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서편에는 구릉 서편자락을 끼고 탄천이 흐르고 있으며, 탄천 너머로는 둔전동 일원의 저평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주변에는 수십여 개의 민묘군들이 있고, 이 민묘군 남쪽 경사면상의 경작지 일대와 북쪽의 능성 정상부 일대에서 약간의 유물이 채집되고 있다. 채집된 유물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자기편과 토기편 등이지만 삼국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경질토기편이 섞여 있으며, 정상부에서 두 점의 무문토기편이 채집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유물상으로 보아 구릉 정상부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 壽進洞 支石墓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산 41-3

○ 내용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된 지석묘로 지금은 멸실되어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석묘의 입지는 태평동 지석묘의 입지와 매우 유사한데, 동편의 청량산 줄기가 이어져 내려와 탄천 부근에서 단절되는 지역으로, 이 가지능선의 동편 끝 줄기에 해당된다. 지석묘가 있었던 위치에서 볼 때 서편으로는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탄천이 흐르고, 탄천 너머로는 평야 지대가 강을 따라 형성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발굴보고서를 보면 이 지석묘는 200×130×100cm 규모의 개석식 지석묘로 여겨지고 하부에는 토광으로 매장시설을 구성한 다음, 경사면 쪽으로 사람 머리크기의 돌을 돌려 받쳐 놓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개석 하부의 받침돌 끝부분에서 출토된 용도 미상의 미완성 마제석기와 무문토기 동체편이 보고되어 있다.

이 지석묘가 있던 지역 동편에 해당하는 해발 65m의 구릉 정상부 일대에서 무문토기편들이 약간 채집되고 있다고 조사자는 보고하면서 아울러, 이 지석묘와 주변의 구릉지대에 걸쳐 당시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壽進洞 遺物散布地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산 41-3

○ 내용

이 유물산포지는 성남불개이트 동편에 인접한 해발 65m의 구릉 정상부에 형성되어 있다. 성남로에서 분당으로 진입하기 위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길의 북쪽에 위치하며, 성수초등학교 뒷산에 해당한다. 이 유적의 인근에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1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채집된 유물로는 무문

토기편과 약간의 연질 타날문토기편 등이 있으며, 이 유물들의 성격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에 걸치는 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조성과장에서 유적의 상당부분은 이미 파괴되었을 것으로 조사자는 보고 있다.

◇ 沙松洞 支石墓群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산9·산9-1

○ 내용

성남 시흥 사거리에서 성남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389번 도로를 따라 600m 가량 가다 도로 우측의 샘골마을쪽으로 난 소로를 타고 작은 고개를 하나 넘으면 소규모 난초화원이 나타나는데, 유적은 이 화원 북쪽의 야트막한 능선부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동편으로는 남북 방향으로 탄천이 흐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이어지고 있다. 사송동 부근에서 무문토기편과 어망추 등 선사유물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어 이 지석묘군과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그 위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지석묘군은 남북 방향을 이루다가 동서 방향으로 휘어져 'ㄱ'자 형태를 이루는 능선 정상부를 따라 일렬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변에도 지석묘와 연관있어 보이는 다수의 석재가 흩어져 있다.

◇ 中央公園 支石墓群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내용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안쪽에 있다. 이 지석묘들은 분당 신 도시 개발과정에서 1989년 지표조사로 발견되어 1990년 발굴조사된 171기의 지석묘들 중 대표적인 것 11기를

가져다 모아 놓은 것이다. 당시 발굴조사원 지석묘들은 대부분 남방식의 지석묘들로 하부에 작은 할석을 받쳐 놓은 정도의 불규칙하고 소략한 구조를 보였다. 출토유물 또한 전무한 실정이라서 이들을 지석묘라 할 수 있는 것인 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지표조사 당시, 완만한 경사의 경작지에 상당한 정형성을 보이는 이들을 단순히 주변의 암벽에서 흘러나온 것들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고, 분명히 인위적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어 무어라 단언키 어려우나 우리 거석문화의 또 다른 일면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고자는 주장하고 있다.

◇ 三坪洞 立石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575

○ 내용

입석은 삼평동 성내미마을 안쪽의 도로변 경작지에 남향하여 서있다. 이 유적의 주위로는 해발 100m내외의 야드막한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입석이 있는 경작지는 배후의 산지로부터 완만하게 뺨어 내려온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인근의 삼평동 야산 기슭에서 무문토기편 등이 발견된 예가 있어 청동기 시대의 유적일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보고자는 보고 있다.

입석의 형태는 전후면이 편평한 판석형이며 상단부가 반원형을 이루고 있다. 재질은 화강편마암류로 보이며, 규모는 높이 113cm, 폭 70cm, 두께 18cm이다. 이러한 판석형 입석은 충북 보은 지산리와 진천 칠산리 등지에서 보고된 예가 있어 참고된다.

◇ 下山雲洞 支石墓 및 遺物散布地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107 일원

○ 내용

관교동 낙생농협에서 정신문화연구원 방향으로 난 도로를 타고 들어가다가 하산운동 마을회관쪽으로 난 소로를 타고 약 100여m

들어가면, 북쪽의 야산 남사면 자락에 반쯤 묻힌 채로 위치하고 있다. 주변지역은 밭으로 경작 중이며 남쪽으로는 탄천으로 흘러드는 운중천이 동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청계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으로는 이 능선에서 빠져나온 낮은 가지능선이 내려온다.

현재, 지석묘의 정확한 구조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석이 반파된 상태로 놓여 있다. 보고자는 주변에서 다량의 조선시대 자기편 등이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후의 건물지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석묘의 규모는 길이 335cm, 폭 195cm, 높이 80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을 기준으로 약 40° 가량 편동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II. 역사시대의 유적·유물

1.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 書峴洞 百濟住居址
-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6
- 시대 : 삼국시대(백제)
- 내용

이매사거리 동쪽의 이진봉(해발 117.5m)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정상부는 북동-남서향으로 길쭉하게 경사가 완만한 평단면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에 문화유씨의 빈묘 2기가 조성되어 있고, 등산로 곳곳에 경질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주거지가 노출된 곳은 정상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20m지점으로 이 곳에는 최근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약 30평 정도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산 정상부 쪽의 절단면에서 주거지 단면이 노출되었다. 노출된 주거지는 3기인데 그 중 가운데에 위치

한 것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주거지는 지표하 약 70cm 지점에 부식암반층을 파고 조성하였으며, 한쪽 면에는 기둥구멍으로 보이는 직경 22cm, 길이 26cm 정도의 구멍 단면이 보인다. 주거지 바닥면 위에는 두께 5~15cm 정도의 목탄포함층이 있으며, 그 위쪽은 적갈색의 점토가 쌓여 있다. 현재 노출된 주거지 바닥면의 길이는 약 3m이며, 수혈의 깊이는 30cm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면 위에 쌓인 부식토층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격자문이 타날된 경질토기 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적갈색이나 회갈색의 연질토기도 보이고, 백제시대 고배편이 한 점 발견되어 유적의 성격과 편년 설정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조사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 유적은 정상부의 환경사면을 따라가며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에서 발견되는 백제 고배편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한성시대 백제문화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 野塔洞 積石塚

-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야탑동 198-1
- 시대 : 삼국시대
- 내용

분당신도시 개발과정에서 1989년 지표조사때 발견되어 1990년 한양대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한 후 기록으로만 남겼다. 적석총은 모두 8기였는데, 지표 위에 막돌을 분구 형태로 쌓고 조잡하게 석곽을 만든 적석총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를 보면 분구의 규모는 직경 400~500cm 정도이며, 높이는 100cm 내외이다. 대체로 20~30cm 정도의 막돌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그 중 몇 기는 특이하게도 분구 중앙에 100cm 내외의 큰 돌이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구 정상부의 바로 아래에서 석곽 시설이 발견되었는데 규모는 120×50×40cm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분구 주변에서는 회청색, 회흑색 경질토기편이 다량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한성백제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 沙松洞 遺物散布地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58 일원
- 시대 : 통일신라시대
- 내용

유물산포지는 성남시 사송동 지석묘가 위치한 구릉 남동편 자락의 경작지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뒤편의 구릉 사면에는 다수의 민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구릉사면과 구릉 자락의 편평한 경작지 일대에서 조선시대 자기류와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편 등의 유물이 채집되는데, 자기류는 경사면상의 민묘주변에서, 인화문토기류는 편평한 경작지상에서 주로 채집되어 구릉 경사면상에 조선시대 분묘유적이, 구릉 자락의 평지에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자는 추정하고 있다.

◇ 三坪洞 遺物散布址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60-5 일원
- 시대 : 통일신라시대
- 내용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구릉 남사면상의 경작지 일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판교-구리간 서울외곽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는 판교분기점이 북쪽의 구릉 너머에 연결하고 있다. 이 일대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무문토기편과 다량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된 바 있어 충북대학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채집된 유물들과 연결지을 수 있는 선사시대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분과 조선시대 회곽묘가 발굴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2. 고려시대

◇ 亭子洞 高麗時代 建物址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9

○ 내용

토지공사 사육과 E-mart의 중간지점에 있는 불곡산 능선 발단 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약 20평 정도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곳곳에서 경질토기편과, 어골문을 주로하는 경질와편이 산재되어 있는데, 북서쪽 사면에서 기와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 곳은 고려시대의 건물이 있던 터로 조사자는 추정하고 있다.

◇ 野塔洞 寺址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0-6

○ 내용

분당신도시 개발과정에서 1989년 지표조사때 발견되어 1990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학술조사단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고려~조선시대의 절터로 추정된 곳이었으나 현재는 신 도시 개발로 없어졌다. 고려시대의 평기와나 磚이 출토되어 전탑의 존재 가능성을 조사자는 보고있다. 한편, 가마터도 발견되어, 아궁이 부근에서 2개의 기둥구멍과 나무기둥 밑둥이 발견되어 목조 가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기 420×408cm, 두께 7cm의 소토층으로부터 연소실과 소성실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후면부에는 470cm 정도의 붉은 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조선시대

◇ 新南城墩臺

○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193-1

○ 종류 : 성

○ 내용

신남성 돈대는 동돈대와 서돈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돈대는 점단산 정상부에, 서돈대는 동돈대에서 서쪽으로 235m 거리에 떨어져 있다. 신남성은 南格魯라고도 하며, 원성과 마주하는 까닭에 對峯이라고도 하였다. 이 곳에서는 원성 남벽의 대부분 지역과 수어장대가 한 눈에 조망되며, 성남 일대와 검복리 일대도 잘 조망된다. 병자호란 당시 이미 이 성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숙종대의 개축 기사도 남아 있다.

동돈대는 점단산 정상부를 돌아가면서 430cm 폭의 띠를 두르듯이 원형에 가깝게 축조하였는데, 둘레 134m, 면적 1,381㎡이다. 성벽의 높이는 평균 4m 내외이며, 안쪽에 약 1m 정도의 단이 조성되어 있다. 성돌은 두께 약 40~60cm, 폭 60~100cm 정도의 대형 석재를 사용하였다. 돈대 정상부에는 여장이나 별다른 시설은 없으며, 배수구 2개가 확인된다.

서돈대는 동돈대와 함께 영조 29년(1753)에 수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남한산성 동쪽의 한봉과 함께 산성의 방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둘레 121m, 내부 면적 998㎡로 동돈대에 비해 약간 작은 편이며, 현재 서쪽 성벽이 5m 정도 결실된 상태이고 내부도 훼손이 심한 편이어서 원래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돈대의 동쪽에 설치된 문은 홍예기석 위에 5매의 홍예돌로 구축한 만원형의 홍예문으로 폭과 높이는 152cm이다.

○ 天臨山烽燧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32번지 일원

○ 종류 : 봉수

○ 내용

천림산봉수는 수정군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간의 淸溪山 동쪽 기슭인 해발 약 170m 가량의 나지막한 구룡능선에 위치하고 있

다. 이 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路的 봉수노선 중 第2路 直鋒의 內地烽燧이다. 과거 釜山 東萊 多大浦驛 鷹峰에서 初起한 第2路의 봉수가 陸路로 慶尙道와 忠清道 지역의 여러 적봉 및 간봉의 봉수와 현 경기지역의 望夷城(안성)→市之山(용인)→石城山烽燧(용인)를 거쳐 현 천립산봉수에 도달하면, 최종 서울의 남산봉수에 신호를 전달하는 경기도 관내의 마지막 봉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남쪽으로 용인 석성산 봉수와는 18.75km, 북쪽으로 경성 목덕산 봉수와는 16km의 거리에 있다.

봉수는 동서 방향으로 3개소의 연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장반타원형으로 둘레가 80m, 동서 길이 33.6m, 남북 길이 12m로서 북·동·남쪽의 방호벽에 석축이 남아 있다.

봉수대 내부의 규모와 구조 및 현존 시설물로 보아 상당한 규모와 역할의 내지봉수로서 지표조사에서 회색 경질토기, 시루 저부편 등의 토기편과 백자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上大院洞 白磁窯址

○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92

○ 종류 : 요지

○ 내용

상대원동 백자요지는 사기막골 입구 사찰인 화성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화성사 서편 소로 주변에서 유물이 채집된다고 하는데, 특히 화성사의 남쪽 담장에 접해있는 공터와 서쪽 가장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산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소로에 의해 잘려져 길이 15m에 걸쳐 높이 1m 정도의 단을 이루고 있으며, 황갈색 점토층과 교란층에서 백자편, 도지미, 가마벽체편 등을 조사자들이 채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이일대의 입지조건과 유물상을 통해 구름의 경사면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자기를 생산하던 백자 가마터가 있었음을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奉國寺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16-2

○ 종류 : 사찰

○ 내용

봉국사는 靈長山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曹溪
 寺의 말사이다. 1028년(현종 19)에 창건하였으며, 그 뒤 폐허화된
 것을 1395년(태조4) 蠡華가 태조의 명으로 중수하였다. 1674년(현
 종 15)에는 요절한 현종의 공주 明惠와 明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공주의 능 근처에 있던 이 절을 중창하게 하였는데, 당시의 역사
 를 담은 승려는 금강의 日攄尊者였으며, 중창 뒤 봉국사라고 하
 였다고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인 大光明殿 외에
 三聖閣·요사채 등이 있으며 일주문과 天王門·梵鐘樓 등의 부
 속건물을 갖추고 있다

◇ 奉國寺 大光明殿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16-2

○ 종류 : 사찰(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 내용

대광명전은 주존불로 목조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좌우협시로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신 불전이다. 경내에 南向하여 정면3칸,
 측면3칸의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 이지만 건물에 비해 지붕이
 커 외관이 장중하게 보인다. 자연석 기단에 놓인 鼓腹形 초석
 위에 민흘림기둥이 세우져 공포가 절구되고 오랑의 지붕 가구가
 짜올려져 있다. 처사의 장식적인 형태, 연봉과 봉황조각 등은 18
 세기 말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원래의 지붕은 측면의 공포 배열
 과 귀공포 형태로 미루어 팔작지붕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단 좌우에는 사자 형태를 닮은 瑞獸가 특이하다.

이 불전은 기단과 초석, 지붕 등 많은 부분이 수리되었으나 조

선 후기의 불전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 不統廟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산 1-2

○ 종류 : 사묘(사당)

○ 내용

부조묘는 鶴川君 李增(1525~1600)을 배향하는 사당으로, 현재 분당 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오른 편에 인접하여 南向하고 있다. 사당 정면에는 崇慕門의 현판이 붙은 솟을3문이 있고, 주위에는 담장을 두르고 있다. 사당은 정면3칸, 측면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마루와 좌우에는 품벽을 마련하여 놓았다. 건물 중앙의 현판명은 不統廟이며, 그 위에 小字로 鶴川府院君이라 쓰여 있다. 한편, 경내에는 韓原君 李長潤의 묘표와 상석이 이전되어 보호되고 있다.

◇ 栗洞 胎封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율전동 산 2-1

○ 종류 : 태봉

○ 내용

태봉은 율동의 文靖公 韓繼禧(1423~1482)와 恭簡公 韓斯文(1446~1507)묘역 중간에 불복하게 솟아오른 나지막한 구릉을 가리킨다. 조선시대부터 이 태봉은 『淸州 韓氏族譜』의 「墳山圖」에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 곳은 본래 朝鮮 成宗(1470~1494)의 御胎를 안치하였던 곳으로 이 일대가 청주한씨의 사패지로 하사되면서 성종의 어태는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의 胎峯山으로 옮겨 가게 되었고, 다시 일제시대에 고양시 원당동의 西三陵으로 이전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1999년 全州李氏大同宗約院에서 발간한 『朝鮮의 胎室』에는 정상의 태실 자리는 북 파여 있어 도굴되었으며, 지표에 태비도 없고 관련 전설도 전하지 않아 이곳이 누구의 태실인 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태봉의 형국에서 볼 때 조선 왕실의 태실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 柏峴洞 遺物散布地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 종류 : 유물산포지
- 내용

백현동 뒤편 야산 새동산(해발 103m)의 남동편 수터너머골 일원에 형성된 유물산포지로서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인데, 특히 골짜기 북쪽 정상부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채집되고 있다. 이 일대는 현재 계단식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채집된 유물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자기류와 토기편 등이다. 인근의 분묘군에서 흘러 들어온 것들로 보기에 유물의 양이 많고 또 생활유물이 다량 섞여 있는 점으로 보아 전몰지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자는 주장하고 있다.

- 3 -

광주에서 분리된 성남시의 선사시대는 인접한 광주시, 하남시와 함께 지금까지 조사된 현존하는 유적·유물을 통해 볼 때 비록 구석기 유적과 유물 그리고,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만이 탄천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광주시에서는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 조사되고 있어 한강으로 접어드는 양재천으로 합류되는 성남시의 탄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도 구석기 유적·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앞으로 구석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다면 성남의 고대역사는 구석기 시대 말기 즉,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신석기시대 역시, 한강변의 암사동 유적이나, 미사리 유적에서 볼 때 앞으로 탄천변에 그 존재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왜냐하면, 암사동이나 미사리에서 신석기인들이 집단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알재천을 따라 단천으로 옮겨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유적·유물의 발견이 크게 기대된다.

청동기 시대에는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유물 가운데 청동기인들이 남긴 무덤인 지석묘 즉, 고인돌이 많이 조사됨으로써 이들을 볼 때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단천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볼 때 성남의 고대역사는 확실히 기원전 500여년 전부터인 청동시대부터 그 유적을 남기고 있어 고대 역사를 그만큼 올려볼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성남의 주변지역인 광주에서도 구석기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1985년 중부고속도로 건설구역내 처음으로 구석기 존재가 확인되었듯이 앞으로 타 지역 즉, 성남지역에서도 새롭게 그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시대 주거지와 적석총(積石塚)등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초기 한성백제시대에 성남의 이곳저곳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성남시를 포함한 광주시 일대는 백제의 중심영역이었으나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수도 침공으로 백제 개로왕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백제는 수도를 버리고 웅진 즉,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백제를 침공한 고구려는 침략지인 백제수도를 정복자의 입장에서 별도로 다스리지 않고 초토화만 시킨 후 다만, 거점방어식의 보루를 설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철수하면서 백제가 고구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백제는 그 후 잃어버린 고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라가 진흥왕의 북진정책으로 553년 백제고토인 한강변을 장악하여 지금의 분당 등이 포함된 광주 일대를 포함해 신라는 이곳에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과전한 관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다. 이후 신라는 660년에 사비(현 부여)에 도읍한 백제를 평정하고 668년에는 고구려까지 평정한 후 675년에는 당나라의 군대까지 몰아냄으로써 나뭇의 삼국을 하나로 하는 통일대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왕조를 지나 조선왕조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성남시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인 백제, 그리고 신라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조선으로 뒤편히 이어져 온 땅임을 알 수 있다.

현대사에 있어서 오늘날 성남시는 비록 30여년에 지나지 않는 짧은 역사에 지나지 않는 도시이지만 그 연원은 실로 장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유적·유물과 역사적 사실로서도 증명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유적·유물을 살펴볼 때 성남은 백제시대 사람들이 생활했던 흔적은 발견되나 백제가 패망한 이후인 5세기 후반부터 신라에 의해 장악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성남만을 두고 볼 때 비록, 신라가 한강을 장악하고 신주를 설치하여 다스렸다지만 성남지역까지 신라사람의 생활터전은 그 후부터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라가 우리 땅에 와있던 당나라의 세력과 서기 675년 매초성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몰아내고 신라 나뭇의 통일을 이룩한 후 성남지역에도 당시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수정구 사송동 일대와 분당구 삼평동 일원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과 무덤이 확인된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에 와서는 보다 사람들의 삶이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여러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분당구 점자동 일대에서 고려시대 기와편들이 출토되고, 분당구 야탈동에도 과거 고려시대 절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도 충분히 짐작된다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수정구 금토동의 봉수대, 종원구 상대

원동의 백자요지 수정구 태평동의 봉곡사, 분당구 수내동의 부조묘 사당, 분당구 율동의 태봉과 그리고, 수많은 조선시대의 무덤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로보아 조선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4 -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고대의 유구와 유물을 통해 성남시의 고대역사를 개관해 보았다. 현재의 성남시가 비록 3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나 유물과 유구를 통해서만 멀리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5~6세기부터 우리의 먼 조상들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된 바 없어 성남시의 고대역사를 지금 당장 읊릴 수 없다 하겠으나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예를 볼 때 구석기시대까지 충분히 소급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참고문헌】

- 충북대학교박물관 「광주궁평리 유적 발굴보고」 1986.
- 畿甸文化財研究院 「廣州 2001 世界陶磁器 expo 園地 發掘調査報告」 2000.
- 국립경주박물관 「岩寺洞」 1994.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漢陽大學校・京畿道 「盆唐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1.
- 金元龍 「韓國 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 성남시사편찬위원회 「城南市史」 1993.
-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 199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1.

高麗末과 朝鮮初의 城南地域에 관한 考察

白 南 郁*

<목차>

- I. 서론
- II. 고려말의 개혁과 성남지역
- III. 조선초의 성남지역
 - 1) 조선의 세제정비와 성남
 - 2) 조선초의 사대부와 성남
- IV. 맺음말

I. 서론

고려는 13세기 말에 이르러 무신정권에 의해 지배체제가 무너졌고, 원의 내정간섭이 진행되는 약 1세기동안 여러 문제가 대두되었다.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권문세족들은 관직의 독점을 통해 왕권을 전제하고 상호 권익을 보호하면서 정치를 농간하였다. 특히 원을 배경으로 등장한 附元輩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였다. 能文能吏를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한 신진관료들은 이들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권문세족들이 동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

*동서울대학 교수

들은 미약하였다. 그 결과 중앙집권지배체제는 약화되고 권문세족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왕의 부침이 이어지면서 고려사회의 모순은 심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문부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전식과체제가 무신들에 의해 붕괴되고 사적인 大土地所有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농장이 성립되어 갔다. 권문세족들은 불법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공전을 점유하고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고 그들을 厯良爲賤하여 농장에 소속시켜 나갔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권문세족들은 토지를 겸병하였으며,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로 대규모의 농장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원 또한 세속적인 면이 강조되면서 대토지소유가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국가 경제의 혼란은 결국 관료들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재정的高갈을 불러왔다.

14세기 말엽에 이르면서 원·명교체란 과도기적인 국제질서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고려의 국내외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親明이나 親元이나에 따라서 그 대응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흥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하고 왜구가 창궐하여 개경 근처까지 노략질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고려사회는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마침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사회의 위기는 통치이념과 사상계를 이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성리학의 도전으로 이어졌다.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新進士類들은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민왕의 개혁에 참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들은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손잡고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이란 개혁목표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를 개창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여말 선초 원·명교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내 정치세력의 여러 동향은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성남지역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고려말의 정치 경제의 개혁과 더불어 조선초

기 새로운 왕조지배체제가 확립되어 가면서 성남지역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지배체제가 정비되는 동안 성남지역¹⁾의 역사적인 실상과 그 위상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려말의 개혁과 성남지역

고려 왕조는 대몽항전을 마감하고 江都(강화도)에서 출륙하여 개경으로 환도함에 따라 원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다. 더불어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宰相之宗'으로 불리어지는 지배세력²⁾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僉議府나 密直司등의 고위관직을 독점

- 1) 高麗末과 朝鮮初를 忠宣王의 개혁정치가 전개될 때부터 조선의 체제가 정비되고 세 왕조의 기틀이 확립된 世宗代까지로 그 시기를 한정하여 本考를 서술하려고 한다.
'성남'은 1964년 4월 광주군 규칙 제36호에서 광주군직할성남출장소가 생기고, 1971년 9월 13일에 경기도 조례 제470호에 의거 경기도 성남 출장소로 승격하였다. 성남출장소는 광주군 대왕면 10개리, 낙생면 11개리, 둔마면 11개리, 중대면 6개리를 행정구역으로 삼아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성남시」로 승격하였다. 이처럼 성남시의 행정구역은 광주에서 분리된 지역이므로 여말 선초에 성남이란 지명을 사용한 자료는 없다. 이에 광주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성남지역에 관한 역사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극히 한정되긴 하나 성남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지명과 관련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여말 선초의 성남지역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 2) 朴龍雲, 『高麗時代史』(下), 一志社, pp 528~532. 참조.
ㄱ. 金就彌(彦陽金氏)·蔡松年(平康蔡氏)·金仲龜(安東金氏) — 무신정권시에 무장으로 출세하여 가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 경우.
ㄴ. 閔令謨(驪興閔氏)·趙永仁(橫川趙氏)·洪奎(南陽洪氏) — 최우의 서방에서 宿衛를 하고 이후 과거를 통해 등장한 能文能吏한 관료들로서 이후 문벌로서 성장함.
ㄷ. 李藏用(慶原李氏)·崔滋(海州崔氏)·任溥(定安任氏)·崔執(鐵原

하면서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都評議使司의 구성원이 되어 왕을 능가할 정도로 권세를 누리고³⁾ 정치를 주도하였다. 이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었다. 그들은 음서⁴⁾를 비롯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代를 이어갔으며 왕실과 상호간에 중첩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원의 간섭시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친원적인 성향을 띄면서 고려 후기 사회를 이끄는 독점적인 지배층이 되었다. 이들과 더불어 원을 배경으로 등장한 부원배들은 정동행성⁵⁾이나 원의 황실과의 혼인⁶⁾을 통해 앞서 권문세족과 버금갈 정도의 무월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권문세족들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14세기에 이르면 고려사회는 초기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붕괴되면서 제반 모순이 격화되어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권문세족들의 관직 독점에 따라 신진관료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職事없이 職銜만 있는 同正職의 濫授가 더욱 심화되고 하급관직에도 檢校職이 설정되면서⁷⁾ 이들은 향촌사회에서 할량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적인 지배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이중적인 지배구조에 놓이게 되어 공적인 지배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

崔氏)·金若先(慶州金氏) — 국초의 문벌로서 무신정권하에서도 상당한 가세를 유지함

ㄹ. 趙仁規(平壤趙氏)·尹秀(漆原尹氏)·金方慶(安東金氏) 등은 元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권세자로 등장함.

3) 邊大燮,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pp. 99~109.

4) 朴龍雲, 「高麗時代 蔭絃制의 實際와 그 機能(下)」, 『韓國史研究』 37, 1982, pp. 26~35.

5) 高丙雄,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東亞交涉史研究』, 서울大出版部, 1970.

6) 李龍範, 「奇皇后의 冊立과 元代의 資政院」, 『歷史學報』 17, 18합집, 1962.

奇徹(幸州奇氏) — 누이가 원 順帝의 황후가 됨.

노정(交河盧氏) — 딸이 원 순제에게 시집감.

權謙(安東權氏) — 딸이 순제의 황태자여제 시집감.

7) 金光洙, 「高麗時代의 同正職」, 『歷史教育』, 11·12合輯, 1969.

8) 千寬宇, 「麗末鮮初의 閥閥」, 『李丙齊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타났다. 이와 더불어 권문세족과 사원 세력에 의해 토지점병이 급속하게 진전되어 농장이 확대되면서 농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들은 농민들을 그들의 농장에 끌어들여 점차 私民化시켰고, 농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농노적 처지에서 농장주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수탈과 압박에 신음하게 되었다. 결국 고려의 중앙집권적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정치·경제·군사력을 극도로 허약하게 만들었다⁹⁾.

이와 같은 배경에서 즉위한 충선왕은 즉위년 정월에 교서를 내려 世家·勢家 혹은 豪猾之徒·勢要之家 등으로 표현한 권문세족들을 대상으로 신진사류인 朴全之을 포함한 소위 4學士 등과 더불어 전반적인 내정개혁의 단초를 열었다. 충선왕은 인사행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관제개혁과 더불어 사림원을 설치하였다. 사림원은 국왕의 자문에 응하고 전주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도록 하는 권력의 중심기관이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시켜 나갔다. 그러나 충선왕의 개혁정치에 대해 특히 부원배가 주축이 된 권문세족들은 반발하였고, 이들이 원세력과 연관되어 퇴위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의 개혁정치 또한 실패¹⁰⁾로 돌아갔다.

이 시기에 성남지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충선왕의 인사조치와 관련한 기사이다. 張璠으로 檢校評理 광주목사를 삼으니 재상이 牧使로 나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¹¹⁾ 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광주는 성남지역을 포함한 곳으로 여겨진다. 이 기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충선왕의 개혁과 관련한 인사조치이고 두 번째는 개경과 근접한 광주지역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특히 재상의 지위를 가진 자가 광주목사로 인사조치되었다는 것은 그 이면에 광주지역이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하

9) 한우근, 『한국사』 9, 탐구당, 1977, pp. 18~19.

10) 李起男, 「忠宣王의 改革과 諫院의 設置」, 『歷史學報』 52, 1971, pp. 56~77.

閔賢九, 「高麗後期の 權門勢族」, 『한국사』 8, 탐구당, 1974, pp. 46~47.

11) 『高麗史』 32, 世家 32, 忠宣王 2년 9월 乙酉.

는 것이다. 이처럼 간략한 성남에 관계된 기사를 제외하고 이 시기에 성남에 관한 자료는 전무하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 수내동의 중앙공원에 있는 한산 이씨(韓山李氏) 봉화공파의 韓原君 李長潤, 韓城君 李執, 韓平君 李之菽……아천군 李增을 비롯한 19위의 묘가 있다. 이들 묘소의 주인공들은 비록 여말의 성남지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은 없으나, 이 시기에 활약한 稼亭 李穀(1298~1451)이 그들의 先代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곡은 가문의 배경 없이 충숙왕 때에 문과에 급제하고 곧 이어 원의 과거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원에서 한림국사집열관으로 배치되어 당대의 유학자들과 교유를 하면서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정치적 경륜을 쌓아갔다. 그는 충목왕 2년에 귀국하여 이제현과 더불어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 대원관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원의 貢女 징발에 대하여 「代言官請罷取童女」를 올려 혈육의 정을 끊는 백성들의 아픔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元 世祖가 고려에 대하여 不改土風한 諭示를 근거로 자주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用人爲政을 바탕으로 선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왕도정치를 내세웠고 孝의 절대론을 바탕으로 明德과 親民의 정치관을 제시하여 덕치를 바탕으로 온전한 왕도정치¹²⁾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이곡을 비롯한 성리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고려의 개혁에 참여하는 신진관료들의 활동은 권문세족들과 원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후 공민왕대에 이르면 元·明 교체기와 관련한 정세변화에 따라 신진관료들은 권문세족들과 꾸준히 투쟁한 결과 개혁에 적극 참여하게 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공민왕은 중국 대륙의 주인이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정세변화에 따라 신진관료들과 더불어 奇轍을 비롯한 부원배를 숙청하고 경동행성을 폐지하고 나아가 柳仁雨를 동북면병마사로 삼아 방성총관부를 공략하여 철령위 이복의 구

12) 고해령, 「한산이씨 문중검표」, 『향토인물연구』, 성남문화원, 2001, pp. 96-99.

영토를 회복하면서 자주성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고려의 사정은 흥건적과 왜구의 창칼에 따라 더욱더 참담하여져 갔다. 이에 공민왕은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지배체제의 재건이란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권문세족과 최영을 비롯한 신흥무장들과도 유대가 없는 슬러인 辛旽을 중심으로 신진관료들의 참여를 통한 시정 개혁을 단행하여 갔다. 공민왕은 신돈을 國師로 임명하고 ‘師는 나를 구하고 나는 師를 구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生死를 땡세할 정도로 각별한 신임을 주고¹³⁾ 그가 내정개혁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신돈은 田民撥整都監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약탈한 토지와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환원시키는 田民推定事業을 시행해 나갔다. 이와 같은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자 공적인 지배기반은 점차 확대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농업의 수용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된 농민들은 이를 지지하였고, 신돈은 聖人이란 칭호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때 공민왕은 국자감을 설관관으로 개명하고 經學중심으로 유학교육을 진흥시키면서 과거시험 또한 활발히 시행함으로써 많은 신진관료들을 배출하였다.¹⁴⁾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신돈을 빗바침하도록 하여 개혁정치에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한편으로 공민왕은 魯國公主가 즉자(1965) 政事에 뜻을 접고 신돈에게 절무를 일임하자 그는 점차 일신의 권력확대와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오만과 방탕을 일삼으며 정치를 독단하였다.¹⁵⁾

13) 『高麗史』132. 列傳 45. 反逆 辛旽 1.

왕(공민왕)이 손수 땡세하기를 “사는 나를 구하고 나는 사를 구하며 죽기로 사생결단하여 사람의 말에 미혹함이 없을 것을 부처와 하늘에 증명하리라” 하여 공민왕은 신돈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였다.

14) 공민왕대 신돈이 실권을 장악하기 이전의 과거시험에는 이원명(4년)을 비롯한 李崇仁·鄭夢周(6년) 등이 있으며, 조선을 전국하는 데 중심세력이 된 尹紹宗(9년)·鄭道傳(11년)·南在(20)·趙浚(23년)·南淵(23년) 등은 내정개혁이 시행되는 중왕 12년을 전후하여 시행된 과거를 통해 신진관료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15)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上·下 『歷史學報』38輯·40輯, 1968, 참조.

이 시기에 광주 향리 李唐의 둘째 아들 李元齡의 등장이 주목된다. 그는 충목왕 3년(1347)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문장을 잘 짓고 지조가 굳은 신진관료로 중앙의 관계에 진출하였다. 이원령은 공민왕 17년(1368년)에 신돈의 정치적 농단과 방탕에 대하여 논박하다가 채판사의 밀고를 받고 과거 동기인 崔元道가 있는 경상북도 영천으로 부친과 함께 피신하였다. 그는 다음 해에 부친 이당이 죽자 그곳에 안장하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동왕 20년에 신돈이 반역죄로 처형되자 그는 이름을 韜, 자를 浩然으로 바꾸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는 공민왕 23년에 함포에서 왜구를 격퇴하는데 공을 세우고 정3품인 奉順大夫判典校寺事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직을 하였다. 그 후 이색·정몽주·이승진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연구와 시문학에 열중하면서¹⁶⁾ 학자적인 생활을 견지하다 생을 마감하였다.

이 후 공민왕은 권문세족과 타협하면서 방탕한 생활 끝에 자제 위 소속의 崔萬生·洪倫 등에 의해 시해되었다. 이집의 장자인 李之直은 우왕 6년에 문과에 급제한다. 그 역시 여러 지역의 안찰사를 역임한 후 보문자의 직제학을 끝으로 그의 부친인 이집의 묘소와 가까운 단천에 은거하면서¹⁷⁾ 후일 조선시대에 '廣李'라고 일컫는 명문가의 바탕을 성남지역에서 마련하여 갔다.

한편 14세기 말엽 원·명 교체기의 혼란한 국제정세는 고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홍건적의 2차에 걸친 침략 그리고 왜구가 창궐하여 개경 근교까지 침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차 침입에 참패한 홍건적은 공민왕 10년(1361년) 10월에 僞平章 등이 10만의 무리를 이끌고 2차 침입을 감행하였다. 홍건적은 마침내 11월 자비령을 넘어 개경을 점령하기에 이르렀고, 공민왕은 福州(지금의 안동) 播遷을 하게 되었다. 이때 「왕이 사평원에 이르니 개령감무가 와서 짐 싣는 말 100여 필을 바쳤다. 왕이

16) 『道村遺稿』, 참조. 이집의 묘는 중원구 하대원동 산 7-1에 있으며 성남시는 향토유적 제 2호로 지정하여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다.

17) 『廣州李氏世譜』, 참조.

광주에 머물렀다. 이곳 아전과 백성들은 모두 산성으로 올라가고 주관만이 있었다」¹⁸⁾ 라고 하여 성남지역과 관련한 기사가 보인다. 이는 당시의 광주지역의 사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광주지역민과 홍건적과의 전투사정은 알 수 없으나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의 자세를 취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종 19년 몽고의 2차 침입시 광주민과 대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책임자인 李世華가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였다¹⁹⁾는 내용으로 보아 짐작되는데, 남한산성은 이처럼 고려시대에도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 후 이미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신흥무장인 李成桂는 고려사회의 개혁을 통해 상고적인 유교이념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관료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우왕 14년 5월에 요동을 정벌하러 출병한 이성계가 6월에 위화도에서 회군하자 정세는 급변하여 그를 비롯한 정도전 등이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였다. 昌王과 恭讓王대를 거치면서 이성계와 정도전 등의 급진적 개혁세력들은 전제개혁운동과 과전법 시행 그리고 불교배척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개혁사상을 현실정치에 실현하면서 확고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는 한편 권문세족들에 대한 개혁을 진전시켰다.

반면 온건적이며 중도적인 개혁성향을 띤 정몽주는 구세력들과 더불어 급진적인 개혁을 제지하고자 하였다. 공양왕 4년(1392년) 3월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 落馬하여 중상을 입자 정몽주와 金震陽·李擴 등 구세력들은 정도전·조준·남은·윤소종 등 개혁파의 중심 인물들을 탄핵하여 遠方으로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급진 개혁파의 최대 政敵인 정몽주는 李芳遠의 습격을 받고 쓰러졌고, 정세는 반전되었다. 이에 원방에 축출

18) 『高麗史』 39. 공민왕 10년 11월 무진.

19) 『朝鮮金石總攬』 上, 「李世華墓誌名」, 참조.

되었던 개혁파들은 개경으로 귀환하여 重職에 포진하게 되었다. 그 해 7월 정도전·남은·조인옥·조준 등 50여명의 宰樞臣들은 도평의사사의 결의를 거쳐 이성계 추대를 합법화하였다. 이를 위해 왕대비인 공민왕의 定妃를 움직여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이성계에게 왕위에 오르길 간청하였던 것이다. 이성계는 자신의 不德을 내세워 몇 차례 거절하다 마침내 수락하니 7월 17일 조선왕조가 개창되었으며,²⁰⁾ 이에 따라 성남지역은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새기게 된다.

Ⅲ. 조선초의 성남지역

1) 조선초의 체제정비와 성남

태조 이성계와 개혁파 유신들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판도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자 국호의 제정(朝鮮)·국도의 선정(漢陽)·국헌의 환진(經濟六典)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유신을 실현하여 갔다. 특히 태조 3년 9월 고려의 남경이던 한양을 정도전이 신도로 전의하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10월에 천도를 단행하였다. 그 후 신도의 건설사업은 종묘·사직·궁궐을 짓고 17km에 이르는 성곽이 축조되면서 국도로서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리고 태조 4년 6월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도성으로부터 10리 안쪽의 연접지를 포함시켰다. 5년 4월에는 이를 5부·52방으로 구획하여 행정체계를 정비하였다.

세종대에 이르면서 한성부는 17,015호²¹⁾에 이르는 대도시로 성장하여 조선의 국도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인

20) 韓永忠, 「兩班官僚國家의 成立」,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77, pp. 47-60.

21) 『世宗實錄』 「地理志」 京都 漢城府條 참조.

근 지역인 성남에도 새로운 역사적인 역할이 주어졌다. 특히 조선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수령의 품질이 비교적 낮은 데다가 일부 규모가 큰 主縣(목·도호부)에 파견하여 이들을 계수관이라 하였다. 나머지 州縣들은 계수관이 파견된 주현에 영속되어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와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과 主縣을 연결하고 행정적인 감독과 政令을 전달하는 임무를 갖는 안찰사, 그리고 兩界에는 병마사를 임시로 각도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전임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현의 계수관이 실질적인 중심이었고 토착향리들이 지방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국가는 지방에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통치구조였다.

이에 조선왕조를 개창한 개혁파들은 수령이 직접 백성을 통치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미 공양왕 원년에 각 도의 행정장관으로서 관찰사를 전임으로 두었고, 공양왕 4년에 일시 安廉使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태조 2년에 관찰사를 전임으로 하는 지방제도로 복귀함에 따라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관찰사의 官秩로는 종2품 이상인 고관대신을 임명하여 지방장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재지세력의 견제나 대민정책을 수행하는 효과를 높였다.²²⁾ 한편 수령의 질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수령의 품질을 叅上官(6품관)으로 하고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屬縣·鄉·所·部曲 등의 지역을 혁파하여 주현에 통합시키고 호구를 기준하여 군현을 조정하는 군현제도의 개편²³⁾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지방제도의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토착향리의 세력기반은 붕괴되었고 그들은 단순한 지방행정의 使役人으로 전락하였다. 이로써 중앙집권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제도의 개편이²⁴⁾ 진행되어 갔다. 그 결과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취락

22) 李存熙, 「觀察使制과 그 運營」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研究』 1990, p91.

23) 『世宗實錄』 16년 11월 壬辰條 참조.

의 대소와 인구, 그리고 전결과 지역적인 특성을 배려하여 府·牧·都護部·郡·縣을 두었다.

태조 2년 양광도의 광주·충주·청주·공주·수원에 界首官을 두고,²⁵⁾ 4년에 광주목사 崔湜을 파직하였다²⁶⁾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태조 2년 11월 ~ 4년 7월 사이에 광주의 지방관은 목사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은 조선개국초부터 한강을 건너면 바로 이르는 한양의 인접 지역이어서 중앙의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되었다.

먼저 태조는 정도전·남재·남은 그리고 이직에게 명하여 광주에 가서 壽陵을 살피게 한 점이나²⁷⁾ 이후 수릉에 관한 많은 기사가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왕실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음이 나타난다.

광주지역은 또한 왕실의 정치적 변동과 관계되어 등장하기도 하였다. 태종은 18년에 세자 李桂를 폐하여 광주에 추방하고 안치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양녕대군의 행보와 관련하여 왕실 및 정치세력들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에 관계된 내용이 이후 세종대까지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치된 장소가 광주의 어디인가는 적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성남을 비롯한 광주는 앞서 이처럼 현릉과 더불어 왕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되었음은 확실하다.

또한 사냥²⁸⁾과 강무²⁹⁾에 관한 내용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냥과 강무는 많은 문무관료와 군사가 일체가 되어 야영을 하면서 군사훈련과 더불어 정치적 사안을 조절해 나가는 국가행사였기에 강무장은 곧 수렵장인 동시에 진법훈련의 장소였다.

24)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吏」 『韓國史研究』 5, 1970.

25) 『太祖實錄』 2년 11월 12일 條.

26) 『위의 책』 4년 7월 5일 條.

27) 『위의 책』 4년 7월 11일 條.

28) 『太祖實錄』 6년 10월 2일 條.

29) 『太宗實錄』 7년 2월 13일 條.

따라서 그 적합지로 산짐승이 많고 백성이 살지 않은 한량한 곳을 택하여 시행하였다³⁰⁾. 이와 관련하여 광주에서 강무와 사냥을 빈번하게 한 기록이 보이는 것이다.

태종 7년 7월 광주에서 강무하고 樂生驛 前郊에서 머물렀으며,³¹⁾ 10월에도 近畿에서 강무를 하고 저녁에 광주의 탄천에서 머물렀다고 하여 지금의 성남과 직접 관련된 지역이 보인다. 이후에도 태종이 사냥을 하고 탄천에서 유숙하는 기사가 보이며 특히 탄천교가 무너져 內廐馬 3필이 물에 떨어져 죽자, 도로 治修를 잘못된 책임을 물어 광주판관 盧尙信을 80대의 장을 치고 파직한 기사³²⁾가 관심을 끈다. 이로 보아 '낙생역' 과 '탄천' 은 태조나 태종이 강무나 사냥을 하고 귀경하지 못했을 경우에 숙박을 했던 곳이며, 탄천은 한양과 광주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임도 알 수 있다. 이는 후일 태조와 태종의 적대적인 부자관계가 해소되어 함께 사냥을 하고 탄천에 이르러 유숙했다³³⁾는 점으로 보아 더욱 확실해진다. 따라서 낙생역과 탄천은 왕이 광주로 사냥을 나와 머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는 태종대의 강무장과 사냥터였을 것이다.

그러나 낙생역과 탄천 일대는 태종 말에 이르면서 강무와 사냥과 관련한 지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광주의 위요성³⁴⁾과 김단산³⁵⁾을 사냥과 강무장으로 이용하였다는 기사가 종종 보이고 세종 때에 이르면 사냥터와 강무장으로서 낙생역과 탄천의 기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세종 2년에 원경왕후, 그리고 4년에는

30) 朴道植, 「朝鮮初期 講武訓에 관한 研究」, 『朴成鳳教授 同甲紀念論叢』, 慶熙史學刊行委員會, 1987, pp. 389~422 참조.

31) 『太宗實錄』 7년 2월 13일 條

32) 『위의 책』 13년 10월 10일 條

33) 『위의 책』 12년 9월 16일 條

34) 『위의 책』 16년 10월 7일 條 위요성은 백제의 위례성을 일컫는 것이며 그 위치는 풍حن토성이나 풍남리토성에 비준을 두고 이해되고 있다.

35) 『위의 책』 17년 1월 29일 條

태종을 대모산 아래에 장사지내고 獻陵이라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세종은 부모이신 태종과 원경왕후의 묘가 있는 대모산과 연결한 탄천 일대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냥터와 강 무장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³⁶⁾ 이러한 이유에서 이후 세종이 광주에서 사냥과 강무를 할 때 검단산 인근 등에서 이를 행했다³⁷⁾고 하는 기사가 자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냥과 강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세종은 왕세자를 비롯하여 종친·부마들의 호종을 받으면서 온수현 온천으로 행차할 때에 낙생역에 次所를 정하고 있다.³⁸⁾ 그리고 온수현 온천을 마치고 수원부 오산원을 출발하여 올 때도 낙생역 앞뜰에서 머물렀다³⁹⁾라고 하여 낙생역은 왕이 귀경하기 직전에 머무는 장소로도 계속 이용되고 있다. 이는 세종대의 교통로가 황녕·성주·금성·옥천·청주·진천·죽산·용인에서 한양⁴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상도에서 온 봉화가 광주의 穿川山에서 융하게 하였는데,⁴¹⁾ 이는 낙생역이 사냥과 강무의 장소가 아니라 한양과 경상도

36) 『世宗實錄』 6년 11월 15일 條.

현물이 있는 근처 公田·私田을 논할 것 없이 折減하였다.

『위의 책』 6년 11월 15일 條.

「..... 수원·광주 등지에 거동하여 군사를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자 「수원 같은 곳은 강무할 지대가 아니고.....」라고 병조판서 趙末生 등이 아뢰니 이를 받아 들였다.

37) 『위의 책』 7년 9월 28일 條.

이후 세종대의 광주에서 행한 사냥과 강무는 검단산 일대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38) 『世宗實錄』 15년 3월 25일 條.

39) 『위의 책』 15년 4월 22일 · 17년 10월 10일 · 25년 4월 5일 · 26년 9월 25일 條.

40) 『위의 책』 20년 2월 15일 條.

41) 『앞의 책』 地理志 京都 漢城府 廣州 條. 참조.

穿川山 봉화는 수정구 금토2동 산35번지 일대의 天臨山烽燧로 밝혀졌다.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천림산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 세미나 논문집』, 199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성남시, 『城南天臨山烽燧』, 2000.

를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서 한양으로 오기 위한 마지막 기착지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 갔다고 하겠다. 이처럼 낙생역은 교통요지로 변창하면서 점차 사냥과 감무장의 의미는 상실되어 갔다고 하겠다.

이후 경기도의 감영이 수원에서 광주로 옮겨지고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게 함으로써⁴²⁾ 광주는 더욱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낙생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어 갔을 것이다. 이 즈음 성남지역을 포함한 광주의 규모는 호수는 1,436호며, 인구는 3100이며, 軍丁은 侍衛軍이 122명이요, 선군이 263명이⁴³⁾ 되어 경기도의 중요지역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조선초의 남한산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보인다. 태종 10년 이자명이 요동에서 돌아와 明軍과 遼軍의 전투를 아뢰는 것을 계기로 星山君 李櫻을 보내 광주의 일장성을 수축할 가부를 살펴보게 하였으나 노역이 많으면 백성이 살아가기 힘들 것을 염려하여 수축을 하지 않았다.⁴⁴⁾ 그리고 세종대에 이르러서도 경기 軍器點考察訪이 강화의 교동산성과 광주의 일장성을 수축할 것을 청하였으나 풍년을 기다려 수축하라고 명한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 남한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은 아직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2) 조선초의 사대부와 성남

조선왕조의 개창을 주도한 정도전을 주축으로 한 여말의 급진적인 개혁세력은 개국공신이 되어 미진한 개혁완수와 더불어 새 왕조의 기초를 다지는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정치유신을 단행하면서 정국을 주도해 갔다. 이와는 달리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을 중하게 여긴 이숭인·정몽주 등에 이어 이색·吉再 등도 유

42) 『위의 책』 30년 4월 5일·22일 條 참조.

43) 『위의 책』 148. 地理志 경기 광주목 條 참조.

44) 『太宗實錄』 10년 1월 14일·19일조 참조.

교의 윤리관을 바탕으로 이념정치를 주장하면서 새 왕조의 개창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정치에 불참하였다. 이들은 향촌에 은둔하거나 향촌에서의 교육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면서 '二君不死'라는 유교의 윤리관을 실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초의 사대부들의 성향과 관련하여 두문동 72현에 포함된 陰村 金若時(1335~1406)와 松山 趙弼이 성남지역과 관련되어 있음은 두루 알려져 있다. 먼저 陰村 金若時(1335~1406)는 우왕 9년에 태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進賢館直提學에 이르렀으나 조선왕조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태조가 직제학으로 임명하고 출사를 권유하였지만 응하지 않고 金光里 山谷間(지금의 중원구 금광동 일대)에 은거하면서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광산 김씨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후일 金光里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광동과 붙어 있는 단대동 역시 충절을 지킨 분이 사신 곳이란 의미인 '丹旆'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묘는 금광동 산에 있었으나 이 지역 일대가 개발됨에 따라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 공민산에 遷葬하였다⁴⁵⁾.

이와 더불어 중원구 여수동 30에는 향토문화유적 3호로 지정받은 趙弼의 묘가 있다. 松山 趙弼은 두류산(지금의 지리산)에서 청계산으로 옮겨와 청계사에서 은둔하면서 매일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 고려의 구도인 송악을 바라보면서 풍곡을 하였다고 하여 후일 사람들이 그 봉우리를 '望京峰' 또는 '望京臺'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그는 태조의 출사 권유를 끝까지 거절하였다고 한다. 처음 이름이 '胤'이었으나 두류산(지금의 지리산)에 들어가 이름도 胤으로 고치고 字도 종건이라 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망해도 죽지 않음이 개와 같고, 또 개는 옛 주인을 알아보는 義를 취함이라 하였다. 한편 조건은 태조의 출사를 반대하고 君臣之間이 아닌 朋友之禮로 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⁴⁶⁾

45) 성남시 편, 『전통시대의 성남』 『城南市史』, 1980, pp. 179~181. 참조.

태조는 원년에 정도전의 의견을 받아들여 入官補吏法을 정하여 문무관리를 선발·임용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관리 선발의 문호를 문과·무과·의과·역과·음양과·이과·문음의 7종으로 구분하여 7과라 하였다. 이 중에서 문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험제도로 운영하였다. 무과와 서리를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은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이는 태조가 고려유신에 대하여 대체로 관용의 태도를 견지하여 그들을 되도록 신정권에 회유 참여토록 하려 한 것으로 많은 유신들이 과거를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관직을 받기도 하였다.

앞서 설명된 이집의 가계는 성남지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데 특히 과거제가 운영되면서 이들은 주목할만한 성과를 날게 된다. 이 집은 李之直(문과급제·형조참의), 李之剛(문과급제·의정부좌참찬), 李之柔(문과급제·성주목사)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중에 장남 이지직은 부친인 이집의 묘소와 인근한 탄천에 묻혀 살면서 성남과 연고를 갖게 되었다. 그는 학문에 열중하고 강직하게 일생을 보냈으며, 李長孫, 李仁孫 두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문과급제를 하였다.⁴⁸⁾ 특히 이인손은 태종 17년(1417)에 식년문과에 同進事로 급제를 하고 검열에 발탁되었다. 그 후 대사헌에 이르러서는 국사를 강직하게 이야기하다가 大臣들에게 거슬려 한성부윤으로 옮겼다가 뒤에 호조판서가 되었다. 세조가 즉위하자 原從功臣 2등에 봉하여졌고 1459년 우의정에 오른 뒤 곧 치사하였다. 諡號는 忠嘉

46) 李肯綯『練藝室記述』, 楊州鄭校 編 『旌節詞誌』 2000, 議政府郷土史研究會『松山詞誌』 등에서는 두문동 72현과 더불어 그의 지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는 달리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에는 태조 1년에 상장군으로 개국공신 2등에 평양군으로 봉해진 후 여러 관직을 계속 역임하였고, 태종 15년에는 공조판서의 직임을 갖고 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종 3년에는 几杖을 하사받고 平城府院君에 進封되었다고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47) 韓永愚, 「李朝初期의 上級胥吏 成衆官」 『東亞文化』 10, 1971.

48) 李之直의 묘는 중원구 하대원동 산3-1에 있다.

며 학문을 좋아하며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품은 담백한 것을 좋아하고 침착하며 강건하여 가산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벼슬에 있으면서 법도를 준수하였다⁴⁹⁾고 한다. 그는李克培·李克堪·李克增·李克墩·李克均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가 문과에 급제하였다. 특히 세조대에 이르러 이들의 관직이 상향되면서 소위 '廣李'라고 칭해지는 조선의 명문가를 이루어갔다. 그들의 인품평은 한결같이 '성리학에 정통하고 성품들이 곧다'라고 평하고 있어 선대의 인품이 家風으로 이어지고 있음⁵⁰⁾을 알 수 있다.

한편 韓繼禧(1423~1482)의 묘가 분당구 율동 산2-1에 아들인 韓斯文(1446~1507)과 韓士介(1453~1521)의 묘와 같이 있다. 한계

49) 『世祖實錄』 9년 7월 13일 條, 우의정 이인손의 후記 참조.

50) 『太祖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文宗實錄』·『端宗實錄』·『世祖實錄』·『成宗實錄』·『燕山君日記』·『新增東國輿地勝覽』廣州牧條, 『廣李世譜』, 참조.

李克培(1422, 세종 4 ~ 1495 연산군 1) : 세종 29년에 식년문과급제하고 세조대에 이르러 佐翼功臣이 되고 영의정을 역임했다. 廣陵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翼平이다.

李克堪(1427, 세종 9 ~ 1465 세조 11) : 세조 즉위시에 좌익공신이 되고 2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廣城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文景이다.

李克增(1431, 세종 13 ~ 1494 성종 25) : 세조 2년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14년에 翊戴功臣이 되고 관직은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廣川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恭長이다.

李克墩(1435, 세종 17 ~ 1503 연산군 9) : 세조 3년에 親試文科에 급제하였고 성종 2년 佐理功臣에 봉해지고 병조·호조판서와 의정부의 좌우찬성을 역임하였다. 그는 연산군 4년 무오사화를 일으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일 시호인 翼平과 관직을 추탈 당하였다. 그의 묘는 중원구 하대원동 산3-1에 있다.

李克均(1437, 세종 19 ~ 1504 연산군 10) : 세조 2년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연산군시에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역임하면서 연산군의 황음을 바로 잡으려던 것이 화근이 되어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仁同으로 귀양가 賜死되었으나 후일 伸寃되었다.

최는 세종 29년 식년문과 정과로 급제한 이후 집현전 정자로 뽑혀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는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1465년에 이르러 이조판서가 되고 1469년 예종이 즉위하자 推忠定難翼戴功臣 3등에 책록되어 西原君에 봉하여졌고 시호는 文靖이다. 성종 2년에는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고 8년에는 좌찬성에 이르렀다. 그의 장남인 한사문은 세조 8년에 蔭補로 관직에 나간 후 1504년(연산군 10년)공조판서가 되고 후일 中宗反正에 공을 세워 靖國功臣 4등에 책훈되고 西川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恭簡이며 조선시대 명문가의 전통을 이어갔다. 그리고 한사개는 성종대에 처음 別提로 관직에 오른 이후 연산군대에 이르러 通政大夫로 승진하여 영흥·해주·진주 그리고 광주 목사를 역임하고 사후에 병조참판에 追贈되었다⁵¹⁾.

이와 같이 조선초의 사대부와 명문가를 이루고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는 예와는 달리 단지 출생지가 광주라고 쓰여진 급제자들이 산견되기도 한다. 이들이 직접 성남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생원과에 합격하여 관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李繼係는 세종 29년(1447)에 式年 生員科에 합격하여 병조판서에까지 올랐는데, 그의 本貫은 麗州였다. 그리고 본관이 中和인 梁珣 또한 이제손과 같이 생원과에 합격하였으나 관직에 오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⁵²⁾

51) 『端宗實錄』·『世祖實錄』·『睿宗實錄』·『成宗實錄』·『國朝榜目』·『國朝人物考』·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p 884. 참조.

그는 태조대에 개국공신 韓尙敬의 손자로 함길도관찰출척사 惠의 아들이다. 그의 집안은 조선초기의 명문거족이었으며 학식과 단정 한 성품으로 주위로부터 推重을 받았으며 특히 서거장과 교분이 두터웠다.

52) 『司馬榜目』 참조.

IV.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여말 신초에 성남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맺음말로 대신할까 한다.

1. 고려말에 들른 이집의 묘가 성남지역에 있어 그의 후손들은 이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들은 조선초에 이르면 명 분가를 이루면서 후일 성남지역을 포함한 광주가 신진관료들을 배출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형성하였다. 한편 공민왕시에 홍건적의 침입과 같은 국난을 당했을 때 일장성으로 불려졌던 남한산성은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의미를 갖고 외적에 대항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2. 조선초에 이르면 성남지역은 조선의 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체제에서 광주목으로 되었다. 조선의 군체제의 강화와 사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인 사냥과 강무가 행해 질 때에 특히 낙생역과 탄천은 태조와 태종이 사냥과 강무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유숙하는 지역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세종대에 이르면 이들 지역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묘소인 獻陵과 인접하게 되었고, 또한 낙생역이 영남지역을 잇는 중요한 교통요지가 됨에 따라 사냥과 강무장보다는 한성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유숙하는 지역으로 성격이 변하여 갔다.

한편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고려 말의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유학을 공부한 신진관료나 학자들의 입장은 신왕조에 대한 참여와 의리적 명분을 실현하고자 불참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신진관료나 성리학자들의 성향에서 볼 때 후일 고려왕조에 대하여 지조를 지켜 두문동 72현에 포함된 김약시는 성남의 금광동에서 은거하여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청계산에 올라 고려의 구도인 개경을 기리며 조선왕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하여 지고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도 또한 두문동 72현에 포함되어 있고 묘소는 성남시 향토문화유적 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이집의 아들인 이지직은 탄천에서 학문을 벗삼아 일생을 보냈다. 영의정을 역임한 이인손 이후 이극배를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태조~세조대를 거치면서 '廣李'라고 지칭되는 명문가를 이루어갔다.

이와 함께 묘소가 성남에 있는 한계희도 개국공신인 한상점의 아들이자 세종~성종대를 거치면서 의정부의 좌참성을 역임하였는데, 학식과 단정한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재손을 비롯한 광주의 재지유학자들이 문과를 통해 중앙정계에 대한 진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후일 성남지역이 조선왕조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된 지역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성남시의 集姓村 研究

文 秀 鎮*

<목차>

- I. 머리말
- II. 성남의 土姓
- III. 수정구의 집성촌
- IV. 중원구의 집성촌
- V. 분당구의 집성촌
- VI. 성남지역 집성촌의 특성
- 별. 맺음말.

I. 머 리 말

집성촌이란 동족마을이라고도 지칭되며, 姓氏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마을에 같은 본관을 가진 성씨끼리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원시사회에서 씨족생활을 하듯이 근대 도시 사회로 발전하기까지 농업국가에서는 같은 씨족끼리 모여 살게 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姓을 가진 것은 아득히 멀다. 그러나 왕족이나 귀족은 일찍부터 姓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민이나 노예는 근대 사회까지도 姓이 없이 존재하였다. 姓氏가 보편화된 것은 고려대 조가 호족연합을 꾀하면서 각 지역의 호족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姓을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본관을 가지고 성을

*신구대학 한국사 교수

칭하게 된 것이다.

집성촌의 형태는 일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찢뿔이 흩어지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집성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한 종족이 어느 한 마을에 계속해서 여러 대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와, 자기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며, 새 마을을 구성하고 후손들이 그 마을을 계속해서 발전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성촌의 발생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협연공동체적 생활을 일위하면서 온 유습을 들 수 있다. 동족마을을 일위하면서 마을의 제반행사에 모두가 힘을 합할 수 있었고, 향촌사회의 노동 집약적인 일들도 자활적으로 상부상조하며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족마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성남시는 조선시대에 광주목에 속하여 있던 곳으로 수도 서울에 가까워 중앙의 권세가들이 낙향하거나 사패지를 받거나, 선조의 묘를 쓰면서 후손들이 이주하여 사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말부터 급속히 추진된 도시화는 성남의 集姓村이나 世居地의 기능을 해체시켰던 것이다. 도시화로 인하여 이주민이 대거 정착하기 이전에 형성되었던 주거형태 즉, 集姓村이나 世居地의 상황은 많이 없어졌다. 다만, 오랫동안 집성촌을 형성한 문종과 일부 남아있는 집성촌의 형태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城南市史』에¹⁾ 실려 있는 것을 참고로 서술할 수 밖에 없었다.

II. 성남의 土姓

조선 초기에 土姓·續姓·來姓 등이 지리지를 편찬하면서 기록되었다. 성남시는 서울 외곽에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조선 초 廣州牧의 일부였던 성남시 지역의 토성은 정확하게 어떤 姓이었는데도 알 수 없다. 비교적 넓고 큰 행정구역이었던 광주목에

1) 성남시, 『城南市史』 1993.10.20. 1811-1893쪽

본관을 가지고 있는 姓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廣州牧의 토성이 셋으로 李·安·金氏가 있고 加屬姓이 셋으로 朴·盧·張氏가 있다. 亡姓이 다섯이니 尹·石·韓·池·素氏가 있다.²⁾ 광주는 큰 고을인데도 토성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특이하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廣州의 성씨로 李·尹·石·韓·安·金·池·素氏가 있고 並屬한 성으로 盧·張·朴氏가 있다.³⁾ 성남은 조선시대 광주목의 일부에 해당한다. 광주목의 영역은 모두 현재의 성남시 일원과 廣州市·河南市와 서울의 강동구·송파구·강남구와 서초구의 일부가 해당된다. 광주의 土姓이나 屬姓이 모두 현재의 성남시에 거주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광주목의 가장 요지를 성남시가 차지했다고 보아도 좋다. 이들 성씨가 현재의 성남지역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현재 素氏는 소멸되었고, 石氏도 충주와 해주를 본관으로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광주목에 土姓이 적었던 것은 고려 초에 왕규와 같은 인물이 호족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서 해종 때 난을 일으켜 배제했거나 都城에 가까워 土姓으로 정착하는 것을 꺼려했는지도 모른다. 廣州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大姓이 자리잡을 만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의 관심거리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낙향하더라도 가능하면 한양에서 100리 이내에 주로 거주지를 정하였다. 教旨가 내리면 바로 한양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100리이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한다.⁴⁾ 바로 양주·파주·여주·이천·수원·안산 등지로 오늘의 성남지역이 속한 광주도 해당된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 지역에 조선시대 이후에 집성촌이 많이 형성되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집성촌이 성남지역의 도시개발이 있기 전까지 존재하였으나 도시가 형성되면

2)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廣州牧 土姓

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廣州牧 姓氏

4) 이원명, 「종로구의 집성촌·세거지 형성과 특징」

『서울문화』 6집, 서울문화사학회, 2001.6. 9쪽

서 대부분 집단 이주하거나 폐촌이 되고 말았다. 집성촌의 형성과 현재의 상태를 어느정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Ⅲ. 壽井區의 집성촌

수정구는 남한산성에서 흐르는 丹塗川을 동서로 갈라 북쪽 편에 해당한다. 壽進洞의 壽자와 福井洞의 井자를 따서 수정구라 하였다. 17개 法定洞에 16개 行政洞으로 이루어졌다. 시청을 중심으로 동서로 펼쳐져 있어 고등동·상적동 일부를 제외하곤 주로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1) 高登洞

고등동의 동명의 유래는 高山洞의 高자와 登子里의 里자를 취하여 고등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안말과 웃말에는 덕수 이씨가 세거하였고, 길 아래말에는 경주 정씨가 정착해오고 있으며 주막거리에는 덕수 이씨 세거지로 전하여지고 있다.

등자리는 인능산 밑인데, 덕수 이씨 후손의 登科하는 경사가 있더라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덕수 이씨네 묘가 많은데 벼슬이 높아 石燈이 세워진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등자리에는 덕수 이씨 외에 경주 김씨·남양 홍씨의 세거지로 전해진다. 덕수이씨는 고등동 일대에 세거하였는데, 성종 때의 풍성군 李宜禧의 묘를 쓰고 그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등동과 등자리에는 풍성군의 후손들이 集姓村을 이루어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의정공과 이경민의 후손과 해풍군과 이함의 후손 그리고, 복계공과 이목의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2) 金土洞

금토동의 명칭은 金峴洞에서 金자를 취하고 遁土里에서 土자를

취하여 지어진 명칭이다.

금토동에는 남원 윤씨·진주 강씨 등이 세거하였다. 금현동에는 남원 윤씨는 윤증의 아들 克新(1527~1589)이 죽자 장지가 없어 가매장한 채 3년을 지낸 뒤 그 일대 안동 권씨 산에 장사지내고, 선조 대왕명에 따라 권씨네가 금현동 일대를 남원 윤씨에게 주게 되었다고 한다. 克新의 차남 暎은 선조 때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⁵⁾

바깥팔에는 나주 나씨와 나주 임씨가 세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말〔內道土里〕에는 안동 권씨·과평 윤씨가 세거하고 있다. 안동 권씨는 權攀(1419~1472)이 예조참판 겸 경기도 관찰사를 겸직할 때 장자인 증훈부도사 曄(活)이 죽자 장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조가 그 사정을 듣고 광주 월천 정계산 아래를 하사하였다. 이로써 권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3) 단대동(丹垌洞)

단대동은 4개동으로 되었다가 1989년 단대 2·3동은 금광동으로 개칭되어 중원구로 편입되고 1·4동은 합하여 단대동으로 단일화되어 수정구에 속하게 되었다.

논골〔畵洞〕에는 문화 윤씨와 윤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4) 복정동(福井洞)

장연 노씨와 전주 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신흥동 주공아파트 자리는 장연 노씨의 묘역으로 사려지었다. 구석말은 정수장과 경원대 사이의 마을로 구석진 곳이라 구석말로 칭하게 되었는데 청송 심씨·밀양 박씨·남양 홍씨의 세거지라고 한다.

기와말은 전주 강씨·원주 원씨·남양 홍씨·문화 유씨 등의 세거지였다.

안골〔內谷〕은 바옥리(磨玉里)라고도 하는데, 남쪽에 위치한

5) 『宣祖實錄』 卷171. 37年 2月 16日(丁酉)

마을로 진주 강씨·문화 유씨의 세거지이다.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진주 강씨는 고려말 예의판서를 역임하고, 조선조의 벼슬을 사양한 姜天命의 아들 隱이 그 아들과 안골에 배포한 후 자손이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문화 유씨는 세종 때 대사헌·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柳季聞(1383~1445)의⁶⁾ 사패지로 그 후손이 세거하였다. 남양 홍씨는 북정동에 1600년대 초에 정착하여 은거한 이래 세거하였다.

웃말은 경원대 서편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서편 마을로 해평 윤씨의 세거지이다. 집성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해평 윤씨는 흥천원감 尹敬之(1604~1659)가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응달말(陰村)은 가마질 남동쪽인데 이곳은 김해 김씨 세거지이다.

5) 사송동(沙松洞)

사송동의 명칭은 대왕면의 沙村里의 沙자와 松岾洞의 松자를 취합한 이름이다. 듸〔뚝〕박골은 솔고개 동남쪽 마을로 여흥 민씨의 세거지로 전해지고 있다.

별말은 별판에 있는 마을로 아랫말이라 부르기도 했다. 평택 임씨가 자리잡은 이래 의령 남씨·전주 이씨가 세거한 곳으로 알려졌다.

사촌은 전주 이씨·의령 남씨·평택 임씨 등의 세거지이다.

샘골은 진천 송씨를 비롯하여 남양 방씨·과주 엄씨·단양 우씨 등의 세거지로 알려졌다.

솔고개〔松岾里〕에는 여흥 민씨가 최초로 정착한 이래 원주 원씨 등이 입주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송동에는 원씨네 사패지가 있다.

질너머는 샘골 너머에 있는 마을로 남양 방씨·단양 우씨 등의 세거지이다. 광주 이씨가 단대리에서 이주하여 세거하고 있다.

1993년 1월 20일 일부는 분당구 매송동으로 되었다.

6) 『世宗實錄』 卷107, 27年1月 2日(丙子) 柳季聞의 卒記

6) 山城洞

김섬골은 김씨네가 세거하였으므로 붙여진 이름인데 수원 김씨가 세거하고 있다.

서낭당이에는 파평 윤씨가 세거하고 있다.

7) 上笛洞

상적동은 路上洞의 上자와 笛吹里의 笛자를 취하여 상적동이라 칭하게 되었다. 일설에는 덕수 이씨네의 登科로 피리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한다.

노상동에는 경주 김씨가 세거하였다. 저푸리〔笛吹里〕에는 덕수 이씨 판서공파·감사공파와 홍천 龍氏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8) 壽進洞

수진동에는 의령 남씨의 묘역이 있었다.

9) 始興洞

시흥동에는 경주 최씨·전주 이씨·남양 홍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10) 新村洞

담박골엔 평산 신씨·평택 임씨·남양 홍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비행장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두집매〔도립매〕는 작은 새말 입구 대로변이고 작은 새말은 두집매 안쪽 마을로 광주 이씨·충천 임씨의 세거지이나 광주 이씨 김성촌을 이루고 있다.

11) 新興洞

신흥 2동 용정촌(龍亭村)은 龍亭里라고도 부르며 동래 정씨 정형운(鄭亨耘)이 최초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조 때 이조판서·좌참성을 지낸 鄭大年⁷⁾이 낙향하여 집을 짓고 살았고 용달말 일대에는 동래 정씨 묘역이 있다.

샛고개〔間峴〕에는 평양 조씨의 세거지이다. 최초의 정착인은 부호군을 역임한 趙繼興(1534~1590)으로 이는 趙鎰의 5대손이다.

12) 深谷洞

심곡동의 가운데말에는 청주 한씨·순흥 안씨·경주 이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흥 안씨는 한림공 안명세(安名世)의 증손 안목(安睦)의 장자 안홍봉(安弘奉 1504~1544)과 차남 안홍기(安弘起 1521~1587) 두 형제가 심곡저수지 위안공〔장번〕에 자리잡고 살다가 현 심곡동392-6호에 이주하였고, 그 후손이 세거함으로써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아랫말에는 순흥 안씨·성주 이씨가 세거한 후 진주 강씨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양짓말에는 진주 이씨·김해 김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며, 웃말에는 교하 노씨·성주 이씨·순흥 안씨 등이 세거하였으며, 용달말에는 성주 이씨·경주 이씨·광주 이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 陽地洞

옛 달대동의 양지말 지역으로 문화 유씨·광산 김씨·연안 김씨·평산 신씨 등이 세거하였다. 연안 김씨는 문원중학교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하였다고 한다.

14) 오야동(梧野洞)

아랫말은 오야동의 중간으로서 경주 이씨가 세거하였다.

7) 『宣祖實錄』卷12, 11年 7月 5日(甲寅)

웃말은 전주 한씨의 충성공과 후손이 세거한 곳이다.
 화실은 전주 이씨 세거지이다.

15) 참곡동(倉谷洞)

간이골에는 전주 이씨·광산 김씨·과평 윤씨·김해 김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말에는 경주 배씨·양근 함씨가 처음 정착한 이래 경주 이씨·광주 이씨·김해 김씨·창녕 조씨 등이 세거하였다고 한다.

16) 太平洞

태평동의 자연 취락은 南氏便·숯골 등으로 불리운다. 남씨편엔 임진왜란 무렵 의령 남씨가 부락을 이루기 시작하였는데 광주 이씨·안동 권씨·순흥 안씨 등이 사는 부락에 비하여 세도가 컸으므로 남씨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탄리는 숯골이라고도 하는데 의령 남씨의 집성촌이며 은양 방씨의 세거지이다.

의령 남씨는 조선조 개국공신이며 영의정이었던 남재(南在, 1351-1419)의 자손이 세거하였다. 재의 아들 경문(景文)은 탄리에 거주하면서 의성군 지(智)·예문관 직제학 간(簡)·태종의 부마 휘(暉)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직의 둘째 아들 내첨사부정 칭(稱)의 후손이 세거함으로써 대체로 부정공파의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칭의 아들 변(卍)은 삭령군수이고 군수의 아들이 7형제인데 世雄은 병조참판, 世衡은 부사, 世桴은 안성군수, 世準은 이조참판, 世則은 병절교위, 世健은 예조참판, 世彦은 인천부사를 역임하였다. 경문의 아들이 탄리를 본거지로 번성하고 인물이 배출되었다.

IV. 중원구의 집성촌

中院區는 中洞의 中자와 上大院洞·下大院洞의 院자를 취해서 중원구라 하였다. 중원구는 단대천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어 동으로는 은행동에서부터 서로는 성남동까지 걸쳐 있다.

1) 葛峴洞

갈현동에는 김해 김씨·밀양 박씨·평택 임씨 등이 세거하였는데 평택 임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독점말의 평택 임씨는 林鐵九(1688~1730)가 정착한 이래 자손이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친구는 淨運의 장남으로 광주 삼리에서 살다가 동생 鐵殷·鐵七과 함께 갈현동 독점의 밀양 박씨인 처갓집 근처로 이주하였다. 친구·친척의 후손이 번성하고 출사하여 갈현동의 임씨 종중을 형성하고 있다.

2) 金光洞

단대 1동부터 4동까지 있었으나 1989년 5월 단대2동은 금광 1동, 단대3동은 금광 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금광동의 명칭 유래는 金光里라는 자연취락의 이름을 살려서 동명으로 한 것이다. 금광리에는 고려말 광산 김씨 金若時가 조선조에 굴복하지 않고 불사이군으로 은거하여 살다가 별세하였는데, 그 자손이 후에 벼슬에 오르고 집성촌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이 光山 金氏네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금광리라 칭하였다.⁸⁾ 단대쇼링 부근이 금광동의 입구로 양쪽 산이 마주 접근하여 병목처럼 지형이 이루어져 광풍 머리라 칭하기도 하였다. 김약시는 자손들에게 내가 살던 이 고을을 세상에 전하지 말라 하였다 해서 부전어동(不傳於洞)이라고도 하였다 한다. 김약시가 은거하고 그 자손이 세거하였는데, 新丘大學 캠퍼스는 김약시 등의 묘소가 있는 광산 김씨 종

8) 光山金氏忠定公派 宗親會 『金光洞世世錄』 1978. 3. 30

산이었다. 1969년 성남시의 도시개발에 의하여 廣州市 實村面三合里 慈巖山에 천묘하였다.

또 금광동에는 남양 홍씨와 인동 장씨도 세거하였다.

3) 島村洞

도촌동의 명칭은 마을 앞과 뒤에 하천이 있어서 마치 섬처럼 생겼다 하여 섬말(島村)이라 칭한데서 유래하였다. 여기에는 진주 강씨·밀양 박씨·평산 신씨·경주 정씨·경주 최씨·남양 홍씨 등이 정착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남양 홍씨는 승정원의 좌부승지·우승지 등을 역임하고 병자호란 때 임금이 서울을 떠나던 날 비치 大駕를 扈從하지 못하고 뒤따라 강도에 들어갔다가 金尙容을 따라 남문루의 불 속에 뛰어들어 죽어 뒤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던 洪命亨의⁹⁾ 아들 洪處道(1625~1691)가 영양현감을 그만두고 도촌리에 이사와 은거하여 세거했다고 한다.

응달말은 경주 정씨 집성촌이다. 양지말(섬말)과 거의 같은 시기에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응달말 뒷산에는 정탁(鄭埰)의 묘와 경주 최씨 묘역이 있다.

중말(中村)은 섬말과 여수동 중간지점인데, 고성 이씨·전주 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고성 이씨는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李原(1358~1429)의 6세손 이오(李攸)가 병절교위로 서울에서 살다가 조정이 어려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중말에 낙향하여 세거하였다고 전하여진다. 이원은 아들이 7명으로 李堉·谷·埵·埰·場·增·堀¹⁰⁾ 등으로 모두 벼슬길에 올라 후세가 창성하였다. 이원의 7남 李堉의 아들 李陸은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고¹¹⁾ 호조참판·병조참판 등 내외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산에는 이원의 부친 李瓘의 단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의 묘가 석물과 함께 고성 이씨 집성

9) 『仁祖實錄』 卷34, 15年 1月 22日

10) 『世宗實錄』 卷3, 8年 3月 15日(己酉)

11) 『成宗實錄』 卷25, 22年 2月 2日

촌을 증명하는 듯하며, 마을에는 원의 재실과 신도비가 있었다.

4) 上大院洞

동명의 유래는 宋言愼의 서원이 있는 곳을 상대원, 李集의 서원이 있는 곳을 하대원이라 구분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고려시대에 대원이 있어서 위쪽을 상대원, 아래쪽을 하대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보통골에는 온양 방씨·남원 양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말의 아호가 普通이요, 힘이 장사인 方有良이 정착한 이래 그 후손이 세거한 곳으로 보통골이라 했다 한다.

송촌의 여산 송씨는 정주목사였던 宋壽(1470~1518)가 살기 시작하면서 송씨 세거지가 되었다. 송수는 광주 이씨 이극돈의 사위로 장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극돈이 생전에 사위를 자기 곁에 묻어 달라고 해서 극돈의 묘 옆에 장사지냈다는 것이다. 상대원에 세거한 송씨는 수의 3남인 말경의 후손으로 그 손자인 言愼(1542~1612)이 퇴계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직전 평양감사를 역임하는 등 각도 관찰사와 의정부 좌참찬·지중추부사·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면서 당쟁에서 서인을 많이 공격하였으며 광해군 초에 축출되었다 한다.¹²⁾

黃村의 창원 황씨는 황윤구(1607~1691)가 강원도 철원에서 이거하여 정착한 후 후손이 세거하여 황씨 촌락이 형성되었다.

밀양 박씨는 朴長民(1758~1813)의 부인 여산 송씨가 그 아들과 함께 천정집 근처로 이주함으로써 그 후손이 세거하였다. 남원 양씨는 중종 때 이조판서·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梁淵(?~1542)의¹³⁾ 후손이 세거하였다.

사기막골에는 林씨와 최씨가 정착한 이래 김해 김씨·진주 강씨·해주 정씨가 세거하였다.

12) 『宣祖實錄』卷174, 37年 5月 27日(丁丑)

13) 『中宗實錄』卷98, 37年 7月 27日(乙亥)

증간말에는 사기막골과 보통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사기막골의 김해 김씨가 분가하였다.

5) 城南洞

성남동지역은 자연취락이 없었던 임야나 전답이었으므로 세거성씨는 찾을 수 없다.

6) 麗水洞

벌말은 고성 이씨·동래 정씨·평양 조씨 등이 세거하여 왔으나 분당지구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새터말은 전주 이씨가 정착하면서 새로 취락이 형성되었다.

소만말은 순천 김씨·남양 홍씨·전주 이씨·결성 장씨 등의 세거지로 알려졌다. 마을 뒷산은 장씨 종산이다.

남양 홍씨 중 일부는 도촌동에 정착한 홍치도의 후손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

속말은 소만말에 살던 순천 김씨 후손들이 분가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파평 윤씨·전주 이씨·평양 조씨 등의 세거지가 되었다.

전주 이씨는 조선 개국공신(3등) 원성부원군 李伯由(1352~1399)¹⁴⁾의 부인 파평 윤씨가 친정집에서 별세함으로써 여수동에 장사지내고 그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유의 셋째 아들 균(翻)이 이조참의로 그의 자손이 세거함으로써 성남의 토착민을 이루었다.

안말은 여수동 중심지에 자리잡은 마을로 순천 김씨·전주 이씨 등이 정착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회천말은 안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 이 마을 서당 선생의 호가 회천이라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고성 이씨·전주 이씨·남양 홍씨 등의 세거지로 알려졌다.

14) 『太祖實錄』 卷1. 1年 7月 17日(丙申)

6) 성남시의 集姓村 研究

7) 은행동

은행동에는 순흥 안씨, 단양 우씨, 동래 정씨, 해주 오씨, 이천 서씨, 유씨, 황씨 등이 세거하고 있다.

8) 중동

원래 임야나 전답 혹은, 벌판으로 되어 있어 토착민이 없었다.

9) 下大院洞

극말에는 광주 이씨가 살고 있다.

깃말에는 밀양 박씨의 세거지이다. 자헌대부 지엄부사 박유(朴維, 1664~1736)의 장남 起東이 양주에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바깥말은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광주 이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안골은 광주 이씨의 본거지로 집성촌을 이루었다.

광주 이씨의 증시조라 할 수 있는 李集(1314~1388)은 벼슬을 사양하고 광주 땅에 은거함으로써 성남의 土姓이 되었는데, 장남 之直은 보문각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그는 炭川 변에 낙향하여 여생을 바쳤는데 호가 탄천이라 세상에서 탄천선생이라 하였고, 칠백리에 오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지직의 아들 仁孫은 우의정에 오르고, 長孫의 아들 克圭는 병조참의, 인손의 아들 5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克培는 영의정에 廣陵府院君, 克埜는 형조판서에 廣城君, 克增은 호조판서에 廣川君, 克墩은 좌참성에 廣原君, 克均은 좌의정에 오르는 등 자손이 번성하고 현달하였다.

이품골은 경주 최씨가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웃말은 칠원 윤씨의 세거지이다.

V. 盆唐區의 집성촌

문당구는 성남시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도시화가 되었다. 신 도시 계획에 의하여 주로 아파트촌으로 조성이 되어 옛 촌락의 자취가 많이 훼손되었다. 조선 초 이후 주로 세거해 온 성씨들을 각 동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동 이름도 최근에 자주 바뀌어 혼동을 초래한다. 『城南市史』에 나온 순서로 서술하되 『분당의 땅이름 이야기』¹⁵⁾에서 바뀐 이름을 표기하기로 한다.

1) 九美洞

가운데 구미는 뒷구미와 앞구미 사이에 있어 가운데 말이라고도 하며 문화 유씨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곶안〔石村〕은 넘말과 벌말 사이에 있는 마을로 최초로 전의 이씨가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그후 안동 김씨·경주 김씨가 정착하였다.

넘말은 곶안에 살던 전의 이씨·경주 김씨 등이 분가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뒷구미〔後九美〕는 금곡동 셋터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밀양 박씨·경주 김씨·문화 유씨 등이 세거하였는데 밀양 박씨 집성촌이다.

벌말〔坪村〕은 앞구미 동쪽에 자리잡아 벌말이라 칭하는데 전주 이씨·김해 김씨가 일제 때 이주하여 살았다.

앞구미〔前九美〕는 구미동 최초의 취락으로 문화 유씨·김해 김씨 등이 최초로 정착했다.

오리뜰은 성남시 최남단 마을로 일평 부평이라고도 하며, 김해 김씨가 최초로 정착한 이래 전의 이씨·인동 장씨가 세거하고 김해 김씨 집성촌이다.

갯골은 넘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의 이씨·문화 유씨 등이

1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분당의 땅이름 이야기』 1999.10.

정착하여 왔다.

2) 宮內洞

금곡동에서 통합, 관합하여 왔으나 1996년 1월 15일 금곡동에서 독립 행정동이 되었다.

궁내동의 명칭은 증종의 다섯째 아들인 德陽君 李岐의 묘와 永徽君夫人 권씨가 묻힌 그 무덤을 관리하기 위한 작은 읍을 지었으므로 궁안, 또는 궁내로 부르게 된 것이다.

궁안은 조선시대 宮內村으로 불리웠으며 전주 이씨·강릉 최씨·창원 황씨가 세거하고 있다. 덕양군 이기의 묘를 쓰고 그후 덕양군의 10대손 李周新(1745-1798)이 이주하여 세거한 것으로 전하여진다. 궁내동은 전주 이씨의 사패지로 전주 이씨 집성촌을 이루었다.

일부는 草林洞이 되었다.

3) 金谷洞

금곡동의 명칭은 쇠가 났다는 쇠골〔金谷〕의 한자 표기에서 금곡리라 부르게 되었다. 새터말〔新基〕은 광주군 낙생면 금곡리에 속했던 마을로 궁내동 궁안 동남쪽에 있다. 이곳은 황무지였을 때 창원 황씨 등이 정착하였고, 그 후 김해 김씨·안동 권씨·김령 김씨 등의 세거지로 밭갈 안 또는 서울 가까운 두메라 칭하기도 한다. 쇠골〔金谷〕은 셋터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금곡동이라 칭했다. 이 마을의 안동 권씨는 선조때 이조판서·예조판서를 지낸 權克禮¹⁶⁾의 아들이며, 광해군 때 예조좌랑이었던 權得己(1570-1622)가¹⁷⁾ 처음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하여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권득기는 산장 등을 사이에 두고 있는 궁내동 귀성군 李贍의 사위가 된 연유로 쇠골에 배

16) 『宣祖實錄』卷23, 22年 5月 23日(己巳)

17) 『光海君日記』卷29, 2年 5月 2日(丙午)條

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귀성군은 외손 권심이 봉제사를 하였는데 그는 권득기의 3남이다. 금곡동 일대의 권씨네 땅은 원래 궁내동 전주 이씨의 사패지였는데 권씨네에게 주었다고 한다. 1996년 1월 15일 금곡동의 일부가 新基洞으로 되었다.

4) 대장동(大庄洞)

대장동은 운중동의 관할이 되었다. 무두만이(舞頭滿以)는 해주 오씨의 세거지이다. 吳允誠(1570~1618)의 묘를 쓴 후 그 후손이 세거하면서 윤함의 호를 따서 월곡공파를 이루었다. 윤함은 인조 때 좌의정을 지낸 吳允謙¹⁸⁾의 아우이다. 이곳은 원래 윤경이 먼저 자리를 잡았으나 아우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이곳에 장사지내고 그 후손이 살기 시작하였다.

壯土리는 웃장토리와 아랫장토리로 구분되는데 웃장토리는 용인 군 수지면에 속한다. 아랫장토리는 벌말이라고도 하는데 광주 이씨·경주 김씨·우계 이씨·밀양 박씨 등이 세거하였다. 대장동의 중심인 태봉은 태봉이 있는 마을로 우계 이씨·전의 이씨가 세거하였다.

대장동에 자리잡은 우계 이씨는 대장동의 토착명문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하였다. 대장동에 최초로 자리잡은 우계 이씨는 덕천 군수 李仁淑의 차남 李景衍의 후손이 세거하여 왔다. 경연의 아들 微의 아들 李之芳(1466~1537)은 병장으로 일컬어졌는데 평안도병사·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고¹⁹⁾ 그의 손자 殷(1516~1583)은 명종 때 도승지·대사헌을 역임하여 자손이 번창하고 현달하여 대장동의 토착명문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하였다.

전의 이씨는 平簡公 금성군 李禮長(1406~1456)의 사패지가 되어 그 후손이 세거하였다.

18) 『仁祖實錄』卷32, 14年 1月 19日(乙丑)

19) 『中宗實錄』卷50, 19年 3月 10日(乙亥)

5) 東遼洞

광주군 낙생면 동원리가 성남시 동원동으로 개칭되어 금곡동의 관할이 되었다. 광주머내에는 김해 김씨를 비롯하여 제주 고씨·원주 이씨·남양 홍씨 등이 세거해온 마을로 김해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제주 고씨는 高光字의 아들 元喆이 해주에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후 자손이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셋터는 광주머니 남쪽에 있으며 남양 홍씨와 김해 김씨가 새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6) 柏峴洞

판교동으로 통합하여 행정동인 판교동 관할로 되었다. 새말은 굴내동 굴안과 판교동너다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조 말엽 김해 김씨·현풍 박씨 등에 의해 처음 취락이 형성된 곳으로 일명, 안궁안이라 칭한다.

웃말은 중간말 위 남쪽에 있어 웃말이라 칭하며 나주 정씨·청주 한씨·한양 조씨·전주 이씨 등의 취락이 형성되었다.

나주 정씨는 명종 때 병조판서·좌찬성 등을 역임한 丁應斗²⁰⁾의 차남 丁胤禧(1531-1589)의 묘를 쓰고 후손이 세거하여 고암공파를 이루었다.

아랫말은 중간말 북쪽에 있는데 평산 신씨·남원 윤씨·동래 정씨 등이 촌락을 이루고 있다. 양짓말은 중간말 서쪽에 있다. 전주 이씨·나주 정씨·청주 한씨 등이 세거한다. 수풍안은 숲안에 있어 수풍안이라 불렀던 마을로 동래 정씨·나주 정씨·전주 이씨 등의 세거지이다.

1993년 1월 20일 동의 일부가 매송동으로 되었다.

7) 盆唐洞

분당동은 盆店里의 盆자와 唐講里의 唐자를 취하여 분당동이라

20) 『明宗實錄』 卷28, 17年 1月 8日(癸巳), 卷29, 18年 3月 6日

창하였다.

벌터에는 안당모루와 점골 사이 허허벌판에 자리잡은 마을로 청주 한씨 등이 정착하였다가 분당지역 개발로 폐동되었다. 셋당모루는 안당모루에 속했던 마을로 안당모루와 정수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셋당모루는 신창 맹씨의 賜牌地로 성종때 嘉善大夫 新昌君 孟 頌欽(1429~)의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흥은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입등공신이 되어 신창군에 봉해지고²¹⁾ 분당동 일대를 사패지로 받아 맹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석흥의 증손 三遷은 아들 賴과 幹 형제를 두었는데, 분당동에 대대로 세거한 사람들은 원(1521~1595)의 후손들이다.

안말〔內村〕은 새능산 골짜기 안에 위치한 마을로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후손인 文化公의 묘를 새능산에 쓴 후부터 그 후손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이어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와 달성 서씨·순흥 안씨 등이 대대로 세거하였다.

점골〔占谷·店村〕은 분당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예전에 이곳에서 그릇을 구웠다 하여 점골이라 하였다. 여기에 세거하여 온 성씨는 신창 맹씨·양천 허씨·김해 김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분당지역 개발로 폐동되었다.

분당동의 전주 이씨는 효령대군의 손자 금성정 순의 넷째 아들인 健의 손자 완산부원군 이축(李軸, 1519~1555)의 묘를 쓰고 그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축의 아들 思齊와 思省의 후손이 세거하였는데 사제의 아들 번은 홍문관 직제학 자(訥)는 호조참판이었다.

또 다른 파의 전주 이씨는 定宗의 7남 守道君 李德生의 13대손이 양주에서 이사와 정착함으로써 후손이 세거하였다고 한다.

청주 한씨는 세조·성종 때 이조판서·좌참성 등을 역임한 문정공 한계희의 묘가 있고²²⁾ 차남 사무(士武, 1452~1482)의 후손이

21) 『成宗實錄』卷175, 16年 2月 18日(庚午)

22) 『成宗實錄』卷145, 13年 8月 19日(乙酉) 한계희의 졸기.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당동의 일부는 書堂洞이 되었다.

8) 三坪洞

삼평동의 명칭은 삼거리의 三자와 坪들(淑坪, 福坪)의 坪자를 취하여 지어진 이름이고 판교동에 통합되어 그 관할로 되었다. 미들골은 독점과 삼거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광산 김씨·양근 함씨·경주 최씨 등의 세거지이다. 坪들은 화랑보〔채산보〕 앞 들만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칭한 이름이다. 이 곳엔 평산 신씨가 세거하였다. 신씨네 다음으로 연일 정씨·청풍 김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거리에는 정씨·노씨·단양 우씨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성내미(城南)는 삼거리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서·남·북의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는 청주 정씨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후 광산 김씨 등이 세거하였다.

9) 書峴洞

서현동은 광주군 돌마면 懸書村·陽峴里 지역이었는데, 1914년 서현리라 칭하게 되었다. 書峴洞의 명칭은 懸書村의 書자와 陽峴里의 峴자를 취하여 칭한 이름이다. 일설에는 3백년 전에 배고개〔피고개〕 넘어 書堂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서당이 있는 고개 즉, 書峴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된섬말(懸書村)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둔서촌으로 불리웠던 마을로 너머된섬말과 숲안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이 마을은 수내동 숲안에 살던 한산 이씨 봉화공과 후손들이 분가하여 살면서 형성된 취락이다. 별고개〔陽峴〕는 된섬말과 이매동 가골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지역은 경주 최씨와 전주 이씨 세거지로 서쪽지역은 아랫말, 동쪽지역은 웃말이라 칭한다. 안골에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와 경주 최씨·한산 이씨·창녕 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경주 최씨는 6대째 세거하고, 창녕 이씨는 李石株

(1680~1734)가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주 최씨의 밀집지역인 아랫말 지역은 분당지구에 편입되었고, 전주 이씨 집성촌인 웃말은 미편입되었다.

은행재이는 안골과 율동 서근배미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통로골에서는 진너머라 칭하기도 하는데 경주 이씨·제주 고씨·달성 이씨 등의 세거지이다.

통로골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 후손들의 세거지이다.

서현동은 분당동에서 나누어지고, 율동의 전체가 서현동으로 되고, 다시 서현동의 일부가 書堂洞으로 되었다.

10) 石雲洞

광주군 낙생면 석운리였는데 1914년 바라미를 합쳐 석운리라 칭하였고, 1973년 성남시가 되면서 은중동으로 되었다. 도루니는 전주 이씨가 정착 세거한 이래 밀양 박씨가 입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 이씨는 덕천군의 아들 新宗君 恣簡公 李孝伯(1416~1487)²³⁾이 석운동에서 사냥을 즐겼는데, 「내가 죽거든 이곳에 묻어달라」고 하여 이의 묘를 석운동에 쓰고 자손이 왕래하였는데, 신종군의 현손 영의정·대제학을 역임한 李景奭²⁴⁾이 배포하여 자손이 세거함으로써 전주 이씨 집성촌이 형성되었다. 이경석은 효행으로 旌闕가 내렸고 文忠의 시호를 받았으며 경석의 아들 哲英은 평시 서령, 손자 翺成은 정랑, 증손자 眞養은 현령, 眞望은 대제학·예조판서, 현손 匡德(1690~1748)은 호조참판·대제학을 지내는 등 자손이 출사 현달하여 명문을 이루었다.

11) 藪內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수내촌이었다가 1914년 광주군 돌마면 수내리라 칭하였다. 수내동은 고려 공민왕 때 落溪라 부르던

23) 『燕山君日記』卷44, 8年 6月 18日(戊午)

24) 『顯宗實錄』卷19, 12年 9月 23日(辛未)

곳인데, 조선조 경종 때 청백리 李秉泰가 숲을 가꾸어 숲안이라 부르다가 한자로 표기되면서 숲안〔叢內〕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 중기에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한산 이씨 선조묘와 神道碑·旌閭·古家·祠堂·支石墓·보호수 등의 문화유적이 있다.

너머역말은 역말에서 동쪽 산등성이 넘어에 위치하고, 이곳에는 한산 이씨 봉화현감을 지낸 奉化公 李長潤의 후손들이 세거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분당지구 개발로 1990년 폐동되었다. 숲안〔叢內〕은 분당천과 마을 사이에 밤나무 등의 나무 숲을 이루어 그 안에 있으므로 「숲안」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 사람은 한산 이씨 봉화공 7대손으로 대사성·대사간·부제학 등을 역임한 청백리로 이름을 날린 文清公 李秉泰(1688~1758)²⁵⁾로 전해진다. 이 마을 최초의 정착자로 알려진 이장윤이 죽자 그의 손자 보정 李之函(1455~1528)²⁶⁾이 마을 뒤 영장산에 자리를 쓰고 자손이 세거함으로써 한산 이씨 집성촌을 이루고 찻산은 이씨 묘역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한산 이씨 숲안종친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대로 후손이 출세하고 현달하여 가문을 빛냈고, 후손들에게 자존심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수내동 한산 이씨 묘역 일원은 경기도기념물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분당 신도시개발로 집성촌은 없어졌지만 현재, 정자1동에 100여호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정자동에 거주하는 성남시의회의원 李玩求씨는 선조때 이조·공조·예조판서·대사헌·대사간 등을 역임한 공신 鶴川君 李增²⁷⁾의 13대손이 된다.

요골〔龍谷〕은 본래 역말에 속한 마을이었으며, 연일 정씨·전주 이씨 등이 거주하다 1990년에 폐동되었다.

1992년 5월 1일 수내동에서 草林洞이 분동되고, 1993년 6월 5일 內亭洞이 분동되었다.

25) 『正祖實錄』卷44, 20年 5月 9日(癸丑)

26) 『宣祖修正實錄』권12, 11年 7月 1日(庚戌)

27) 『宣祖實錄』卷91, 宣祖 30年 8月 庚辰條.

12) 野塔洞

야탑동의 명칭은 梧野所의 野자와 上塔·下塔의 塔자를 취한 것이다.

오야소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동래 정씨이고 이어 경주 최씨가 정착하였다. 윗탑골은 광주 이씨·동래 정씨·성주 이씨·경주 이씨 등이 세거했던 마을이다.

경주 이씨는 李柱哲(1918년생)의 11대조인 李慶標가 양주군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후에 후손이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성주 이씨가 상탑동에 처음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상탑은 성주 이씨 집성촌이었는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주했다.

동래 정씨는 화성군에서 난리를 피해 상탑에 이주하여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 이씨는 仁孫의 3남 克增(1431~1494)이 상탑에 자리잡은 후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극증은 광천군에 봉해지고 이조·형조·병조판서·판증추부사를 역임했다.²⁸⁾

13) 雲中洞

조선시대 광주군 낙생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中山雲里와 山雲里를 합하여 운중리라 하였다. 1973년 7월 성남시 운중동으로 개칭되어 운중·하산운·대장·석운동을 관할하였다.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고 1991년 9월 분당구에 편제되었다.

상산운리〔운외부니〕는 안동 김씨가 정착한 이래 고성 이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 김씨는 양주 석실부락에서 이주하여왔다. 운중동에서 석운동으로 가는 고개 일대가 김씨 종산이다.

증간말에는 경주 이씨·용인 이씨·전주 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28) 『成宗實錄』 卷167. 15年 6月 23日(戊寅). 卷288. 25年 3월 25日9甲寅) 李克增 卒記

14) 栗洞

1992년 5월 1일 분당동에서 서현동을 나누면서 읍동 전체가 서현동이 되었다.

도랫말에는 청주 한씨 한계희의 후손이 정착한 이래 의령 남씨·문화 유씨 등이 세거 하였다. 문화 유씨는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柳尙運(1636~1703)²⁹⁾과 대사간을 지낸 柳尙載(1644~1703)³⁰⁾ 형제가 살았다. 유상문은 읍동에서 살다가 죽었다.

서근배미에는 성종 때 좌찬성을 지낸 한계희(1423~1482)의 묘를 분당 저수지 위 [북] 쪽에 쓰고 이 일대를 사패지로 받아 그 후손이 세거하면서 「한씨촌」을 형성하였다. 문정공 한계희는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斯文은 서천군, 士武는 한성판관, 士信은 삼등현령, 士介는 목사였다. 읍동에는 士信의 차남 도정공 顔의 후손이 많다.

진주 유씨는 호조참판 柔의 차남 柳從善(1519~1578)이 양주에서 이주하여 처음 정착한 후에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읍동의 최초의 백포자로 알려진 순흥 안씨는 개성 유후 安瑗³¹⁾의 아들이 여섯인데 장남 安從約(1355~1424)의 장남 玖가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 二梅洞

갯골에는 밀양 박씨·경주 최씨·수원 최씨·안동 김씨 등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 최씨는 100여 년전 崔洪出이 광주읍 쌍령리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최씨 세거지가 되었다.

29) 『肅宗實錄』 卷33, 肅宗 25年條, 卷45, 33年12月 4日(壬午) 柳尙運卒記.

30) 『肅宗實錄』 卷38, 29年5月 28日(壬申)

31) 『太宗實錄』 卷22, 11年 11月 13日(庚午)

플방앗거리에는 경주 최씨·안동 김씨 등이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안골에는 안동 김씨가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 다음으로 단양 우씨가 세거하고 있다.

1993년 1월 20일 下塔洞이 분동되고, 일부는 梅松洞으로 되고, 1993년 6월 5일 中塔洞이 별도 행정동으로 되었다.

16) 亭子洞

정자동은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亭子里라 부르던 곳으로 전주 이씨 집성촌이다. 성종의 아들 茂山君 종(愷)의 5남 태안군이 유람하던 곳으로 400여년전 그의 증손인 이경원이 정자를 지어 그의 아호가 亭村으로 이 일대를 정자리라 하였다.

너머능골은 능골 북쪽너머에 있는데, 능골에 살던 풍산 홍씨·전주 이씨 등이 분가하면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분당지구 개발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넘말은 옷말 북쪽 산 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인데 일명, 구석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주 이씨의 세거지로 전주 이씨 무산군파의 別廟가 있었다.

능골은 중간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성종의 손자인 泰安君 李彭壽의 묘가 있어 능골이라 한다. 능골은 경주 이씨·파평 윤씨 등의 세거지였으나 폐동되었다.

양지쪽 마을은 중간말 북쪽 남향에 위치한 마을로, 광주 이씨가 이거한 이래 전주 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중간말은 능골과 옷말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전주 이씨 무산군파와 파평 윤씨·최씨 등의 세거지로 전주 이씨 집성촌이었다. 정자리에는 광주 이씨도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자동에서는 佛亭洞이 분동되고 일부는 草林洞·內亭洞으로 되고 1996년 1월 15일 일부가 新基洞이 되었다.

17) 板橋洞

판교동의 옛 취락명칭은 너분바위와 판교〔넌다리〕가 있다. 너

분바위에는 연안 이씨가 최초로 정착하였는데 판교 일대가 연안 이씨 사패지이다. 연안 이씨가 정착한 이래 집성촌을 이루고 판교의 원주민으로 세거하고 있다.

넙다리에는 나주 나씨가 처음 자리잡은 이래 평산 신씨·김해 김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천 김씨는 성종 때에 통훈대부 金嗣源이 처음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원은 연안 이씨 이근건의 사위로 처가 근처에서 살았던 것이다. 사원의 차남 允灌과 그 자손이 여수동에 세거하여 묘역이 여수동에 있는데 사원 이하 9대의 묘가 판교 연안 이씨 종산에 있다.

18) 下山雲洞

하산운동은 운중동에 통합 관할되었다.

하산운동에는 연안 이씨·파평 윤씨·전주 이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I. 성남지역 집성촌의 특성

성남시는 1960년대에 급격히 도시화가 이루어진 뒤 1990년대에 '분당신도시 개발'로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성남시 지역이 광대하고 수백개의 성씨 세거지를 형성하였다. 이들이 모두 집성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城南市史』에서 집성촌이라 분류해 놓은 것을 골라보고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워낙 넓고 모든 지역을 답사하고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대체로 어떤 성씨가 어느 지역에 많이 살았고 현재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성남시지역은 조선시대에 廣州牧 또는 廣州留守의 관할지역이었다. 서울에서 근거리에 있으므로 서울에서 낙향한 경우가 있고, 선

조의 표역을 중심으로 세거지를 형성하거나, 사패지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집성촌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수 있다. 『성남시지』(1996년)의 세거 성씨는 본관을 밝힌 것이 77개, 姓만 밝힌 것이 8개가 나온다. 전주 이씨가 28곳에서 세거하고 김해 김씨가 15, 광주 이씨가 13, 남양 홍씨가 11, 밀양 박씨가 9, 경주 이씨·경주 최씨가 8, 문화 유씨·순흥 안씨·과평 윤씨·동래 정씨가 7개의 세거지를 가지고 있다.

◇ 성남시 10대 世居 姓氏

순위	世居 姓氏	세거지수	순위	세서성씨	세거지수
1	全州 李氏	28	6	慶州 崔氏	8
2	金海 金氏	15	8	順興 安氏	7
3	廣州 李氏	13	8	文化 柳氏	7
4	南陽 洪氏	11	8	坡平 尹氏	7
5	密陽 朴氏	9	8	東萊 鄭氏	7
6	慶州 李氏	8			

다음으로 의령 남씨·평산 신씨·청주 한씨가 6개, 전주 강씨·경주 광산 김씨·전의 이씨가 5개, 안동 김씨·고성 이씨·성주 이씨·한산 이씨·평택 임씨가 4개의 세거지를 가지고 있어 다수 거주하는 성씨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70개의 세거지가 나열되어 있다. 많은 세거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다수 주민이 거주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세거지 수로는 적지만 의령 남씨·청주 한씨·한산 이씨가 오히려 성남지역에서 큰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세거지와 집성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도 문제다. 세거지가 곧 집성촌이라 할 수도 있지만 세거하면서도 집성촌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다. 세거지 수는 많지만 집성촌을 형성하지 못한 성씨도 있다. 거꾸로 세거지 수는 적지만 집성촌을 형성한 경우도 있다. 앞에서 서술한 『城南市史』의 집성촌에 대한 서술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화로서 거의 알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서 집성촌 26개를 추려볼 수 있었다. 전주 이씨가 궁내동·석운동·정자동 정자리·증간말에 네 개의 집성촌을 형성하여 가장 많다. 다음으로 김해 김씨가 구미동(오리말)·동원동(광주머내)에, 밀양 박씨가 하대원동(윗말)·구미동(윗구미)에, 광주 이씨가 신촌동(작은새말)·하대원동(안골)에 각각 두 개씩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한 개의 집성촌을 이룬 경우는 전주 강씨(북정동 안골)·제주 고씨(동원동)·광산 김씨(금광동)·연안 김씨(양지동)·의령 남씨(태평동 단리)·순흥 안씨(심곡동)·해평 윤씨(북정동 웃말)·경주 이씨(야담동)·고성 이씨(도촌동 증촌)·덕수 이씨(고등동 등자리)·성주 이씨(야담동, 상담)·연안 이씨(관교동)·우계 이씨(대장동)·전의 이씨(구미동 골안)·한산 이씨(수내동 너머억말)·평택 임씨(갈현동)가 있다. 집성촌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청주 한씨는 읍동에 한씨촌을 형성하고 있어 큰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전주 이씨가 세거지 수도 가장 많지만 집성촌도 네 개나 형성하고 있다. 이는 조선왕조가 건국하고부터 성남지역이 도성의 외곽으로서 가깝고 사패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김해 김씨가 세거지가 많은 것은 전국적인 분포로 보아 김해 김씨가 가장 많은 것과 연계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주로 집성촌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성남지역은 권세가가 낙향하거나 사패지를 받았거나, 묘지를 쓰고 난 후에 후손이 거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고려말에 은거하여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는 광산 김씨 金若時가 금광동에 은거하여 후손이 세거하고, 광주 이씨 李集이 은거하여 후손이 하대원동에 세거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초에 낙향하거나 이주하여 산 사람의 후손이 세거한 곳이 가장 많다. 밀양 박씨(하대원동)·전의 이씨(구미동)·김해 김씨(구미동)·전주 이씨

(정자동) 등이 있다.

둘째, 腸脾地에서 후손이 세거한 것이다. 원씨(사송동)·문화 유씨(북정동)·연안 이씨(판교동)·전의 이씨(대장동)·전주 이씨(궁내동) 등이 있다.

셋째, 묘지를 쓰고 후손이 세거한 곳이다. 안동 권씨(금토동)·장면 노씨(북정동)·해주 오씨(대장동)·남원 윤씨(금토동)·덕수 이씨(고등동)·전주 이씨 덕양군(궁내동)·신종군 공간공 이효백(석운동)·효령대군 후손 文化公(분당동)·李軸(분당동)·한산 이씨(수내동)·나주 정씨(백현동)·청주 한씨(율동) 등이다. 이 중에서 안동 권씨·장면 노씨·남원 윤씨·청주 한씨 등은 묘지를 사표지로 받은 것이다.

성남지역이 서울에 가까우므로 낙향하거나 묘지로 선택하기 쉬웠던 곳이다. 그러므로 사대부들의 세거지로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Ⅶ. 맺음말

이상에서 성남지역의 집성촌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집성촌이란 것이 근대화가 되면서 많이 퇴색하였다. 더구나 성남은 갑작스런 도시화의 영향으로 실제로는 집성촌이란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도시 변두리에 조금씩 남아 있을 뿐이다.

여기에 언급한 집성촌의 형태도 실제로는 도시화가 형성되기 이전의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 내지는 뿌리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무모한 서술을 해본 것이다. 근거로 한 『城南市史』가 1993년에 간행되어 이미 10년이 다 된 책이다. 지난 10년은 성남에서 엄청난 발전을 하였다. 또한 논제인 집성촌의 형태도 엄청나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선 실제 답사가 병행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이고, 변화가 심해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타상의 이론을 연출한 것이 못내 아쉽다.

성남지역은 조선시대에 廣州牧 후에는 廣州留守府의 영역에 속한다. 조선초의 〈土姓〉에 廣州는 李·安·金氏 뿐이다. 광주목 정도면 5개 이상의 토성이 존재할 만한데 이상하다고 여겨진다. 조선조에서 土姓을 배제할 만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도성에 가깝기 때문에 土姓을 주지 않았는가? 어쨌든 광주 이씨를 제외하면 내세울 만한 본관을 廣州에 두지 않았다. 안씨도 순흥을 본관으로 표방하고 있었던 것 같다.

270개의 세거지를 열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성남지역의 집성촌이 다른 지역과는 약간의 특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형성시기가 주로 조선초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조의 漢陽定都와 연결할 수 있다. 都城에 가깝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낙향하더라도 먼 곳으로 가지 않고 성남지역에 정착했다. 다음으로 묘지와 연관된 집성촌이다. 권세가들이 묘지를 이 지역에 정하고 후손이 세거한 것이다. 또 임금의 사패지로서 후손이 세거한 곳이 많다. 묘지를 사패지로 받고 후손이 세거한 경우도 있다. 전 지역을 답사하고 세밀하게 집성촌을 연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성남시 관내 淸溪山의 여러 地名에 관한 調査 研究

金 琪 彬*

<목차>

- I. 序 言
- II. 淸계산
- III. 淸계산의 여러 지명
- IV. 結 言

I. 序 言

지명, 즉 땅이름은 그 지역 향토사 연구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되므로 향토사 연구와 지명은 不可分の 관계를 갖게 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되는 淸계산은 성남시 수정구는 물론, 서울 특별시 서초구, 과천시, 의왕시를 아우르는 산줄기로서 그 산자락이 내려앉은 각 고을의 지역 향토사와 깊이 관계되어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淸계산에 관한 자료는 과천시, 의왕시, 서울 서초구, 성남시(그전 경기도 광주군)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지명위원

각 지역에서는 또 이들 자료가 그 쓰임새에 따라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그전부터 청계산과 관련된 지명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다.

이 자료는 청계산 = 성남시 지역(수정구)만이라도 우선 지명을 조사하여 정리해 놓음으로서 앞으로 청계산 일대의 지명자료 집성을 위한 그 첫 단추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충분한 현지 조사와 자료 수집이 되지 못하여 그 지명의 出典이나 由來를 캐내는데 보자란 부분이 많았음을 밝혀둔다.

그래서 누락된 지명, 밝히지 못한 出典, 알 수 없는 지명의 來歷, 지명의 정확한 위치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와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자료를 시작으로 청계산 전체의 지명자료가 정리되고, 『淸溪山誌』로 꾸며져서 청계산을 둘러싼 시·군·구나 등산객, 향토사학자 등에게 좋은 자료로 공여 될 날을 기다려 본다.

II. 청계산(淸溪山)

성남시 수정구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시, 의왕시 등 1 특별시 3개시에 걸쳐있는 청계산은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청계산'이라든지 혹은 '청계천' 등 같은 이름들이 40여 개소나 분포하고 있어서 결코 낯설지 않은 이름이며, 이태백의 시에도 '청계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으므로 중국지명의 영향을 받았음직도 하다.

청계산은 백두대간 한남정맥의 한 줄기로서 그 높이는 618m인데, 더러 그 높이를 청계산 매봉의 높이인 583m로 기재한 책자가 많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산은 예로부터 산세가 수려하고 숲이 그윽하여, 항상 맑은 물이 넘쳐흐르므로 서울 남쪽의 명산으로 꼽았고, 또 이 산 서쪽의 과천 고을에서는 가뭄이 들면 이 산에 올라 祈雨祭를 지냈던 霽山이었다.

울창한 저 청계산은 이 雨光을 향하였습니다. 그 霽明한
 신이 계시어 비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기도함이 있으면 호응하시고 감동함이 있으면 드디어
 통하십니다. 지금 피악법은 언덕이나 절벽이 갈라졌습니다.
 사발 도랑은 이미 말랐고, 여러 심은 곡식도 타는 듯합니다.
 풍계 풍계 구름이 잠시 겹었다가도 뿔뿔 별이 나 곧 흩어
 집니다. 비유컨대 저 큰 화로에 점점 눈이 녹는 듯 합니다.
 백성은 장차 어찌 난탈 곡식을 먹겠습니까? 저들이 실로
 무슨 죄입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신께서는 가까이
 계시니 제 말을 들으시어 능히 총명케 하소서. 저희들에게
 (비를) 쏟아지게 하시어 땅을 기름지게 하여 (곡식이) 풍성
 하게 하소서. 흉년을 돌려 풍년으로 만드는 것이 장차
 누구의 공적이겠습니까? 1) (원문생략)

이것은 조선 말기 김조순이 청계산에서 올린 기우제문이며, 여기
 서 '남충'이란 과천고을을 말한다.

이 산은 '청계'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바위산이기 보다는 흙산이
 요, 남성적인 산이기 보다는 여성적인 산으로서 그 품안에 머무와
 다래와 박달나무나 그 외에 각종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寶庫이자 한편, 뛰어난 風光을 자랑하여 인근에서 탐승
 재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수려한 산세를 등에 지고 과천 쪽에는 서울대공원과 국립 현
 대미술관, 경마장 등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는 한국정신문화연
 구원이, 또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는 청계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 산은 그 줄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는데, 북쪽에서
 부터 옥녀봉(玉女峰, 375m), 매봉(582. 5m), 망경대(望京臺,
 618m), 이수봉(545. 8m), 석기봉, 국사봉(國思峰, 540. 2m) 순으로
 되어 있으며, 학고개에서 바라산, 백운산, 광교산으로 이어지고 있
 다.

1) 과천시 『과천향토사. 하』 (1993) 655쪽

이 산을 <과천읍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일명, 청룡산(靑龍山)이라 부른다고 하였는데, 의왕시 청계동의 청계사라는 절 이름이 그전에 '청룡사'였던 것은 산 이름 = 절 이름이 항상 동일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청룡산 및 오래 된 절 얼음과 눈에 갇혀진 언덕이
들 계곡에 임하였도다. 단정히 남창에 앉아 주역을
읽노라니, 종소리는 처음으로 움직이고, 닭은 것들이려 한다.
(원문생략)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과천현 불우조 '청계사'에 실린 이색(李穡 : 1328-1396)의 시이다.

이 산을 청룡산이라고 부른 것은 먼 옛날 푸른 용이 이 산의 허리를 뚫고 나와 승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풍수지리상 관악산을 백호산(白虎山)이라 하였으므로 청계산이 좌청룡에 해당되어 부르게 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천 고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다른 능침을 기준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청계산을 중심으로 서쪽의 과천시 막계동(莫溪洞)은 원래 맑은 내 = 달그네 = '막내'라고 부르던 곳이었다. 여기에 한자를 붙여 지금의 '막계동'이 되었지만, 「맑은 = 청(淸)」이요, 「내 = 계(溪)」로서 바로 막계 = 청계를 뜻하는 이름인 것이다.

또 의왕시 청계동은 청계사가 있는 골짜기로서 상청계, 중청계, 하청계로 구분되는데, 이 또한 청계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산은 서울 남쪽의 명산이기는 하지만, 문헌이나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朝鮮 개국 때 節義를 지킨 高麗 말의 유신들로서 이색(李穡), 길재(吉再: 1353 - 1419), 조윤(趙胤: 1351-1425) 등의 선비들이 이 산과 관련한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윤의 일화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망경대, 국사봉 참조)

그 외에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 1450 - 1504)과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 1786- 1856) 등의 이야기도 남아있는 것 같으나 필자가 과묵한 탓으로 아직 지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특히, 김추사는 만년을 과천에서 보내다시피 하였으므로 그의 발자취가 청계산 일대에 많이 남았을 것이며, 그 외에 여러 문집이나 족보 등에도 청계산에 관한 내용이 더러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꾸준히 수집, 정리하여 청계산 전체를 망라한 『청계산지』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사천 년 후에 늙은 나무꾼의 도끼가
나무를 쪼개고 고문(古文)을 천연스레 읽음인가.
신령스러운 풀과 사람 형상의 것을 어찌 다 얻을 수 있으리.
머리에 인 다섯 잎의 높은 구름도 업신여기듯 하는구나.
(원문생략)

이 시는 「청계산의 나무꾼이 산삼을 얻었기에 장난삼아 짓다」라는 제목의 김추사가 쓴 시로서 <완당집>에서 뽑은 것이다.

Ⅲ. 청계산의 여러 지명 (가,나,다 순)

◎ 고 병장 한기영 순직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상적동 사이의 경부고속도로 달래내고개 정상에 청계산쪽 언덕 위에 있는 비이다. 1968. 3. 23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순직한 공병 한기영을 추모하는 작은 돌비이다. 천림산 봉수대터의 동쪽 아래이며, 달래내 고개의 그전 포장된 구도로 변에 있다.

◎ 국대뿌리 : 깃대뿌리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금토동 경계의 청계산 줄기로서 이수봉의 바로 남쪽 능선에 해당된다. 옛날 깃대를 세웠던 봉우리라고 한다. 국대 = 깃대이며, 뿌리는 부리 = 악(岳), 봉(峰)을 나타낸다.

◎ 국사봉(國恩峰) : 국은봉(國恩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과 금토동, 의왕시 청계동 경계에 있는 청계산의 남쪽 끝 봉우리로서 높이는 540.2m이다. 이 산 남쪽으로 학교개(하오고개)가 있어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판교-평촌간)가 지나가고 있다.

이 국사봉이라는 이름도 '망정대'처럼 고려가 망할 때 절의를 지킨 송산(松山) 조 건(趙 玘)이 조선의 조정에 나가서 벼슬하지 않고 청계산에 은거하면서 옛 고려를 생각하였으므로 이곳을 '국사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국사봉'이라는 이름은 전국적으로 1백여 곳에 달하는데, '국사'라는 이름이 옛날 무속사회에서의 '굿'을 한자로 표기하여 생겨난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그 까닭은 '국사봉'(여기서 '사'는 思, 祀, 土, 賜 등 여러 가지임)이라는 이름의 산에는 태개 산신당이 있었거나 기우제를 지낸 곳 혹은, 고을의 鐵山이거나 祭天壇 등이 있어서 굿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²⁾

한편, 이 국사봉은 박정희 대통령이 충절의 신하 조 건의 지조를 기리는 뜻에서 한 때 국은봉(國恩峰)으로 명명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 굴앞골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청계산 이수봉 남쪽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안쪽에 굴이 틀려 있어서 민간에 전해지기를 굴의 끝이 달래내 고개로 이어 졌다고 한다.

2) 한국토지공사 『분당의 땅이름이야기』 (1999) 360-362쪽

◎ 금현동(金峴洞) : 쇠고개 : 굽고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마을이다. 지금의 금토동(金土洞)이라는 이름이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 때 금현동과 둔토리(遁土里)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인데, 금현동은 달래내고개의 서쪽, 청계산의 동쪽 마을이 된다.

금현동이라는 이름은 금토동의 내동 마을에서 운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쇠푸니고개, 또는 새고개, 쇠고개라고 불렀으므로 쇠고개 = 금현(金峴) = 굽고개 = 쇠푸니고개가 모두 같은 내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쇠푸니고개 참조)

◎ 까마귀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경부고속도로 남쪽, 노루배 바로 서남쪽에 있는 야산이다. 그전에 까마귀가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산이 까마귀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들어가서 깎인 산이 옛날 남쪽의 '송장산'이라고 하는데, 까마귀산과 송장산이 가까이 이웃하고 있어서 까마귀 = 송장 = 죽음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 내동(內洞) : 안골 : 내둔토리(內遁土里) : 안둔토리 : 안두레이골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은 본래 금현동과 둔토리(두레이)마을로 나누어지는데, 모두가 청계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다. 두레이(둔토리) 마을의 안쪽이 되므로 내동, 안골, 안둔토리, 안두레이골이라고 한다. (둔토리의 내력에 대하여는 외동 참조)

◎ 노루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경부고속도로의 아래 까막산 하천가에 있었던 넓은 바위이다. 너른 바위 → 너러바위 → 노루바위 → 노

부패로 변한 것이다.

◎ 달래내고개 : 달이내고개 : 달래나고개 :

월천현(月川峴) : 천천현(穿川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상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자 서울로 통하는 길이다. 이 고개가 넘어가는 곳은 옛부터 달래나고개, 달이내고개, 달래내고개, 월천현, 천천현, 월오천현 등으로 불려왔다.

지금은 이 고개 정상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달래내고개 옛 길은 금현동을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상적동으로 넘어 가고 있다.

이곳 달래내 고개에는 옛 사람들의 근친상간을 금기시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전국에 걸쳐서 약 20여 개소에 「달래나 보지(달라고나 해보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모형을 소개한다.

옛날 조실부모한 남매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마음씨 착하고 의종기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고 한다. 오누이는 부모가 없는 탓으로 과년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두 남매가 재너미 밭으로 일을 하러 갔다.

밭을 흘려 일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개 마루에서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없어서 두 남매가 그대로 흠뻑 젖도록 비를 맞고 말았다. 비에 젖은 두 남매의 꼴이 가관이었다. 여름 모시옷이 비에 젖어 살에 찰싹 달라붙어서 알몸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다.

이때 오라버니는 누이동생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미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한 여동생의 몸매를 보자 남녀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솟아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욕념을 억누르면서 누이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누이는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차려놓은 후 오빠

를 기다렸으나 오라버니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누이가 고개 마루에 올라가 보니 오라버니가 고개의 나무 밑에 피루성이 되어 죽어있었다. 오라버니는 누이를 앞세워 집에 보내놓고 친동생에게 욕정을 느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돌로 자기의 남근을 찍어 자살해 버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누이가 울면서 “죽지 말고 차라리 달라고나 해보지”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이 고개를 ‘달래내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³⁾

이 설화는 전국의 달래강, 달래고개, 달래산 등에 전해져 오고 있으며, 그 설화내용도 오누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났다든지, 오빠 - 누이가 아닌 누님과 남동생의 사이라든지, 지역에 따라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설은 그렇더라도 이곳은 옛날 정월 보름에 인근 마을에서 달맞이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개는 대모산 기슭에 자리잡은 현인릉(태종의 능, 서초구 내곡동 소재)의 내맥(來脈), 즉 내룡(來龍)으로 중요시되었다. 그리하여 시대에 따라서는 이 고개에 인마의 동행으로 고개가 꺾인다 하여 동행을 일시 금지한 경우라든지, 고개를 우회하여 다니게 한 적도 있다.

어쨌든 이곳 달래내고개로 우리 나라 고속도로의 효시인 경부고속도로 8차선 탄탄대로가 뚫리므로서 옛부터 불려온 천천현(穿川峴) = 뚫은 고개, 뚫린 고개라는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 대(臺)안우물 : 마왕굴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과천시 막계동 경계의 망경대에 있는 우물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과천시 막계동에 해당되는데 망경대 내에 있으므로 ‘대안우물’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 우물이 있는 곳은 천야 만야한 낭떠러지로서 대안에 명석을 한 장 깔만한 굴이 있으며, 굴 안의 돌에서 나는 샘으로서, 그전에

3) 최근학 『한국민담사전』 (문화출판공사, 1987) 87-88쪽

는 우물이 사람의 키를 넘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⁴⁾

한편 대안우물의 아래 쪽에 우물이 있어서 마왕굴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마왕굴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안우물을 뜻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마왕굴샘'이라는 이름에 대한 유래나 출처도 확실하지 않다.

◎ 땃밭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청계산 망경대 서쪽에 있는 편편한 능선이다. 이곳에 땃기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군용차량 주차장이 있으며, 그 옆은 석가봉이 된다. 산 능선이 편편하게 넓으므로 '대(大)밭' 땃밭이라 한 것이다.

◎ 돌문바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과천시 막계동,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계의 청계산 망경대 북쪽 능선에 있는 바위이다. 큰 바위 두 개가 겹쳐 서있는데, 큰 바위 사이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뚫려처럼 되었으므로 '돌문바위'라고 한다. (사진 1참조)



〈사진 1〉 청계산 돌문바위

4) 지광훈씨 : 수정구 상적동 옛골마을 상적상회 (79세) (723-8672)

◎ 동자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청계산 망경대 아래 군 도로 부근에 있는 샘이다. 원래 샘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모래를 밀어내고 물이 솟아 올랐으므로 한국통신에서 '동자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물이 맑고 깨끗하여 미군도 인정하는 좋은 물이라고 하며 '동자샘'이라는 이름의 내력은 확실하지 않다.

◎ 두레이골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청계산 국사봉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금토동 안쪽 마을이 되며, 청계산 이수봉의 동쪽 마을이 되고, 강정일당 묘소의 북쪽이 된다.

방위상 차이는 있으나 경부고속도로의 달래내고개 일대가 조선시대에는 천천현(穿川峴), 천천산, 천천령 등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천(穿)'의 훈은 고어에서 '뚫'이며, 뚫을 > 뚫을 = 천(穿)이 되고, 내 = 천(川)이므로 뚫내 > 두레이로 된 것이다.

한편 두레이 = 둔토리(遁土里)에서 둔토리라는 이름은 천천 = 두레이를 야화(雅化)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비가 물러나서 조용히 지내는 땅"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 망경대(望京臺)

망경봉이라고도 하며 청계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서 높이 618m이다. 꼭대기가 바위로 되어 솟아 올랐고, 이곳에 굴과 우물이 있으나 지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되어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다.

행정구역상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과천시 막계동의 경계가 되고 서쪽 산아래는 과천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이,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 2 참조)



〈사진 2〉 청계산 망경대

청계산의 최고봉인 이 석대는 원래 이곳에 오르면 눈 아래로 만경(萬景)이 전개되므로 '만경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조선 개국 초기 고려의 유신(遺臣) 조 윤(趙 胤: 1351- 1425)이 새 정부의 조정에 나가지 않고, 이 산에 올라 멀리 고려의 서울인 개경을 바라보며 통곡하였으므로 이곳을 망경대(望京臺)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조윤은 자신의 이름이 형인 조준에 의하여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조선 공신록〉에 오른 것을 보고 "이는 형이 아우를 아끼지 아니라 아우를 목되게 하는 것"이라 하고 자기 이름을 '견(狔)'으로 바꾸고 자를 '종견(從狔)'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나라와 임금을 잃고도 죽지 못함이 개와 같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한편 인근(의왕시 청계동) 청계사(寺)에는 「평양조씨 보본단(報本壇)」이라는 돌 비가 서있다. 이것은 조건의 평양조씨 문중에서 청계사 절에 산 70정보를 매어 주고 원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매년 제향을 지내오고 있다.⁵⁾

5) 과천시 『과천향보사, 하』 (1993) 722- 737쪽

◎ 망경대(望京臺) 각자(刻字)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청계산 꼭대기는 바위로 된 대(臺)로서 망경대라고 하며(망경대 황조) 이 바위 절벽에는 조선시대의 많은 시인 묵객들이 쓴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를 '망경대 각자'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다.⁶⁾

◎ 매봉 : 응봉(鷹峰) : 매바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과천시 막계동 경계의 청계산 망경대 북쪽 능선으로서 원터골에서 매바위를 지나 조금 더 가면 높이 582.5m의 매봉이 나온다. 청계산에는 두 개의 매봉이 있는데 이곳 매봉과 과천 서울대공원 남쪽의 의왕시 경계에 있는 높이 369m의 매봉이다.

매봉 응봉은 이곳에 매바위가 있어서 그 생김새가 펄 찰는 때 응봉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대개 매 외 삼(봉우리)을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꼭 맹금류인 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사진 3 참조)



〈사진 3〉 매봉

6) 성남시 『성남시사』 (1993) 1825쪽

◎ 명성바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미군부대 군용지 서쪽에 있는 큰 바위이다. (지금은 들어가 볼 수 없으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 이 바위 밑에서 샘이 솟아났는데, 옛날 여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소원 심취를 받았던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명성'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그 내력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다. 다만 임오군란 때 피난하다가 상적동 아랫말 이재복 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병성황후로부터 비롯된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 목배등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금토동 경계의 청계산 동쪽 능선에 있다. 이수봉-천림산 봉수대의 중간이 되는데, 이 산을 목배산, 목배등이라고 하며, 그 아래 목씨(睦氏)네 묘 3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목씨네 묘를 도굴꾼들이 파가면서 비석까지 가져갔다고 하며, 그후 목씨네 후손들이 찾아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옛골 지장훈씨 증언) 어느 때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목씨는 이 지역을 다스리던 책임자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 일본돈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청계산 이수봉 줄기 능선으로 목배등의 서쪽이 된다. 옛골 촌로들의 말에 의하면 산에서 나는 야생의 밀이 이곳에 많았다고 한다.

◎ 박석고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서울 양재로 들어가는 버스정류장 사거리를 말하며, 그전에 이 고개에 박석(薄石)을 깔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지역 역시 달래내고개처럼 현인능의 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고개

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박석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 배나무골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옛골의 청계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밀본돈의 서쪽(안쪽)이 되며, 이곳에 돌배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산운동(山雲洞) : 뫼륜 : 뫼루니 : 뫼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청계산 자락에 동서로 길게 늘어진 마을이다. 우리 토박이말 지명을 한자로 나타내면서 뫼루니, 뫼륜이라는 이름이 뫼 = 산(山)으로 혼차되고, 루니(륜) = 운(雲)으로 음차되어 산운동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옛말 '뫼, 마로'는 높다는 뜻을 지녔는데, 여러 갈래로 분화하여 마루(산꼭대기), 머리, 마리 등으로 되었으며, '뫼루니'도 그런 이름의 하나로서 산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서덜산 : 서덜골 : 말태기 : 물턱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과 수정구 금토동 경계의 중산운동 북쪽 청계산 줄기에 있는 높이 330m의 산 봉우리이다. 지도에는 서둘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산운동 일대에서 가장 높으므로 '말태기', '물턱'이라고도 하는데, 말태기는 '마루턱'을 뜻하는 이름으로 보인다.

산에 돌이 많으므로 '서덜 = 너덜' 산이라 부르는데, 그전에 약수가 솟아 나왔다고 하며, 지금은 그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 석기봉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의왕시 청계동, 과천시 막계동의 경계가 되는 봉우리이다. 망경대 서쪽 헬기장의 바로 서쪽 일대로서 이곳 산불 감시를 위한 긴급연락 안내판에도 '석기봉'이라고 표시되

이 있다. (사진 4 참조)



〈사진 4〉 석기봉 표지판

석기봉이라는 이름도 '이수봉', '마왕굴샘' 처럼 그 출처나 한문 표기 유래 등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자료의 제보값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곳 석기봉에서 남쪽 4 - 5Km 쯤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석운동, 수지읍 고기리사이를 흐르는 석기천(石基川)이 있는데, 이 석기봉과의 관련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송장산(送葬山)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달래내고개에 정한 산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지금은 산이 끊어져서 함몰되었다. 왜 송장산이라고 불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산이 끊어졌으므로 '송장산'이라는 이름대로 된 것이라고 한다.⁷⁾

7) 지장동역 : 수정구 상적동 옛골마을 (79세, 723- 8672)

◎ 쇠푸니고개(쇠퐁이고개) : 쇠고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분당구 운중동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여기서 쇠는 쇠붙이는 뜻하거나 자물쇠, 혹은 풍수지리에서 지남철을 뜻하기도 하기도하고, 또 속된 말로 돈을 '쇠'라고도 한다. '퐁'은 한 퐁, 두 퐁처럼 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전에 이 고개를 넘어 다니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금토동에 쇠(금)를 캐던 광맥이 있어서 채굴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쇠고개 = 새고개로서 새로 생긴 고개의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곳은 판교 - 평촌간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새 고개가 뜰었으니, 옛 이름이 오늘에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 옛골 : 예곡(禮谷) : 노상동(路上洞) : 위골 : 주막거리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자연마을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서쪽 청계산 아래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이다. 지금의 상적동(上笛洞)이라는 이름이 이곳 노상동과 적취리(笛吹里)에서 한 글자씩 취한 이름인데, 옛골은 바로 노상동의 토박이 이름이다.

옛골 = 예곡(禮谷)으로 쓰고 있으나 본래 한양 대로의 길 위쪽(서쪽)마을이라는 뜻에서 위골(上洞)의 뜻으로 부른 이름이라고 한다. 그것은 길 아래 쪽을 노하동(路下洞)이라 불렀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이 노상동에서는 그전에 주막이 있었던 곳을 따로 '주막거리'라 불렀다고 한다.

◎ 옥경동(玉璟洞)

성남시 수정구 운중동의 청계산 국사봉 동쪽 골짜기이다. 천주교 성지가 있는 그 일대로서 대원군 때에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 살았던 곳으로 그 터가 남아있다. 이 일대의 청계산 경치가 아름다워서 옥경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옥녀봉(玉女]峰)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과천시 주암동 경계의 높이 375m인 청계산 주능선의 맨 북쪽 봉우리이다. 이곳 지형이 풍수지리상 옥녀가 화장을 하는 옥녀단장형(玉女丹粧形)으로서 남성적인 관악산에 대하여 여성적인 기운으로 대응하는 지명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옛날 하늘의 선녀(옥녀)가 이 봉우리 아래 있는 못에 내려와 목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 옷물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협읍재에서 군용지로 내려오는 곳에 있는 샘이다. 이곳에 옷나무가 있고, 바위 옆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물이 매우 좋다고 한다.

◎ 외동(外洞) : 바깥골 : 외둔토리(外遁土里) :

바깥둔토리 : 바깥두레이골

성남시 수정구 금포동은 금현동과 둔토리(두레이골)마을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청계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둔토리 마을의 바깥에 해당되므로 외동, 바깥골, 외둔토리 등으로 부르고 있다.

둔토리(遁土里)는 글자 그대로 숨어 지내는 땅, 선비가 물러나 농사짓는 땅을 뜻하는 이름으로 보이며, '둔퇴리(遁退里)'로 기록된 곳도 보이는데 역시, 선비가 물러나서 한운야학(閑雲野鶴)을 벗삼는 곳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의골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옛골 남쪽 받으로 고려 때 이곳에 행정관청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그전에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다고도 하며, 고려 말 목씨가 이 일대를 다스리던 처소로 보기도 한다. 의골 = 옛골 = 윗골 = 노상동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이수봉(二壽峰)

성남시 수정구 상석동과 금포동 경계의 높이 545m인 청계산 망경대 남쪽 봉우리이다. 청계산 줄기를 북쪽에서부터 열거하면, 맨 위(북)쪽이 옥니봉, 그 다음이 매봉, 다음이 최고봉인 망경대, 그 남쪽으로 석기봉, 이수봉, 국사봉의 순서가 된다. (사진 5 참조)



〈사진 5〉 이수봉

‘이수봉’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그 출처나 내력이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특정 집안의 문집이나 가문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근래에 이르러 널리 불리게 된 것 같다.

그 까닭은 이 지역의 토박이 노인들(금포동 81세의 강희봉씨, 상석동 79세의 지창훈씨, 관교동 너더리 마을에 20대에 살고 있다는 나출재씨 등)도 ‘이수봉’이라는 이름의 내력이나 출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청계산을 둘러싸고 있는 성남시(그전 광주군 포함), 과천시, 의왕시, 서울 서초구 등의 향토자료에도 ‘청계산’의 기록에 ‘이수봉’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마왕굴샘, 혈음재 등 현지 토박이 주민들도 모르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이름들에 대하여는 그 출전이나 내력을 밝혀주는 제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측량법상 지명의 제정, 변경은 그 명칭에 대하여 시·군, 구지명위원회 → 시, 도지명위원회 →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것을 결정, 고시함으로써 그 지명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 장수바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옛굴의 남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 어느 장수가 이 바위를 던져서 생긴 것이라는 큰 발자국 등의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장수바위라고 한다.

◎ 절고개능선 : 절고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의왕시 창계동, 과천시 막계동의 분기점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을 말한다. 이곳에서 그 서남쪽으로 청계사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서쪽 고개를 절고개라 하고, 그 능선을 절고개 능선이라 부른다. (사진 6 참조)



〈사진 6〉 절고개 능선표지

◎ 정일당묘(靜一堂墓)와 사당

정일당 묘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75번지에, 정일당 사당은 금토동 661번지의 청계산쪽에 자리잡고 있다. 정일당(靜一堂) 강씨(姜氏 :1772년 - 1832)는 제천출신 강희맹의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1791년(정조 15) 20세 때 윤광연(尹光演)에게 출가하였다. 그녀는 집이 가난하여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 가면서도 항상 학문에 힘썼으며, 시문에 뛰어나 문명이 높았고, 경서에 두루 통하였을 뿐 아니라 해서문 잘 썼다.

'정일당'은 강씨의 당호(堂號)이며, 『정일당 유고』 1책의 시문집이 간행되었고, 그녀의 고절한 인격과 기풍을 기리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근태에 「강정일당상」을 제정하여 매년 뛰어난 여성을 가려 시상한 적이 있다.

◎ 천림산(天臨山) 봉수대(烽燧臺)터 : 봉오재 : 봉우재 : 봉화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 사이의 청계산 동쪽 능선 해발 약 170m의 나지막한 구릉에 있다. 이 봉수대 터의 아래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이 고개가 달래내고개이다.

천림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전체 5로(路)의 봉수노선 중 제 2로 직로(直路)의 내지(內地) 봉수로서 부산 동래 다대포진 웅봉에서 처음 일어난 봉수가 육로로 경상도, 충청도를 거쳐 경기지역의 망이성(안성) - 건지산(용인) - 석성산(용인)을 거쳐서 이곳에 도달하면 이곳에서는 서울 남산 봉수에 신호하는 마지막 봉수였다.

천림산은 천천선(穿川山), 천천현 등으로 나오는데 우리 옛 말 '둘내'의 훈화 표기로 본다. (두레이마을 참조)

한편 '천림(天臨)'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고증할 만한 자세한 내력이 없다. 굳이 풀어본다면, 「천일조림(天日照臨)」을 줄인 말로 볼 수 있는데, 그 뜻이 "속일 수 없는 명백한 일"을 뜻하므로 적의 침략을 알리는 봉수대의 이름으로 인용한 것 같다. 이 천림산

봉수대 터를 상적동 옛골 마을에서는 봉오재, 봉우재라 부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봉수대터를 봉우재, 봉오재라 부르는 곳은 1백여군데가 넘는다.

이 봉수대를 금현동에서는 '봉화터'라고도 부르는데,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이곳 봉수대를 발굴하였으며, 삼평봉보 4점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 천수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옛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샘이다. '천수샘'의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장수를 뜻하는 '천수(千壽)'이거나, 불가의 '천수(千手)' 일 것으로 보인다.

◎ 천주교(天主敎) 성지(聖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73번지 청계산 국사봉의 동쪽 능선(운중동의 사기막골 북쪽)에 그 터가 있고 성지부근에는 설 마태오 성당에서 세운 "서루도비교 불리외 성지 입구" 표지판과 성지 안내판(청계산 능선 등산로의 여러 곳)이 세워져 있다. (사진 7참조)



〈사진 7〉 천주교 유적지 안내표지

이 터는 성인 5-6명이 은거할 수 있는 동굴로서 출입구가 북향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프랑스인 서루도비코 불리와 신부(1840 - 1866)가 이곳 운중동 청계산에서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 숨어살았던 곳이며, 이 굴 남쪽의 운중동 사기막골은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사기그릇을 구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지금도 사기막골이라 부르고 있다.

서루도비코 불리와 신부는 1866년 2월 7일 병인박해 때 금토동 둔토리에서 체포되어 그해 3월 7일 노량진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으며, 교황바오로 2세가 1984. 5. 6일 성인으로 시성하였다.⁸⁾ 생각해 보면 '둔토리(遁土里)'라는 그 이름대로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가 이 땅에 포교하려 들어왔다가 이곳 둔토리에 숨어서(숨을 遁) 땅을 파고(土) 살았으니, 둔토리라는 이름과 맞아 떨어지며, 땅과 역사와 사람이 어울려 빚어낸 한편의 드라마 같다.

◎ 충혼비(忠魂碑)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과천시 막계동 경계에서 과천쪽에 있는 비와 탑이다. 칠계산 매봉 못 미처서 서쪽에 위치하는데, 1982. 6. 1일 14시 49분 군락전 중 비행기 추락으로 이곳에서 순직한 53인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비이다.

그대들의 흘린 뜨거운 피와 충혼의 열로
조국은 살아 크게 숨쉬나니
그대들의 영혼은 조국의 산하에서
영원히 살아 꽃피리라.
그대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또한 조국은 그대들을 사랑하노니
거룩한 영령들이여,
조국의 품속에 고이 잠드소서.
-1982년 6월 1일 오후 2시 49분

8) 토지박물관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2001) 209쪽

이것은 추락현장에 세워진 추모시이며, 「안되면 되게 하라」는 글이 새겨진 군인상도 서 있다. (사진 8-9 참조) 그러나 매봉 코스를 모르는 등산객은 많아도, 등산로를 벗어나 추락현장에 세워진 충혼비를 둘러보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사진 8〉 청계산 충혼비 안내표지



〈사진 9〉 충혼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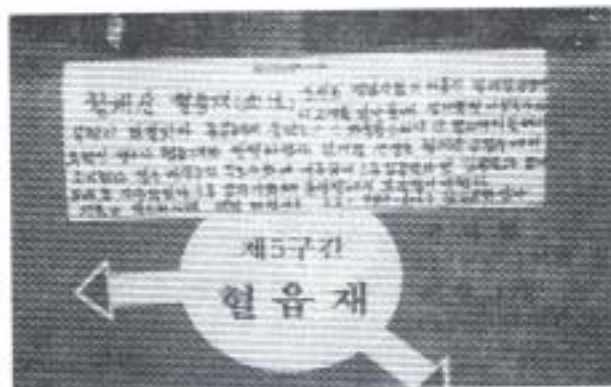
◎ 허릿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삼척동 사이 북서 - 동남을 연결하는 산길 소로이다. 옛날에는 지게지고 나무하러 다니던 길이었다고 하는데, 옛골에서 천림산 봉수대 터를 지나 금현동의 군부대 쪽으로 뚫혀던 산길이다. 산 허리를 가로질러 지나가므로 허릿길이라고 한다.

◎ 혈음재(血泣-)

성남시 수정구 삼척동과 과천시 막계동 사이의 청계산 능선에 있는 고개이다. 청계산 배봉과 망경대 사이의 안부(鞍部)가 되는데, 이곳을 삼척동 옛골 사람들은 사대골이라 부르고 있다. 아마도 그전에 산사대가 난 적이 있는 것 같다.

이곳에는 혈음재 안내판이 세워져 있으며, '창길문화담사회'에서 새운 안내판이 있다. (사진 10참조)



〈사진 10〉 혈음재 안내판

청계산 혈음재(血泣-)는 조선조 영남 사림의 거유 정여창 선생이 이 고개를 넘나들며 설리학적 이상극가의 실험이 좌절되자 동분해서 읊었으므로 그 피울음소리가 산 멀리까지 들려서

후학인 장구가 '혈읍제'라 명명. 장어창 선생은 청계산
금정수에서 은거하다 연산군의 무오사화 때 연루되어
스승 김종직, 벗 김경필과 함께 유배후 사사. 감자사화 때
중성땅에서 부관참시. -창길문화답사-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길문화답사회에 전화를 하여 보았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혈읍제라는 이름의 명명배경이나 출처가 구체적이므로 지명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며 창길문화답사회 등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 활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금현동 불화터 식당 뒤 삼거리 일대이다. 이곳은 그전에 맞은 편 산 등성이에 과녁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활 쏘기 연습을 하였던 곳이라고 한다.⁹⁾

IV. 結 言

성남시 관내의 지명조사에 있어서는 이번 청계산 지역에 관한 지명조사가 처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남시 관내에는 기존의 성남 구 시가지를 비롯하여 지명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의 지명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답변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이번 성남시 관내 청계산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점에 대하여 결론짓고자 한다.

첫째는 청계산 일대의 여러 지명에 관하여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수봉, 석기봉, 마왕굴샘 등

9) 강희봉씨 : 수정구 금토동 67번지 (81세, 709-3420)

그 출처가 불분명한 지명에 대한 유래나 내력, 또는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지명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는 성남시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의 과천시, 의왕시, 서울 서초구 등 청계산을 둘러싼 그 주변지역의 청계산 관련 자료를 모아서 「청계산지」와 같은 자료의 모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자료는 시, 군, 구 별로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시, 군 내에서도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자료의 이용과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계산 지명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꾸준히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짐 한다.

『삼학사전』과 향청의리의 유학적 평가

지 교 현*

<목차>

- I. 『삼학사전』의 배경과 구성
- II. 『삼학사전』의 향청의리
 - 1. 홍익한의 향청의리
 - 2. 윤집의 향청의리
 - 3. 오달재의 향청의리
- III. 삼학사와 『인조실록』
 - 1. 홍익한과 『인조실록』
 - 2. 윤집과 『인조실록』
 - 3. 오달재와 『인조실록』
- IV. 작자 송시열의 향청의리와 최명길의 변명
 - 1. 작자 송시열의 향청의리
 - 2. 최명길의 변명
- V. 향청의리의 유학적 평가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동양철학

I. 『삼학사전』의 배경과 구성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송시열이 지은 『삼학사전』은 1636년에 일어난 이른 바 병자호란을 겪었기 때문에 창작된 하나의 문학작품이다. 병자호란은 청태종이 무려 12만이나 되는 대군을 직접 이끌고 임진업이 지키는 백마산성을 피하여 한양으로 육박함으로써 인조대왕이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가 항복하고 만치욕적인 국난이었다. 이때부터 조선은 청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행하고, 명과의 관계를 끊으며 명의 연호를 버리고, 조선왕의 장자와 차자 및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내고, 청이 명을 공격할 때 원군을 파견할 것 등 여러 가지 굴욕적인 의무가 뒤따랐다.

『삼학사전』의 저자 송시열은 김장생(金長生, 沙溪, 1548-1631)과 김집(金集, 愼獨齋, 1574-1656)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1633년에 생원시에 응시하여 최명길(崔鳴吉, 暉川, 1586-1647)과 좌주문생의 관계가 되었고 1935년에는 왕세자 봉림대군의 사부(師傅)가 되어 성학(聖學)을 힘써 가르치다가 1636년의 병자호란을 당하게 되어 1637년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충북 황간 냉천)으로 돌아 가 노모를 봉양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1650년 효종(봉림대군)이 즉위하고 다시 조정에 나가게 되었다. 그가 『삼학사전』을 저작한 것은 1671년(65세)의 일이었으니 병자호란을 당하고 무려 35년이 지난 뒤였다.

『삼학사전』은 병자호란을 당하여 조정의 공문이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양분하여 대답하였던 사실에 입각하여 입전한 집전(集傳)이다. 집전이라는 것은 사상이나 행동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인물들을 하나의 주제 아래 묶어 서술 또는 묘사하고 나서 뒤에 총평을 붙이는 형식의 작품이다. 송시열은 『삼학사전』이라는 명칭을 자신이 명명하였고, 황진(黃進)이 제공한 홍익한의 유적과 남구만(南九萬)이 제공한 오달제의 유적, 『승정원일기』의 내용, 이기남의 서찰, 세 문중의 장문(狀文)등을 참조하여 1671년에 입전하

고 그후 1683년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추서를 적어 넣었다.¹⁾

『삼학사전』은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의 전기(傳)를 차례로 압전하고 삼학사에 대한 역사적 기술에서 벗어나 사건의 전개를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제시하여 대화와 서사의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으며, 사전의 전개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통적인 전(傳)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내용은 대명(對明)의리론(義理論, 존주사상)을 표방하며 성리학적 이념을 사수한 삼학사의 행동과 순절을 높이였다. 병자호란 당시 52세의 홍익한과 32세의 윤집과 29세의 오달제가 완전히 행동을 함께 한 것은 아니었으나 기본적으로 지향한 이념이 같았고, 또한 세 사람이 모두 생원(生員)이며 어려서부터 성리학적 교양을 담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인조반정 후에 벼슬길에 올라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병자호란 당시에는 사헌부 장령, 또는 홍문관 교리 수환 등, 인관직의 핵심에 있었기에 당시의 사론(士論)을 대변하였던 것이다. 작자는 이와같은 세 사람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삼학사'라 이름하고 작품을 썼던 것이다.²⁾

『삼학사전』은 지금 『송자대전』 권 213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15 민족문화추진회 1995 재판 pp.145-157)에 일반적으로 통행되고 있으나 청주대학교도서관소장본 (도서번호 539)도 있다. 전자에는 '혹운', '초본', '일본'이라는 말에 이어 주석을 달아 판본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서지학적 논의에 속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송시열의 학문적 연원은 유가의 각종 경전과 주자학인데 유가의 문학은 주선적(主善的)이고 도(道)를 밝히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유가의 문학은 문학자체의 예술성에만 그치지 않고 문이관도(文以

1) 『국역송자대전』 X1 (고전국역총서 218), 민족문화추진회 1983, pp. 194-195 참조.

2) 최준하, 「유학 송시열의 「전」 문학 연구」 『송자학논총』 창간호, 중앙대송자학연구재단 송자연구소 1994, pp. 546-547 참조.

貫道), 문이재도(文以載道), 도문일치(道文一致)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본문말(道本文末)의 문학관이기도 하다. 송시열이 태당집(澤堂集) 서문에서 “그 의리지정(義理之精)과 논의지정(論議之正)을 구하여 가히 사문(斯文)에 도움이 되고 세도(世道)를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유가의 문학관이다. 그가 『춘추』(春秋)나 『소아』(小雅)나 두보(杜甫)의 시를 높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³⁾

II. 『삼학사전』의 향청의리

1. 홍익한의 향청의리

송시열은 『삼학사전』의 첫머리에 「장령 홍익한」이라는 표제를 달고 홍익한의 전기를 제일 먼저 써나갔다. “홍익한은 남양인이요 자는 백승(伯升)인데 어려서부터 총명수발하고 효우충신하여 역사를 읽을 때마다 절의(節義)로 죽은 것을 보면 반드시 한색이 달라지고 마음으로 경모하곤 하였다”고 서두를 장식하였다.

홍익한은 1615년(광해군 7)에 생원이 되고 1624년(인조 2)에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635년에 장령이 되었다. 1636년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선을 속국으로하는 모욕적인 관계를 요구하자 계호(帝號)를 참칭한 죄를 문책하고 사신을 죽이자고 주장하였다. 그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최명길 등의 화의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이 난으로 그의 두 아들과 사위가 모두 적의 칼에 죽었고 아내와 며느리는 적에게 붙들렸으나 몸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하여 자결하였으며, 늙은 어머니와 딸 하나만이 살아 남았다. 이듬해 화의가 성립되자 조정의 권유로 율집 오달제와 함께 청나라로 잡혀갔으며, 그들에게 조금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양에서

3) 같은 책, pp.543-544 참조.

죽으므로써 이른 바 '병자 삼학사'의 한 사람이 되었다. 광주의 현절사(남한산성내 소재), 강화의 충렬사, 평택의 포의사, 홍산의 창렬서원, 부안의 도동서원, 양천의 장암서원, 고령의 운천서원, 평양의 서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이제 홍익한의 의리정신이 『삼학사전』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고령현감 시절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정묘년(인조 5, 1627)에 강홍립이 노(虜, 청나라)의 선도가 되어 우리 국경을 침범하자 공이 헌병을 거느리고 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달려갔으나, 조정이 벌써 노와 강화하여 노는 철수하였고 가홍립은 우리 조정에 유치되었다. 공은 이때 정언이 되어 강홍립의 죄를 엄히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병자년(인조 14, 1636)분, 장령에 계수 되었는데, 이 때 노가 사신을 보내와서 참호(僧號)의 일을 논의하자 공이 소를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한(金汗, 청태조 누루하치)이 황제라고 자칭한 일이 있었습니다. ... 신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부터 대명천자가 있다고만 들었을 뿐입니다. ... 신은 참세의 설을 듣고부터 담이 찢어 질듯하고 기가 켜진 듯하여 차라리 노중련(魯仲連)처럼 죽어서 차마 그 말이 내 귀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디부터 예의의 나라로 천하에 알려져서 천하가 소중화라 일컬었고, 열성들이 대대로 번직(蕃職)을 닦아 사대하는 일편단심이 절절스럽고 근심하였습니다. ... 신은 청진대 빨리 그들 사신을 잡아 맹약을 위배하고 참호한 죄를 책망하여 죽여서 예의의 거대함과 인국의 도리를 밝게 보여 준 뒤에 그의 머리를 함봉하고 그들의 서자(書字)까지 함께 봉하여 황조(皇朝, 명나라)에 주문하면 의기가 더욱 신장될 것입니다. ... 신이 아무리 잔악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 장벽을 타고 넘어서 오랑캐의 칼날에 몸을 마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공은 적화신이라는 이유로 평양부 서윤(庶尹)이 되어 평양의 보산성에 독달하여 적문을 내어 군병을 초집하였다. 그러나 공은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적이 적화신을 요구하자 최명길(崔鳴吉)이 묘당과 의논하여 용집 오단제와 함께 보내게 되었고 평양의 두리도(豆里島)에서 체포되어 적의 진영으로 박송당하게 되었다. 공은 심양에서 한의 심문을 받게되자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다만 대의뿐이다. 생애와 존망은 논할 필요가 없다. 듣건대 너희 나라는 형살할 때에 반드시 마더마더 저머시 죽인다고 하던데 왜 빨리 그 형벌을 시행하지 않느냐”고 하고 붓을 들어 다음과 같이 썼다.

“... 대저 사해의 안이 모두 형제가 될 수는 있으나 천하에 두 아비를 가진 자식은 없다. 조선은 본디 예의를 숭상하였고 간신(諛臣)은 오직 직절을 불도로 삼기 때문에 지난 해 봄에 마침 언책의 직임을 맡고나서, 너의 나라가 장차 명약을 여기고 칭제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약, 명약을 어킨다면 이는 형제의 의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요 만일 칭제를 한다면 이는 천자가 물이 되는 것이다. 한 집안에 어찌 형제의 의를 어그러뜨릴 수 있으며 천지 사이에 어찌 두 천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더구나 너의 나라는 조선에 대해 먼저 배신하였고 대명(大明)은 조선에 대해 옛날부터 자소(字小, 사랑하여 돌보아 줌)해 줄 은혜가 있어 더욱 깊이 맺어졌는데 깊이 맺어진 은혜는 잊어버리고 먼저 배신한 공약(空約)을 지킨다면 이치에 어긋나고 사리에 매우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의논을 으뜸으로 건의하여 예의를 지키려 한 것은 바로 신하의 직책이다. ... 다만, 신자의 분위는 충효를 극진히 할 뿐인데 위로 군친이 있지만 모두 부호하여 안전하게 해드리지 못하여 황제자와 대군이 모두 포로가 되어 있고 노모의 존됨마저도 모르는 형편이다. 진실로 한부로 진술한 소 한 장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나라가 이처럼 화패를 당하였으니 충효의 도가 건의 없어지고 말았다. 스스로 나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몸이니 비록, 만 번을 주륙을 당할지라도 단게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넓은 하늘을 날아 고국으로 돌아가 노닐다면 이보다 상쾌한 일이 또 있겠느냐. 다시 한 말이 없으니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고, 한이 다시 어찌하여 황제가 될 수 있단 말이나고 묻자 “너는 바로 천조(天朝)의 반적인데 어찌 황제가 될 수 있단 말이나.”고 하였다. 공의 항로서는 장초(張超)가 전해 온 것인데 공의 하인이 구류되기 전에는 시종 공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다가 돌아와서 말하였고 또한 공의 일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 공이 막 죽었을 때 소현세자가 평을 내려 척택(尺宅)에 초혼하여 본국으로 보내었다. 공은 두 아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양자 응원(應元)이 공의 옷과 신을 평택현 서쪽 경정리(鯨井里)의 선영에 매장하고 부인을 함장하였다. ... 공의 문장은 청전하고 경민하며 기적이 기일하여 그 한 마디 한 귀절이 모두 충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 4)

4) 『송자대전』 제213권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15, 송자대전 VIII 경인문화사 1995 pp.145-149) 삼학사전 참조.

이를 요약해 보면 청나라의 요구는 형제국의 의리에 어긋난다는 것, 천하에 두 천자는 없다는 것, 따라서 조선의 열성은 명나라의 반적을 수행해 왔다는 것, 조선은 명나라의 은혜를 입어 왔다는 것, 청나라는 명나라의 반적이라는 것, 이러한 의리를 밝히는 것은 신하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명나라 정통성의 절대성과 조선의 의리라고 할 수 있다.

2. 윤집의 함청의리

윤집은 정묘년(인조 5, 1627)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신미년(인조 9, 163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병자년 겨울에는 교리가 되었다. 이 때 화의가 다시 행해졌는데 최명길이가 그 일을 주관하면서 정인(正人)들이 그 사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리하여 모의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을 주단할 때에는 승지와 사관을 물리치기를 청하였다. 곧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소를 올렸다.

“요즘 사복하고 해괴망측한 말이 있어 위로는 천총(天聰)을 가리우고 아래로는 인망을 끊어버리니 천지가 집잡해지고 의리가 단절되어 나라가 나라됨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저 화의가 국가를 망치고 종사를 단절시킨 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나 이제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천조는 우리나라에 대해 바로 부모이고 노적(虜賊)은 우리나라에 대해 바로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고 부모는 돌아본 채도 하지 않고 태연하여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임진왜란 때의 일로 말하면 아무리 미세한 일까지도 모두 황제의 힘이었으니 우리나라로서는 잠시도 그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 차라리 나라와 함께 쓰러질지언정 의리를 구차하게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 … 지난 날에 성명에서 현연히 분발하시어 의를 들어 그들을 처절하여 중외에 포고하고 천조에 상주하시니 우리 동토 수 천리가 거의 오랑캐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 요즈음 … 사의가 일어나니 민심의 분개함을 다시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승

지와 시신을 물리쳐야 한다는 말은 너무 심합니다. 나라 일을 피하는 말은 귀엣말이 아니고 군신간에는 밀어를 할 의리가 있습니다. … 오달제의 소는 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인데 엄한 꾸지람을 받았으니 뇌정 같은 전하의 노여움에 켜이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 때문에 비록 일어났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청나라로 글을 보내는 것도 불가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조정을 조정으로 보지 않고 대각을 대각으로 보지 않은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 아아, 국가에서 대간을 설치하였으나 또한 어디에 쓰였습니까.⁵⁾

그의 형 윤계가 이 소를 보고 산삭할 것을 지적하자 “나라가 곧 망해가는 지경인데 말이 어찌 겸손해 질 수 있겠습니까. 직분이 있는 곳에 몸과 마음을 바칠 뿐입니다.” 하였고, 화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군중에 효시하여 증지를 단합시켜야 하며, 최명길의 묘당에 있으면 반드시 사의(邪議)를 일으켜 나라를 망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서 남한산성의 포위가 급해지고 화의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임금을 독대하여 화의를 주장한 자들을 종물로 다스리기를 청하고, 또 임금을 잇고 나라를 저버린 채 절단성 없이 태세에 따른 삼사의 죄를 말하였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공을 결눈질하면서 공을 경박하고 명에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적하였다.⁶⁾

윤집의 주장은,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라는 것, 청나라는 부모의 원수라는 것, 부모의 원수를 형제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 의리를 구차히 보전할 수는 없다는 것, 청나라의 요구를 물리치므로써 조선이 오랑캐 되기를 면한다는 것이다.

3. 오달제의 함청의리

5) 『국역 송자대전』 XI (고전국역총서 218), 민족문화추진회, 1983, pp.174-176 참조.

6) 『국역 송자대전』 XI (고전국역총서 218), 민족문화추진회 1983, pp. 174-179 참조.

오달제는 19세에 정묘년의 사마시에 합격하고 26세에 문과에 장원하여 여러 가지 벼슬을 거쳐 병자년 5월에는 부교리가 되었다. 이 때에 금로(金虜)가 제호를 참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척책을 하고서 다시 동사하려 하였기 때문에 오달제가 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각이란 공론이 있는 곳입니다. 공론이 한 번 나오면 비록 임금의 지존으로도 위협하지 못하며 대신의 중한 위치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 명길은 상의의 소재만 믿고 국가의 사색은 생각지도 않은 채 ... 위로는 천청을 욕란시키고 아래로는 공의를 위협으로 제재하였으며 심지어는 비록 태론이 나왔더라도 한 쪽으로는 사신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으니 예로부터 태론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직행하는 슬책으로 그 군상을 인도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윽고 옥담으로부터 민척을 달하고 군의가 다투어 변론하기에 이르러서는 의당 위촉하여 두렵고 부끄러운 태도를 가지고 물의가 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만하게 차자를 올려 오직 화의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하였으니 그 방자하여 꺼림이 없는 죄는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⁷⁾

이 때에 청나라와는 불화의 단서가 이미 열려 조정에서 인심을 위로할 수 없게 되자 공이 다시 소를 올려 시무 8조를 논했는데 그 요점은 성화를 권면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 노가 매우 급히 상에게 출성할 것을 청하자 중의가 또 따르려 하므로 윤집이 상의 앞에 나아가 머리를 부수어 간쟁하려 하니 오달제가 이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환난을 잘 막지 못하여 이제 아주 위태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을 주관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만 상궁을 보전할 수 있다' 하니 비록 그 옳지 못한 줄은 알지만 다시 어찌 저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마땅히 자정하여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 뿐이요."라고 하였다. 화약이 체결되자 척화신들을 군진에 압송하라는 노의 요청에 따라 오달제는 윤집과

7) 『국역 송자대전』 XI (고전국역총서 218), 민족문화추진회 1983, pp.180-181 참조.

더불어 김상헌과 정온의 뒤를 이어 비변사에 자수하였다. 이 때 오달승(오달제의 형)이 “노가 찾는 사람은 지난 봄에 으뜸으로 칙화를 논의한 사람인데 너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만류하였으나 공은 “... 임금의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어찌 구차히 살기를 피하겠습니까.”하여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정축년 정월 28일 행궁에 배사하자 왕이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이자 오공은 윤공과 함께 “주상의 굴욕이 이 지경에 이르매 신들은 항상 죽지 못한 것을 한하였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하였다. 이날 날이 저물어 출성하지 못하게 되고 달승이 아우를 붙들고 울자 “남아가 한 번 죽는데 꼭 죽어야 할 곳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형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 조그만 폐를 만들어 차면서 노진에 이르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시체를 수습할 때에 신표를 삼으라고 하였다.

윤집과 오달제가 적진에 이르자 용골타는 “왜 나와서 싸우지 않고 이토록 궁박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두 사람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대명을 섬겨 온지 벌써 3백년이나 되었으므로 온 나라의 신민이 모두 대명이 있는 줄만 알 뿐이다. 너희 나라가 이미 대호를 참칭하였으니 의리상 끊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봄에 이미 의리를 들어 너희 나라를 척절한 것인데 얼마 안되어 다시 신사를 통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쟁론한 것은 오직 대의일 뿐이요 승패와 존망은 꼭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때 용골타는 두 사람에게 다른 칙화문자들을 고하면 살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고 죽기를 각오하였다. 두 사람은 처자를 거느리고 청나라에 와서 살라는 것도 거절하고 “물을 굽히는 치욕이 도리어 죽음보다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만일 저들의 말을 따른다면 끝내는 오랑캐가 되고 만다.”고 하였다.⁸⁾

8) 『국역 송자대전』 XI (고전국역총서 218), 민족문화추진회 1983, pp. 182-189 참조.

오달제의 주장도 홍익한이나 윤집의 주장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오달제는 조선이 3백년이나 명나라를 섬겨 왔다는 것, 청나라가 황제를 참칭하였으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대의를 밝힐 뿐 승패나 존망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몸을 굽히는 것은 치욕이라는 것이다.

Ⅲ. 삼학사와 『인조실록』

1. 홍익한과 『인조실록』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삼학사에 관련된 기록은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등에 산재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함청의리사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가리어 인물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인조 15년 3월 5일, 「홍익한의 줄기」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청나라 사람이 홍익한을 죽였다. 그는 일찍이 장령이 되어 노사(盧使)를 베이 태의를 밝히자고 심소한 바 있다. 오달제와 윤집이 잡혀 가게 되자 조정에서는 평안도사에게 홍익한(평양서윤)을 함거에 실어 함께 노진(盧陣)에 보내게 하였는데 심양에 들어가 바침내 해를 담하였다. 그는 죽을 때 지평을 구하여 그 뜻을 말하고 노인(擲人)을 꾸짖었는데 다음과 같다. “무릇 사해의 한이 모두 형제는 될 수 있으나 천하에 아버지가 들 있는 자식은 없다. 조선은 본디 예의(禮義)를 숭상하고 간경하는 신하는 오직 직절(直截)로 기풍을 삼는다. 지난 해 봄에 언책(言責)의 임무를 맡고 나서 생각해보니 금(金)나라가 황제를 참칭하는 것은 조선과의 맹약을 어긴 것이며 그것은 채역한 형제이다. 어찌 한 집 안에 채역한 형제가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천지 간에 두 천자가 있을 수 있으랴. 금나라는 조선과 새로운 교린의 조약이 있는데 금나라가 먼저 배반하였고 명나라는 조선에 예부터 줄 보아 준 은혜가 있다. 맺어진 큰 은혜를 망각하고 먼저 배반한 헛된 조약을 지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의리에도 부당하다. 그러므로 먼저 이

논의를 주장하여 예의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이는 신하의 직분일 뿐이다. 신하의 문이는 종과 효를 다할 뿐인데 위로는 임금과 아버지가 있으나 모두 안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 쓸 때 없는 한 길의 상소로 가정과 나라에 재앙을 초래하였으니 충효의 도리는 비로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다. 비록 만 번을 도륙하더라도 달게 받겠다. 속히 죽여주기를 바랄 뿐이다.⁹⁾

홍익한은 먼저 청(후금)나라에서 온 사신을 죽이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청나라의 요청이 부당함을 밝히자고 주장하였고, 척화를 주장한 연유로 심양에 끌려가서 척화의 뜻을 당당히 밝히면서 이미 임금과 아버지에게 충도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로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주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나라의 황제 밖에는 천자를 인정할 수 없고 청나라와 조선은 다만 형제의 관계만이 성립될 뿐, 절대로 황제와 신하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명나라가 옛부터 조선을 돌보아준 은혜라는 것은 특히 임진왜란 때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구를 무찌르는 데 도와준 것을 말한다. 그는 명분을 밝힐 뿐, 살기를 도모하지 아니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인조 18년 9월, 홍익한의 늙은 어머니가 시집가지 않은 손녀를 데리고 평택에 살고 있었는데 윤집 오달재 정뇌경 등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과 똑 같이 쌀 12두와 콩 2두의 능료를 지급하게 하였으며, 효종 1년 6월에는 홍익한의 노모가 평택에서 병사하자 상수(喪需)를 넉넉히 주도록 하였다.¹⁰⁾

2. 윤집과 『인조실록』

인조 14년 11월 8일 부교리 윤집이 최명길의 죄를 논한 소를 윤

9) 『인조실록』 권34, 15년 정축 3월, 갑진조 참조

10) 『인조실록』 권41, 18년 정진 9월, 갑오조 및 『효종실록』 권4, 원년 경인 6월, 신사조 참조.

렸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화외가 나라를 망친 것은 예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虜賊)은 부모의 원수이다.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다. 임진년의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다. ... 지난 날 임금이 크게 분발하여 화의를 물리치고 명나라에 알리니 모두 크게 기뻐하였는데 이번에 부정한 의논이 나왔다. 국경을 도모하는 것은 겉속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신간에는 밀어(密語)하는 의리가 없다. 옛날 화의를 주장하여 필주(筆誅)를 받은 진희(秦檜)로서도 감히 하지 못한 것을 죄명길(罪名吉)이 하였으니 진하의 죄인이요 진희의 죄인이다. 홍처후의 제사와 오달제의 상소는 공문에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사정(私情)을 따라 모함하였다고 하고 ... (임금은) 만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삼사의 직책을 가진 자가 모두 입을 다물었고 심지어 대사간 이빈구(李敏求) 같은 이는 공의는 생각지 아니하고 위모는 성상의 뜻에 영합하고 아래로는 명길에게 아첨하고 있다. 열기 전에는 얻으려고 걱정하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 걱정하는 그들의 작태를 살펴야 한다.

죄명길의 차자를 보니 ... 은연중에 대각(臺閣)을 험박하고 공의를 저지하려는 흉계가 들어 있다. 또 생민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 사직이 헐식(血食)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성심을 동요케 하였다. 밖으로 도적의 감성(戡)한 세력을 업고 안으로 자기 임금을 겁주었다. ... 장차 임금으로 하여금 위에서 독단하여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대론(臺論)을 생각지 않으며 부정한 의논만을 따르고 아첨하는 신하만을 의지하여 나라를 잃게 할 것이니 이것은 명길의 계도한 것이다. 진하의 이목이 되고 진하의 유악(維轍)에 있는 자 가운데 임금의 뜻을 거슬러가며 직간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신하들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것이다. 임금은 직간하는 자가 있으면 진노하여 물리치고 아첨하는 자는 총애하여 발탁한다. 종묘 사직을 명길의 말 한 마디에 망하게 할 수는 없다.¹¹⁾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명나라는 우리의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의 원수와는 절대로 화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명길(罪名吉)이 화의를 저지른 것은 진희보다도 더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11) 『인조실록』 권33, 14년 병자 11월, 무신조 참조

것이다. 진희(1090-1155)라는 인물은 중국 남송의 고종 때 재상이 되어 당시 금(金)나라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화의를 주장하고 악비(岳飛, 1103-1141)¹²⁾를 비롯한 많은 주전론자들을 모살하고 오랜 동안 권력을 누렸으며 성품이 음험하고 잔인하였다고 전하는 터인데 최명길은 그보다도 더 악한 인물이라는 것이다.¹³⁾ 그리하여 최명길과 이빈구 같은 무리들은 공자가 말한 이른 바 '더러운 사나이'(鄙夫)됨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더러운 사나이! 그와 더불어 가히 임금을 섬길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얻으려고 근심하고 이미 얻고 나서는 잃을까를 근심하니 진실로 잃을까를 근심하면 무슨 짓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외친 바 있다.¹⁴⁾ 따라서 윤집은, 주화론을 내세우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신의 부귀영화를 담하여 나라와 백성을 저버리는 어떤 악한 행위라도 저지할 수 있는 자들(더러운 사나이들)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잘못하는 모든 것이 최명길의 계도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다.

윤집이 최명길의 죄를 논한 일은 인조 15년 1월 4일의 청대(請對)에서도 나타났다. 사간 이명웅(李命雄), 정언 김종일(金重鎰), 수관 이상형(李尙馨)등과 함께 청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일은 모두 최명길의 죄이다. 사신을 보내자고 청하여 해아릴

12) 진희와 악비에 대하여는 신채석, 『동양사개론』, 삼영사, 1999, 7책, p. 416-417 참조. 지금 중국의 항주(杭州)에는 악비묘(岳飛廟)가 있는데 그 옆에는 악비의 무덤이 있고 무덤 앞에는 악비를 모살한 진희의 작은 석상이 무릎을 꿇고 있다. 관광객들은 진희의 석상에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고 돌을 던져 훼손하기 때문에 번번이 부서져서 400년 동안에 아홉 차례나 새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1997년 8월, 필자가 현지에서 보고 들었음.

13) 진희는 송나라의 간신으로 낙인되어 "陰險如崖岸...晚年殘忍尤甚 數興大獄..."이라고 기록되었다. 『宋史』卷 473, 列傳 230, 姦臣. 〈四部備要〉32, 北京, 中華書局影印 1989, p.3715 참조.

14) 『論語』陽貨篇, "鄙夫 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 既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

수 없는 치욕을 불러들였고 답사 보내기를 서두르면서 마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그가 지은 문서에 대하여는 이를 갈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삼사의 제신들은 거의가 용렬하여 꼬리와 머리를 감추고 자신의 몸만 보호할 계책을 품고 있으니 임금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최명길은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는 머리털을 뽑아 새어도 속죄하기 어렵다. 전부와 수비를 말하면 번번이 저지시켰고 적의 형세를 논할 때는 반드시 과장하였으니, 이것으로 죄를 삼더라도 스스로 변명하기 어렵다.¹⁵⁾

이를 다시 간추려 보면 최명길이 화친을 몹시 서둘렀다는 것, 그가 지은 문서에 대해서는 이를 갈지 않는다는 것, 적의 형세를 과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그가 지은 문서라는 것은 화친한다는 뜻을 전하는 국서(國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나 표현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면을 크게 손상하고 신하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케 하였을 것은 능히 짐작할 만하다.¹⁶⁾ 당시의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이고 여진족은, 당우삼대(唐虞三代)를 거쳐 한

15) 『인조실록』 권34, 15년 정축 정월, 갑진조 참조.

16) '최명길이 지은 문서에 대하여는 이를 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윤집이 말한 문서는 홍시봉 등이 오랑캐 진영에 가지고 간 국서로 추측되는 바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보인다. "조선국왕 이종(李祹)은 삼가 대청 관운인성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소방이 대국에 죄를 얻어 스스로 병화를 불러 외로운 성에 몸을 의탁한 채 위태로움이 조석에 닥쳤습니다. ... 지난해의 일은 소방이 참으로 그 죄를 변명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 지난날의 일에 대한 죄는 소방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정벌했다가 죄를 깨달으면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천심을 채득하여 만물을 포용하는 대국이 취하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묘년에 하늘을 두고 맹서한 언약을 생각하고 소방 생령의 목숨을 가없이 여겨 소방으로 하여금 계책을 바꾸어 스스로 새롭게 하도록 용납한다면 소방이 마음을 씻고 종사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 감히 심정을 진달하며 공손히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 당시 문서가 최명길의 손에서 많이 나왔는데 못할 말 없이 우리를 낮추고 아첨하였으므로 그것을 보고 통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인조실록』 권34, 15년 정축 정월, 계묘조 참조. 이밖에 최명길이 지은 국서는 동년 동월 신해(11일) 무오(18일) 계해(23일)조에 수록되어 있는바 국가의 비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漢) 당(唐) 송(宋) 명(明)으로 이어진 중화문명을 사대모화(事大慕華)의 노선에서 받아들이고 이른 바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하던 조선의 문화의식에서 볼 때 매우 뒤떨어진 야만족으로 보였던 것이다. 하나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맺으려면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그것이 조화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조선과 명나라는 군신관계나 부자관계와 같은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었고 명나라와 청나라는 전쟁을 거듭하는 적대관계에 있었으니 말이다. 삼전도(三田渡)에서 조선국왕 인조가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행하기 전에 국서를 쓴 사실이 잊을 수 없는 치욕이고 국서의 내용이 이가 갈릴만한 것이었다고 할만하다.

이때 윤집과 함께 청대한 이명웅 등은 조선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터인지라(사신을 보낸 것은 하루 전이었음) 최명길의 죄를 다스리어 화친과 전쟁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뜻은 모두 화친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었다.

3. 오달제와 『인조실록』

홍문관의 수찬(修撰)으로 사초(史草)를 만드는 오달제가 최명길을 논박하는 소를 올렸는데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지난 번 최명길이 사신을 보내어 서신을 통하자는 의논을 발문하였고(화의를 거절한 후에). 또 삼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공문이 이미 제기되었는데도 … 임금의 의중만 믿고서 경연석상에서 감히 진달하여 위로는 성상의 귀를 현혹시키고 공의를 전제하였으며 심지어는 대론(臺論)이 제기되었더라도 한편으로 사신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옥당(玉堂, 홍문관)이 대변하여 책망하고 중론이 적분하여 밀어나기까지 하였으니 병길은 마땅히 황궁해 하고 위촉되어 물의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일 터인데 오히려 대면하게 차자를 올려 … 강화하는 일이 급길까 두려워하면서 의리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각의 의론에 대하여는 비록 대신의 지위에

있더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사직하여 불안한 뜻을 보이는 것인데 멸길은 홀로 공문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극도에 이르렀다. 방자하고 거리낌 없는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신이 여러 번 발문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으니 신을 파직하라.¹⁷⁾

최명길은 강화하는 일만 생각하고 의리는 생각하지 않으며 공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최명길을 옹호하여 젓비린 내 나는 어린 사람도 사직에 공이 있는 그를 모욕한다고 지적하고 오달제를 파직토록 하였다. 본디 오달제가 이 살소를 발문할 때 교리 김광혁과 수찬 이도가 함께 동조하였으나 모두 임금의 뜻이 명길에게 향한 것과 홍처후(洪處厚) 등이 견책 당한 것을 보고 나서 태도를 바꾸고 말았다. 오달제는 초지를 일관하는 기개를 보였다가 '젓 비린 내 나는 어린 사람'이 되어 파직만 당하고 만 것이다.¹⁸⁾

여기서 오달제가 지적한 "...의리가 어떠한 지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의리란 무슨 의리인가. 말한 것도 없이 대명의리임에 틀림 없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절대로 청나라와 화친할 수는 없다. 청나라와 화친하는 것은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신하가 임금을 버리는 것이요,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익한이나 윤집이나 그밖에 모든 척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보다도 더 중요한 의리라는 것이었다.

오달제는 윤집과 함께 인조 15년 4월 15일에 심양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9일엔 용골대가 두 사람을 앞에 놓고 황제의 말로 물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화친을 단절하자는 의논을 앞장서서 외침으로써 두 나라의 틈이 생기게 하였으니 마땅히 죽여야 하겠지만 인명이 지중하여 죽이지는 않고 살려 주고자하니 처자를 거느리고 청나라에 와서 살겠느냐는 것이었다.

17) 『인조실록』 권33, 14년 병자 10월, 10월작 임신조 참조.

18) 위와 같음.

이에 대하여 윤집은 난리로 처자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천천히 알아보고 처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달제는 “만일 살아서 돌아가면 임금과 노모를 다시 보려는 것이었는데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다면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니 속히 나를 죽여라.”라고 하였다. 용골대가 오달제의 말을 듣자 황제의 은혜를 모르고 항거하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자 재신 박황(朴潢)과 궁관(宮官) 이명웅(李命雄)이 오달제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였다. 그리고 박황이 오달제에게 항하여 서서(徐庶)의 일을 말하며, 고향의 노모에게 비록 이역에서나마 죽었다는 것보다는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달제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호인(胡人)이 즉시 묶어서 끌고 나가는데 달제는 시를 지어 노모와 형에게 부쳤다. 머리에 이르기를

「외로운 신하는 외리 바르니 부끄럽지 않고

성주의 깊은 은혜, 죽음 또한 가벼워라

이승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가는 거라오」

라고 하니 달제의 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달제가 죽자 시체를 수습하려고 청하였으나 호인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¹⁹⁾

오달제는 청나라의 작은 호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우호교린을 파괴하고 무력으로 침략하고 부당한 군신 관계를 강요하며 갖은 만행을 일삼는 오랑캐가 배짱려는 호의를 결코,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기보다도 심했던 것 같다. 효종 원년 11월, 오달제의 노모가 죽은 데 대한 흉전(恤典)이 내리고 현종 12년 5월에는 오달제의 처자가 여역으로 열흘 안에 잇달아 죽었기 때문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내렸다.²⁰⁾

19) 『인조실록』 권34, 15년 정축 4월, 무자조 참조.

20) 『효종실록』 권2, 즉위년 기축 11월, 계유조 및 『현종실록』 권19, 12년 신해5월, 갑자조 참조.

IV. 작자 송시열의 함청의리와 쇄명길의 변명

1. 작자 송시열의 함청의리

『삼학사전』의 작자 송시열은 어떤 시각에서 작품을 썼느냐는 질문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제II장에서 살펴 본 삼학사의 함청의리를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시열은 그보다도 더욱 명백하게 자신의 시각과 가치판단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확답을 던져주고 있다. 송시열은 '어떤이'의 말을 빌어 경진년에 조가(朝家)에서 계책을 써서 황조와 밀통하자 노인(虜人)이 이를 알아차리고 쇄명길을 잡아가자 "내 비록 삼학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생각하면 마을 절로 놀라네"라고 쓴 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쇄명길이 만일 이 때에 죽임을 당했다라면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었을 터인데 끝내 무사하였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피차간에 억양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춘추의 의리를 상고하자던 열국의 신하가 경사(京師)를 우러러 배신(陪臣)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당연하며 천경지의(天經地義)는 민이(民彝)의 큰 것이니 이를 어기면 금수라고 하였다. 또한 이태조가 나라를 창건하였을 때 고황제(명태조)가 조선이라 명명하여 동번(東藩)으로 삼자 본조에서는 제후의 법도로 정성껏 삼거왔으며, 임진왜란 때에 이르러 종사가 폐허 지경에 놓이자 신종황제가 종사를 보존시켰으니 동편에는 초목이나 곤충까지도 모두 황제의 덕이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정축년의 일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만절필동(萬折必東)의 정신은 일찍이 변함이 없었다. 효종 대왕은 성지가 더욱 뛰어나서 일월과 같았다. 삼학사는 죽음으로써 그 마음을 표명하였으니 천경지의와 민이가 이를 힘입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효고(孝考)의 숭고한 은전도 더 이상 유감이 없게 되었다. 어떤 이는 오늘날 『춘추』를 읽을 곳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삼학사가 있는 줄을 몰라서 한 말이라고 하였다.

송시열은 또한 좌의정 허적이 현종 앞에서 삼학사를 가리켜 '일을 좋아하여 명예를 낚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민정중(閔鼎重)이 삼학사가 청나라를 동척한 사실을 옹호하여 임금의 지지를 받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

송시열은 삼학사의 주장을 모두 지지하고 그들이야말로 목숨을 던져 춘추대의를 실천하였다고 예찬하고 그 정신을 크게 선양하였다. 또한 청나라를 '노'(虜)라고 칭하므로써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정신을 명백히 나타내었다.²¹⁾ 송시열의 함침의리는 복수설치론으로 구체화하였다.²²⁾

2. 쇄명길의 변명

병자호란 당시의 조정은 화친을 배척하는 주장이 공론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것을 특별히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주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의 관료들이었고 특히, 두드러지게 손꼽힌 사람들은 홍익한 윤집 오달재로 지목되었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척화신을 적진으로 묶어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자진하여 나서는 것이 좋겠고 홍익한은 평양에 있으니 청나라에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 쇄명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은 홍익한과 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연(燕)나라가 잘차 망하게 되자 대자 단(丹)의 목을 베어보냈으며, 송조에도 한탁주(韓侂胄)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상의 명령이 있으면 어찌 감히 혐의를 피하겠습니까.²³⁾

21) 『인조실록』 권34, 15년 정축 정월, 임술조 참조

22)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춘추의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8-56 참조.

23) 증보판 CD-ROM, 같은 자료, 인조 15년 1월 22일 「김류 이성구

최명길의 말 가운데 연나라의 태자와 송나라의 한탁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자 단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왕희(王喜)의 아들인데 진(秦)나라에 인질로 갔다가 도망쳐 돌아 왔다. 진나라가 육국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진병이 역수(易水)에 이르자 화가 미친 것으로 알고 형가(荊軻)로 하여금 독항(獨抗)의 지도와 번어기(樊於期)의 머리를 진나라에 바치면서 그 틈을 타서 진왕을 습격하여 죽이려 하였다. 진왕이 이를 알고 형가를 죽이고 연을 토벌하니 왕희는 요동으로 옮기고 단의 목을 베어 진에게 바치고 나라를 보존하려하였으나 3년 후에는 망하고 말았다.²⁴⁾ 한탁주는 송나라 안양 사람인데 효종이 죽고 영종(寧宗)이 즉위한 후에 자기의 공에 비하여 포상이 적음을 가지고 불만하여 조여우(趙汝愚)를 원망하고 그 무리를 비난하고 제거하는가 하면 자기를 비난한 주희와 쑹구년(彭龜年)등 많은 사람을 죄 주게 하고 이어서 이른 바 경원당안(慶元黨案)을 일으키게 하였다. 벼슬이 태사평장군국사(太師平章軍國事)에 이르렀다. 금나라와 자주 싸워 패배하자 화친을 청하였다. 그후 가정(嘉定, 영종조, 1208-1224)초에 그 목이 끊기어 금나라에 보내졌다.²⁵⁾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신하의 목을 바친 역사적 사건이 있으므로 삼학사를 적전으로 보내는 일은 능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화파의 변명은 병자호란이 진정된 인조 15년 5월 15일 최명길이 올린 차자에서도 역역히 드러난다.

최명길이 입대하여 신하를 묶어 보내는 일에 대해 아뢰다, (원전 34집 668면) 참조.

24) 『史記』 世家 卷34 燕召公世家 4 “23年. 太子丹質於秦 亡歸燕…燕見秦且滅六國 秦兵臨易水 禍且至燕 太子丹陰養壯士20人 使荊軻獻督亢地圖於秦 因襲刺秦王 …29年 秦攻拔我荊 燕王亡 徙居遼東 斬丹以獻秦”

25) 『宋史』 卷38 本紀 “11月 甲戌 詔 韓侂胄經營兵端 罷平章軍國事 …乙亥 禮部侍郎史彌遠等…誅韓侂胄于玉津園… 以誅韓侂胄詔天下”. 卷39 本紀39 “壬午 王柁還自河南 持金人牒 求韓侂胄. 丙戌 葉時等復請梟侂胄首于兩淮” 참조.

지난 겨울에 있었던 변은 천지개벽 이래 미증유의 병란으로 멸망의 화가 순식간에 임박했던 것인데 전하가 모욕을 참고 몸을 굽혀 종묘 사직을 보전하였습니다. 시대의 형세를 참작하고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이것과 바꿀 계책이 없었습니다. …천안을 살펴보니 늘 근심에 싸여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고금의 사변을 단판하지 못하여 전일에 출성하였던 일만을 가지고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해 용골대가 차사로 왔을 때 나이 깊은 대각의 신하가 지나치게 정당한 논박을 하였는데 이를 막지 못하여 하늘에 달는 화를 초래하였으니 이것은 여러 신하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전하도 그것이 옳은 계책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엄하게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²⁶⁾

남한산성의 싸움에서는 40여일 간 포위되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열고 굶주려 죽어가고 구원병은 잇달아 무너졌으며 양식은 열흘을 지탱할 수 없는데 강화도에서 패전보고가 도착하자 불측한 변고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가엾, 전하가 음흉성 없이 필부의 절개를 지켰다면 종묘 사직은 멸망했을 것이고 백성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전하의 마음을 열어 단면에 깨닫게 하여 묘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의 바람을 따르니 종묘 사직의 형식을 연장하게 되고 생령이 어육됨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지극한 어짐과 큰 용맹 때문입니다.

공자는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망친다'고 하였고, 『춘추공양전』에 이르기를 '권도를 실시하는 것은 죽거나 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권도를 행하는 때는 도리가 있으니 스스로를 범하여 권도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의 변동이고 무궁한 것은 의리입니다. 전하가 무사할 때는 현명한 자나 불초한 자나 다 같이 살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만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능히 변통하여 도와 더불어 함께 행한 다음

26) 인조는 이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히 여기어 대각의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인조는 광해군이 폐위된 이유 중의 하나가 후금과의 밀통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남한산성이 급박한 위기에 놓이기 전까지는 적화의 의지가 분명하였으므로 최명길의 주화에 동조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다. 인조의 적화에 대하여는 장삼현, 「남한산성과 의리사상에 대한 연구」 『성남문화연구』 제4호,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6 pp.130-133 참조.

에야 마침내 성인의 큰 권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무왕이 은나라를 정복하였을 때 미자계(微子啓)는 손을 뒤로 묶고 규벽(圭璧)을 들고 귀순하였습니다. 무왕은 포박을 풀어주고 송(宋)나라에 봉해 탕(湯)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공자는 '은나라에 삼인(三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제(齊)나라의 공자 규(糾)의 난에 관중(管仲)은 죽지 않고 포로가 되기를 청하였는데 자로(子路)와 자공(子貢)이 모두 이 일에 대하여 의심하니, 공자는 '관중은 한 차례 천하를 바도잡아 백성이 지금까지 그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어찌 평범한 남녀들이 절의를 지키다가 스스로 죽어 도당에 나뉠 줄어도 누구 하나 일지 못하는 경우와 같겠느냐?'²⁷⁾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의 일신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였다면 수치스럽고 천함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때에 따라 의리에 맞추고 몸을 굽혀 권도를 행하여, 혹 조종의 형식을 중히 여기기도 하고, 혹은 혜택이 사물에 미치게 할 마음이었으므로 공자가 모두 어질다고 한 것입니다. 전하가 종묘를 보전하고 생령을 보호한 공로는 옛날에 비하여 빛이 납니다. 만일, 공자가 지금 살아 있다면 두 사람에게 하여한 것처럼 전하에게 하여할 것입니다. 선비들 사이에는 '군주는 사직에 죽어야 한다'는 말로 오늘날의 일을 비꼬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예기』에서 나온 이 말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군주가 죽지 아니한 것을 허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일로 보면 편벽되고 고집스러운 무리가 있어 시의에 달하지 못하고 음흉성 없어 자기 전태만 고수합니다. 대체로 식견이 밝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믿으므로써 그것이 그릇되고 망녕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문왕(文王)은 능히 도를 좇아 덕을 기르고 언행을 삼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지혜로 방비하여 정당함을 잃지 않았으므로 포습에 묶였어도 모욕이 아니었고 도를 굽혀 죽음을 모면하였지만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역경』에 '명이(明夷)는 어려운 때임을 알고 바르고 곧게 하는 것이 이롭다. 안으로는 문명하면서 밖으로는 유순하여 환난을 견디어 낸 것이니 문왕이 그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전하의 명입니다. 천운은 돌고 돌아 흘러가면 되돌아 오기 마련이며 음(陰)이 극에 달하면 양(陽)이 최성하고 비(否)가 극에 달하면 태(泰)가 오는 것입니다.²⁸⁾

27) 『論語』憲問篇, “子曰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今受其賜...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28) 『인조실록』 권34, 15년 정축 5월, 임오조 참조.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병자호란이야말로 천지개벽 이래 밀떡이 없었던 병란이고 멸망의 화가 순식간에 임박했었다는 것, 전하가 모욕을 참고 몸을 굽혀 종묘 사직을 보전하였다는 것, 당시의 형세와 의리로 볼 때 다른 계책이 없었다는 것, 만일 전하가 궐부의 절개만을 고집하였다면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미자계와 관중은 모두 모욕을 참고 몸을 굽혔던 까닭으로 공자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 전하가 모욕을 참고 몸을 굽힌 것은 미자계나 관중의 그것과 똑 같다는 것, 그리고 『역경』 명이의 제사와 단전(象傳)을 인용하여²⁹⁾ 문왕이 유리(苒里)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곧 전하의 경우와 같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욕을 참고 몸을 굽힌 것이 곧 권도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경상(經常)이 무사할 때의 윤리라면 권도(權道)는 어려울 때의 윤리이다. 무사할 때의 윤리나 어려울 때의 윤리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그 외형적이고 말단적이고 사물에 적응하여 나타나는 모습이나 수단은 차이를 보인다. 권도가 보이는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권도는 곧 권변(權變)인 것이다. 따라서 권도는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경상이다. 권도는 경상의 근본을 벗어날 수가 없다. 만일 벗어나면 권도가 아니다. 궐부의 경상은 평상시의 윤리로 그치고 말기 때문에 비상시의 권도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군자(성인)의 경상은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응하여 무한한 권도로 창조된다. 최명길의 의리는 경상을 넘어서 권도에서 창조되는 2차원의 윤리라는 것이며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화천의 논리이다.

최명길의 권변에 대한 논리는 그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결코

29) 『易經』의 明夷는 그 제상이 곤상이하(坤上離下)로 명(明)이 지중(地中)으로 입(入)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문명을 나타내는 이괘(이) 안에 있고 유순을 나타내는 곤괘가 밖에 있는 것인데 옛날 문왕이 주(紂)의 혼암(昏闇)을 당하여 안으로는 문명지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유순으로 주를 섬김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 제사에서는 “어려울 때에 정(貞)함이 이롭다”고 하고, 단전(象傳)에서는 “... 內文明而外柔順 以蒙大難 文王以之”라고 하였다.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청나라의 심양에 감금 당하고 있으면서 첩화본자로 유명한 김상헌과 주고받은 시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정처관군동(靜處觀群動) 진성난만귀(眞成爛漫歸)
탕빙구시수(湯氷俱是水) 구갈막비의(裘葛莫非衣)
사혹수시별(事成隨時別) 심녕여도위(心寧與道違)
군능오사리(君能悟斯理) 어묵각천기(語默各天機)³⁰⁾

최명길은 끓는 물과 차거운 얼음이 비록 다르다고는 하지만 물이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고, 갓옷과 갈포가 비록 다르다고는 하지만 옷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다르게 갈라질 수 있지만 마음이야 어찌 도리에서 어긋날 수 있겠느냐고 읊었다. 다시 말하면, 주화가 비록 첩화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충군예민에는 어긋날 수 없다는 것이다. 첩화본이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주화본도 정당성을 유지한다는 논리이다. 주화본의 근본이 첩화본의 근본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V. 함청의리의 유학적 평가

의리는 인의도덕의 원리이고 이른 바 성인의 도이며 『삼학사전』에서 송시열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함청의리의 정당성이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춘추의리'라는 것도 인의도덕의 원리인 동시에 성인의 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 절대성을 강조하여 천경지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함청의리는 대명의리와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함

30) 柳承國著, 傅濟功譯, 『韓國儒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중화민국 78년 P. 142

청의리의 이면에는 대명의리가 따르고 대명의리의 이면에는 향청의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명나라는 수백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 외교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특히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에서 사직과 종묘를 지키게 한 은혜는 부모의 은혜처럼 크기 때문에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이고 부모의 나라에 반기를 들고 황제를 칭하는 청나라는 부모의 원수이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임진왜란에서 명나라가 조선을 건져 준 것은 이른 바 '재조반방'이며, 조선은 절대로 명나라에 대한 번방으로서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나라와는 그들의 강요에 못이겨 형제의 나라처럼 교린의 관계를 맺었던 것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것일 뿐이며,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의 정신으로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생전에 민정중(閔鼎重)이 북경에서 얻어 온 의종(毅宗)의 친필 '비례부동'(非禮不動)을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의 암벽에 새겨 놓고 암자(환장암)를 지었으며, 죽기에 이르러서는 권상하(權尙夏)에게 명하여 만동묘(萬東廟)를 짓고 의종과 신종(神宗)을 제사토록 하였는데 만동묘라는 이름도 만절필동의 정신에 연유한 것이다.

향청의리와 함께 나타난 대명의리는 만절필동의 정신이며 존화양이이며 이른 바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대는 수직적 외교관계요 교린은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사대주의는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비굴한 복종을 의미하고 사대주의를 신봉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사대주의자라고 하여 경멸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유가의 정치철학에서 좀더 신중히 고찰할 여지가 있다. 그것은 맹자와 제(齊)나라의 선왕(宣王)과의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선왕은 이웃나라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 무슨 원리원칙이 있는지 맹자에게 질문하였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웃나라가 없는 나라는 없고 그 이웃나라에는 자기 나라보다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같은 나라도 있는 까닭에 하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諸侯)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였던 것이다. 맹자는 “오직, 인자(仁者)라야 이대사소(以大事小)할 수 있으니 탕(湯)이 갈(葛)을 섬기고 문왕이 곤이(昆夷)를 섬겼습니다. 오직 지자(智者)라야 이소사대(以小事大)할 수 있으니 태왕(大王)이 혼족(獯鬻)을 섬기고 구천(句踐)이 오(吳)를 섬겼습니다. 이대사소자는 낙천자(樂天者)요 이소사대자는 외천자(畏天者)니 낙천자는 보천하(保天下)하고 외천자는 보기국(保其國)합니다.”라고 선왕에게 대답하였다.³¹⁾ 이것을 보면 이웃나라와 사귀는 도리에는 인자의 이대사소와 지자의 이소사대가 있으니 전자는 낙천이며 천하를 지킬 수 있고, 후자는 외천이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나라가 조선을 돕는 것은 곧, 조선을 섬기는 것이며 그것은 인자의 도리이고 낙천의 도리이고 천하를 지키는 도리이기도 하며,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지자의 도리이고 외천의 도리이고 나라를 지키는 도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가의 정치철학적 논리에 입각해 볼 때 삼학사가 주장하고 실천한 향청의리는 송시열의 『삼학사전』을 통하여 더욱 두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향청의리정신도 그 정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1) 『孟子』梁惠王 下 “齊宣王 問曰 交隣國有道乎 一.” 이하 참조.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 사마천, 『사기』 〈송사〉, 〈세가〉, 서울 규장각소장
- 송시열, 『삼학사전』 『송자대전』 권213, 서울 보경문화사 1985
- 송시열, 『삼학사전』 1671(신해), 청주대학교 도서관소장
- 송시열, 『송자대전』 〈연보〉, 서울 보경문화사 1985
- 박세당, 『이경석 신도비』 성남문화원 제4회 학술회의 논문집, 『향토인물 연구』 (백현 이경석과 금릉 남공철) 1999
- 최명길, 『지천집』 8책, 간년미상, 목판본, 규장각 소장
- 김문준, 「우암송시열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춘추의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최준하, 「우암송시열의 '전' 문학 연구」 『송자학논총』 창간호, 충남대송자학연구소, 1994
- 장삼현, 「남한산성과 의리사상에 대한 연구」 『성남문화연구』 4호 1996
- 박상규, 「삼전도비문의 원문 재구와 해석 및 색인」 『성남문화연구』 4호 1996
- 장철수, 「남한산성 현절사의 건립과정」 『성남문화연구』 5호 1999
- 지교현, 「병자호란과 지어해의 충절」 『청원문화』 4호 1995
- 지교현, 「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 『남한산성과 삼학사』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제2회 학술회의 논문집 1997

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YWCA 운동을 중심으로-

천 화 숙*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여성운동의 歷史와 YWCA운동의 성격
 1.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와 특수성
 2. YWCA운동의 성격
- III. 1920, 30년대 한국여성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YWCA 운동을 중심으로-
 1. 의식개혁운동
 2. 금주·공작폐지운동
 3. 문명퇴치운동
 4. 여성운동의 성격
- IV. 현재 성남지역의 여성운동과 YWCA운동
 1. 성남지역의 여성운동
 2. 성남지역의 YWCA운동과 그 성격
- V. 맺는 말

*경원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I. 들어가는 말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는 18세기 프랑스대혁명 전후 西歐에서 먼저 일어났다. 즉, 중세적 사회질서가 정치적으로는 근대국민 국가가 형성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문화적, 윤리적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달라져 갔다. 서구의 여성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변혁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운동은 국가, 사회적 여건이 서구와는 달랐기에 그 운동도 다르게 전개되었다. 국가적으로는 日帝의 침탈을 당하게 되었고 조선적 지배질서가 아직도 근대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¹⁾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서구형의 여성운동이 남자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남자의 독점과 횡포를 억제하고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신장하자는데 반해²⁾ 한국의 여성운동은 日帝타도와 한국의 독립을 최대의 과제로 삼으면서 女性만을 위한 운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한국의 여성운동 중 기독교 사회운동은 그 특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념상으로 기독교가 내포하고 있는 만인평등사상이 가부장적인 질서와 종적질서를 요구하는데 반하기 때문이다. 선각자적인 여성들은 조선적 질서를 거부하게 되었고 제사지내기를 거부한다든지³⁾ 자유연애를 몰소 실천한다든지, 서구풍 의복을 입는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1) 중국은 1842년 남경조약으로 영국에 반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했고 일본은 1954년 미국과 가나가와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며, 한국도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반강제적으로 日本과 맺게 되어 어쩔수 없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2) 丁堯燮, 『韓國女性運動史』, 一朝閣, 1971, p.6.

3) 제사는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기에 제사 거부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한국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여성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을 살펴 보고, 그 속에서 성남지역의 사회운동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한국여성운동의 歴史와 YWCA운동의 성격

1.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와 특수성

조선시대의 철저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 생활해온 여성들은 봉건적 질서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대두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여성관에 모순을 느끼게 되었다.⁴⁾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여성들은 그들이 놓여있는 사회관계속에서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선은 日帝로부터 독립함이 가장 선결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정에서 생겨난 애국운동으로 승화된 특징이 있으며,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은 점차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은 한국에서는 日帝時代에 가장 강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를 좀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운동이 조직적 단체를 中心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때 그 특성을 보면 시기적으로 1919년 3.1운동 전후까지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애국적인 여성단체가 나타났으며, 1920년 이후부터는 주로 기능별로 특성있는 여성단체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점차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諸단체의 조직이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20년대의 여성운동은 사회적으로 독립운동이고, 여성내부에서는 자체의 新文明에 대한 자각과 계몽운동으로 나타났다.⁵⁾

4) 정치, 경제, 사회적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공적(Formal Education) 교육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었다.

日帝下 韓國의 여성단체는, ①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애국단체, ②종교, 사회, 문화단체, ③직업교육 기타 단체, ④경제적인 단체, ⑤사회주의 단체, ⑥좌·우익 합작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丁堯燮 박사는 한국여성운동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 성격으로 단체가 만들어졌지만, 『조선독립』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수렴되며, 따라서 통일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기운이 일어나 결국, 근우회가 결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근우회의 창립과 활동은 여성운동의 발전된 형태이나 이념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⁵⁾

그러나 좌, 우의 이념대립을 넘어서서 통일된 모습으로 여성운동을 하게 되었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며, 남성들과 대등한 가운데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단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2. YWCA운동의 성격

YWCA운동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기에 기독교 수용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YWCA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독교는 한말에 수용된 이래 민족문제와 다양하게 착종되면서 부침을 거듭하였다. 초기 선교과정에서 반민족적 이념과 결합되면서 민족운동에 기여한 공로도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를 평가하는 잣대를, '기독교적 인간'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한국적인 인간'에 둘 것인가 하는데 따라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커다란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5) 丁堯燮, 『韓國女性運動史』 (-日帝下 民族運動을 中心으로-), 一朝閣, 1971, p.8. -日帝下 民族運動을 中心으로-

6) 千和淑, 『한국여성 기독교 사회운동사』 혜안, 2000, p.215.

한말 기독교는 대부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되었고, 그 선교정책과 지침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선교 초기인 한말의 기독교 교단의 태도는, 당시 미국의 對韓 정책의 기초였던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의 민족운동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1907년의 大復興運動과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대립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선교정책도 변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요컨대, 기독교 초기 수용과정에서 교단적 처지는 미국·영국 등 선교국가와 일본과의 제국주의적 외교관계와 함수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사상적으로 보자면, 기독교가 지닌 자유사상과 한국인의 독립논리가 인류애적 보편성이라는 기준에서 결합될 소지 또한 지니고 있었다.⁷⁾ 한말의 국권회복운동에서 기독교인의 참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이 같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기독교가 교단적 처지에서 민족문제와 결합되었던 실제적인 계기는 1911년 '105인 사건'과 함께 1915년 『私立學校規則』을 통해서였다. 일제는 1910년 한국강점 이전에는 미국과 일정한 타협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른바 神敎에 의한 皇道臣民 교육을 노골화하면서 반 기독교적인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컨대 『改定私立學校規則』에서는 성경과목을 정규시간에서 제외 시킬때만 중등학교로 인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규정으로 개신교 교단과 일제당국은 대립하게 되었고, 성경과목을 정규과목에 포함시킨 선교학교들은 폐교되거나 각종 학교로 전락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 정신을 지키려는 종교적 양심과 한국인의 민족의식은 항일의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교학교들이 그 가운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후 민족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은 바로 이상

7) 趙東杰, 『1910년대 民族敎育과 그 評價上의 問題』,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8) 千和淑, 『한국여성 기독교 사회운동사』, 혜안, 2000, pp 152~182.

과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은 여성운동상에서도 나타났다. 만인평등 사상이 낡, 여 평등뿐 아니라 민족간의 평등한 사상을 불러 일으켰고, 정치적 상황이 일본에 지배적이긴 하였으나 어떤 운동보다도 강인성을 띤 민족운동으로 승화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인류애적 보편성이라는 기독교의 이념은 민족운동으로만 승화될 수 없는 처지로 기독교 운동의 방향을 물고 갈 소지를 안고 있었다. YWCA운동은⁹⁾ 민족운동, 여권신장운동, 종교운동 등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전통적인 문화의 역사에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수용해 진취성을 띄는 성격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YWCA운동이 갖는 여성운동상의 위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Ⅲ. 1920, 3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전개양상과 그 성격

그 다음에는 1920~30년대 YWCA를 통한 여성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의식개혁운동

YWCA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성원의 요건상 여성단체의 특성도 지니고 있었고, 종교운동 못지 않게 여성의 의식개혁에도 앞장섰던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남존여비라는 봉건적, 전통적 관습이 강하게 지배하던 당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YWCA의 여성운동에 대한 저항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9) 앞으로 YWCA운동이라 함은 기독교 이념을 갖고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 기독교사회운동단체인 YWCA가 주도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 자녀출산, 가사노동과 길쌈, 농사¹⁰⁾에서 여성들은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관습적인 草薺과 内外法의 잔존으로 첩도 나기전에 혼인을 강요당하고, 이혼이나 개가를 한 경우에는 평생 멧뚝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거기에도 측첩제도와 이혼바 보쌈이라는 약탈혼은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하였다.

기독교의 전래는 이와 같은 전통적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다.¹¹⁾ 남녀평등에 의한 기독교의 사상은 여성들에게 구태의 관습을 깨뜨리고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일부일처의 가족제를 제시함으로써 조선여성의 개화와 지위향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다. 1886년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정신여학교(1895), 배화여학교(1898), 평양의 경의여학교(1899), 숭의여학교(1903), 목포의 정병여학교(1903), 광주외 수피아여학교(1908) 등의 여성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여성의식 개혁은 본 궤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신 여성에 의해 애국부인회, 여자청년회, 여자 수양회 등의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어 서울과 지방에서 각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여성의식의 개혁은 그 기반을 넓혀 나갔다. 이러한 여성의식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이념이 국민주권주의로 확립되며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여성문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20년대 초에는 여성해방에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¹²⁾

이 시기 여성문제의 주된 관심은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 및 여성의 자주독립 등으로 요약된다. 이 무렵 『靑年』에 실린 다음의 글

10) 조선시대 농사는 주로 남자들의 일이었지만 국가의 역역(요역, 병역 등) 기간동안에는 농사일도 여성들의 몫이었다.

11) 李萬烈,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1986, pp. 22~29

12) 千和淑, 『한국여성 기독교 사회운동사』, 제안, 2000, p.167.

은 이 점을 잘 드러내 준다.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부인운동이라 함은 대체 4개의 문제가 포함된 줄로 생각한다. (1)은 결혼문제다. 자각한 부인들은 종래에 행하여 온 바와 같이 자기들을 한 물품모양으로 親부모가 시부모에게 무단히 허부입취하게 함은 실로 불감불사의 치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부인운동 중에 제일 선착수된 문제다. 문호 이성의 『인형의가』 가운데 여주인공 노라는 그 전형적인 부인인데 이것이 점차 우리 사상에 경종을 난타하여 오는 바이다. (2)는 직업문제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지위의 향상을 보증할 필요로서 배태한 것이다. 남자와 같이 대항하며 가려하면 아무리 하여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가정의 주부를 부부관 미명하에 은폐한 창녀라고 모욕한다. (3)은 교육문제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물질적 독립에 대한 정신적 독립의 요구에 기인하여 일어난 문제이다. 여자라 할지라도 마땅히 남자와 동등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교육을 받을 능력도 충분히 향유한 바이다. 오늘날 여자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외아해 하는 것은 고대 여자를 학대하고 억압하여 온 인습의 여파다. 자고로 여자가 남자에 지지않게 출중한 자가 적지 않다고 볼 때 이것이 여자 자신의 죄가 아니요, 남자의 불법한 소위였음을 알리겠다. (4)는 권리문제이다. 위에 말한 3개 문제의 결론이라 하겠다. 즉 부인이 경제와 교육의 독립에 의하여 결혼의 지위를 향상한 이외에는 필연적으로 법률상에도 남자와 동양의 권리가 얻지 못할 것이다. 남자에게만 참정의 권리를 주며 관공리의 통용을 허락함은 실로 불공평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출현된 것이 즉 부인참정권 운동이다.¹³⁾

위의 글에서는 여성운동성의 주요 점을 결혼, 직업, 교육 그리고 여성의 권리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컨대, 여성의 진정한 지위회복을 위해서는 남성에게 배속된 결혼생활을 타파하는 것이 제 1차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고 직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여성들은 자신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가정과 사

13) 崔昌鉉, 『婦人運動』, 『靑年』 1-7, 1921. 10. pp. 6-8.

회, 민족으로까지 여성운동을 확대 연결지으면서 여성의식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사회구성의 기본요소가 되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여성을 얹어매고 있는 굴레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부동석도 타파하여 여자도 남자와 같이 배울 수만 있다면 배워야 하고, 내외법도 타파하여 주인이 없을 때는 여자도 능히 주인노릇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결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¹⁴⁾

또한 남편이 죽은 후라도 정조를 지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재가도 무방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정조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니 남편이 동일하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킴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딸을 팔아먹는 야만의 법과 인신매매의 원인이 되는 창부를 폐지해야 하며, 혼인제도도 개혁하여 재산과 권력 등에 의지하는 비부한 혼인법을 타파하고 순결한 합리적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주성과 관련해서는, 남편과 동거할 때는 의식주를 그에게 의뢰함이 당연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성도 자주 자립할 만한 능력을 연구하며 배양해야만 비로소 여자의 지위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청년여자는 학교교육을 받게 하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인에

14) 이와 같은 논지의 글이 『동아일보』 1923년 1월 1일자에 실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말 조선 가정은 여러 가지로 개량할 점이 많습시다. 정신적으로 보든지 형식상으로 보든지 어느점으로 보든지 개량치 아니하면 아니 될 결점이 매우 많습시다. 그러나 나는 단축한 시간에 그 여러 가지를 말하고자 아니합니다. 다만 사람이 없는 조선 가정, 이해가 없는 조선가정, 쓸쓸하고 재미없는 가정을 사랑이 많고 이해가 있는 향기롭고 즐거운 가정으로 개량하지 아니함이외다. 그러면 정확히 말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 구체적 방침을 말할 수가 없습시다. 어쨌든 서로 사랑하고 이해 있는 가정이 되려면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가 있어야 하겠지요. 필경 그리하려면 부부 두 사람이 상당한 수양이 있고 상당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남녀 두 사람이 자유 결혼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는 사회교육 즉, 강습회·야학 등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 기독교측은 여성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음은 물론, 기독교 신앙의 수용을 강조하며 기독교 신앙의 범주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을 주장하였다.¹⁵⁾

그런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은 비단, 기독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기사는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오늘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온갖 형편이 뜻과 같지 못한 이 때에 도저히 남자편에서만 떠돌고 남자들만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자못 한편 다리가 병든 사람이 단음질을 치고자 하는 비유와 같으니 결코 만족한 계몽운동이나 문화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은 오늘날 세계의 현상이 이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인바 합니다. 그러하므로 여자도 사람이 된 이상, 조선에 생겨난 이상에는 조선사회를 위하여 사람다운 즐겁고 밝을 위하여 일하는 마당에는 남자와 함께 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이요 남자측에서도 이에 반대할 말이 없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형편이 좋은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모여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사교를 익히기도 하며 한 걸음 나가서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문명의 종을 치기도 하며 아직 듣지 못한 이에게는 배움의 나팔도 불어 주어 우리 형제자매로 하여금 기쁨의 동산, 행복의 사회로 나아갈 길과 빛을 얻게하여 줄 수 있는 청년회사업으로만 할지라도 목하 심삼도 각처에 남자편의 청년회는 거의 없는 곳이 없어서 그 효과도 차차 나는 모양이오나 불행히 여자편에는 오직 예배당 안에서 예수교인끼리만 모여 조직한 범청년회가 몇 곳 있을 뿐이요 모든 사회의 온갖 여자가 함께 모여 조직한 풍산 청년회가 아직 한 곳도 없고 더욱 조선문화의 한복판에 되는 경성의 여자사회가 이같이 적막한 것은 생각할수록 사회를 위해서나 여자권을 위해서나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옵시다. 그러하므로 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여자사회에는 끈직한 청년회를 조직하여서 한편으로는 먼저 깨진 여자가 함께 단결을 하여 큰 힘을 내어 가지고 아직 깨치지 못한 여자의 손목을 이끌어가며 누구나 다 같이 알며 함께 잘 살기를 기약할 것이옵시다. 그러나 우리 여자계에는 아

15) 李德鳳, 「女子의 歴史的 관찰과 期終案」, 『青年』 1-8, 1921. 11. pp. 5-7.

직 그만한 결혼을 세울 만한 전문가가 박약하고 앉아서 일할 사람이 아직 나서지 않는 모양이니 매우 통탄할 일이오나 생각전대 우리 여자사회는 이제야 바야흐로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는 새벽 버리에 있는 터이라, 먼저 깨인 사람 같이 담담하고 외로운 이는 다시없을 것이니 이 때에 이르러 우리는 큰 용기를 내어 가지고 성패는 운수에 붙이고라도 오직 양심의 가르침조차 다소의 비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자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크게 활동하고자 하는 결단성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외손백이 홀로 울지 못하는 심으로 비록 무슨 일이든지 먼저 발기는 하여 놓는다 할지라도 조선 여자들의 목하 모든 형편이 가경을 벗어나 사회에 나가기는 도저히 어려운 일이니 제일 먼저 남편 있는 이는 남편된 이가 부모 있는 이는 그 부모된 이가 좀 시대를 헤아리어 한 걸음 양보를 하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내나 며느리나 딸에게 사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을 주어서 사람은 저 하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어두운 생각을 타파하여 주어야 하겠으며, 혹은 다행히 가정의 양해를 얻어 사회에 나서기를 어떤 여자는 매사에 조심을 게을리하지 말아 아무쪼록 부모와 남편된 이를 거스리지 않도록 힘을 쓰면 우리 여자의 사회사업은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요 이리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앉아서 주장코자 하는 여자청년의 조직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¹⁶⁾

위의 기사가 보여주듯이 여성운동은 먼저 깨친 선각적 여성들이 희생적 봉사으로써 일할 것과 또, 그것의 실천조직으로서 여성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청년운동의 경우, 남자측 단체는 전국 방방곡곡에 존재하는 데 비해 여성단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있는 여성단체라고 해봤자 기껏 교회 안에서 조직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제 여성단체는 교회 내에 머무는 청년조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대단위 조직이 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었다. 그것은 당시 여론도 이 같은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16) 유연숙, 『부인과 사회사업』, 『동아일보』 1921년 3월 2일 (3)5.

“학교교육에 대하여는 학교경영자가 서양인이든지 일본인이든지 조선사람을 가르치는 학교는 조선사람의 학교요 조선사람의 학교이면 조선사람을 위하는 학교이라 그런데 이 조선사람을 위한다는 학교에서 조선사람의 생활 정도에 맞지 않는 교육제도가 있다. 이것은 속히 고치기를 바란다. 셋째는 영혼의 교육 즉 종교교육이다. 종교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이치 밖으로 가는 참 이치를 깨닫게 하고 보통 사람이 의무 밖으로 가는 큰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문명의 태만은 내 몸을 바치고 남에게 봉사하는 희생적 정신에서 생긴 것이다. 이리하여 개인이 완전하면 사회가 완전할 것이요 사회가 완전하면 국가가 완전할 것이다. 그 외에는 사회사업이 일어나야 하겠다. 근일 시대문밖에 고아원을 설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여자고아원이 아직 없다 한다. 어서 설치하기를 바란다. 다음은 도덕 표준이다. 근일 몇 도덕은 파괴되고 새 도덕의 표준이 없는 모양이라. 그러나 나는 그전에 있던 삼강오륜을 잘만 응용하면 확실히 그 곳에서 새 전리를 얻을 줄 안다. 그 외에 금주·금연·공장 폐지 등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또는 여자 청년회가 많이 되기를 바란다. 생활이 곤란한 빈가 여자가 돈뿐이나 얻어 쓰고자 담배회사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실수로 참 명이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어떠한 곳으로 타락될지는 모르니 어떤 여자를 살인도할 것은 여자청년회의 책임이다. 그 다음은 지방의 순회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하여 지방사람을 겨우치는 것이다. . . . 그리고 그 지방마다 그 지방문화사업에 몸을 바치는 자가 한 사람씩만 있었으면 좋겠다.

시대가 전환하여 사회의 향상과 발달에 대한 인간의 봉사는 남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금일에 있어서 사회의 생활에 몰간섭하여 온 종래의 교육이 얼마나 사회의 불행이며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여성과 생활에 얼마나 큰 결함이리오. 과거의 교육이 이미 무의미하며 불완전한 결함이 많았음은 이제 다시 거론치 아니하거니와 현재의 교육제도를 돌아볼 때도 오히려 여성의 교육이 너무나 한심한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남성의 교육기관도 아직 완비할 시기가 요연하다. 그러나 여성을 위하는 교육기관도 아직 완비할 시기가 요연하다 그러나 여성을 위하는 교육기관은 남성의 그것에 비하여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여성의 입학률을 보더라도 아직 부진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종래의 전통적 인습에 젖은 여성의 자각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전 사회를 통하여 종래의 인습을 타파할 만한 모든 가정의 자각으로 말미암아 다 각각 그들의 여성을 교육의 무대에 해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요.

따라서 부진하는 그들 교육의 기관을 부질히 증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오인은 참담함 목하의 조선사회로 하여금 신성명을 가진 향상과 발달을 도모하려면 종래 사회의 생활에 물간섭하여 온 여성들이 교육의 무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남녀의 소유한 모든 개성이 우리 사회의 봉사를 위하여 충분히 지휘하여야 할 것이요, 또 오늘과 같은 여성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충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혼문제의 아픔답지 못한 사실이라든지 또 여성의 생활이 모두 조화되지 못하여 모든 고통과 변변에서 싹을하는 현상을 구제하려면 또한 이 여성의 교육적 해방에 있는 것을 단언하여 주저치 아니한다. 이와 같이 여성의 교육적 해방이 목하 우리 사회의 중대한 급무인 것으로 생각할 때에 다시 일언으로써 고하노니 만천하 동포는 우리 자매의 지식상 수련을 위하여 자성과 분투에 노력하기를 촉구 하노라¹⁷⁾.

과거 남녀불평등 교육의 모순을 신랄하게 공박하면서 남녀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성교육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성의 교육은 조선사회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발달할 수 있는 전제라는 시각에 입각해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22년 12월 28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여자기독교청년회 주최로 행해진 강연회에서 김영제가 행한 '現代와 女子의 使命'이라는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천 구백 년 전에 예수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남존여비의 사상을 타파하고 인격평등의 진리를 절대로 창도하였다. 그 성서의 개소를 거할 여가가 없거니와 혼인에 대하여도 절대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질조에 관하여도 결코 여자에게 편중하게 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물질적 경제력으로써 남녀의 경중을 구별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 정신을 귀중시하였다. 이것이 여성에 대한 신도덕의 건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에 나는 현대문명의 사역자로 기독교청년여자에게 기대함이 실로 다대한 바이다. 보라 남녀평등이라는 사상을 문득 남녀무별

17) 『여성의 교육적 해방을 위하여』, 『조선일보』 1924년 5월 7일(1)

로 악화하여 가는 형편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지금 본회 헌법 제2장 제2 조목의 운운을 보니 기독교 품성을 개발하며 청년의 영적·지적·사교적·신체적 행복을 증진케 함으로 함(강조 : 원문)이다. 아 과연 현대에 이 중대한 사명을 맡은이가 누구인가. 물론 기독교여자이다. 기독교 품성, 영적 행복, 사교적 행복(강조 : 원문)의 3요건이 있고야 완전한 여성 이상적 생활이라 하겠다. 8억이나 되는 인류의 반수를 점하는 여성을 항상시킬 사명이 이 YWCA가 아닌가. 우리 반도로 말하면 적어도 8백만 이상 되는 이 가련한 여성의 동포를 암흑에서 광적으로 사에서 생으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이가 이 YWCA가 아닌가. 동성인 재군은 이 사역을 담당하라. 이설이므로 뜻 있는 자는 이 미거를 찬성하라. 그리하여 이 현대문화에 낙오자 되지 말고 일념 점진하기를 절망한다”¹⁸⁾.

여기에서는 남녀평등의 사상을 기독교정신에서 찾고 있으며, 그것의 실천자로서 즉 여성해방운동의 책임자로서 YWCA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요건으로서 ‘기독교 품성’ ‘영적 행복’ ‘사회적 행복’을 제시하면서, 여성운동사에서 YWCA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YWCA는 여성운동의 기수로서 여성의식 개혁에 앞장섰고, 또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YWCA의 사업 가운데 문맹퇴치와 공장폐지운동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그런데 YWCA는 단순히 문맹퇴치, 공장폐지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유작경은 YWCA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대변했다.

“금일은 시대의 변천을 따라 남자가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보조를 같이하여 사회에 출입하는 자유가 있으나 해방이요 동등인 듯합니다. 그러나 나의 관찰로는 동등과 해방보다 개성의 몰락이 전 시대에 비하여 더 심한 듯합니다..... 일방으로는 금전만능주의를 숭배하는 교육이 아니면 여자는 청춘 시기에 화장을 숭상하여 남자의 애정을 유인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교육에서 해방이며 직업적 교육이 없고 사치적 교육만 받는 여성들 중에는 중

18) 金稚濟, 『現代와 女子의 使命』, 『靑年』 3-2, 1923. 2. pp. 8~9.

등교육을 받은 자로도 정당한 취업을 취하여 자영자활하며 선진된 책임과 후진의 모범이 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허영심에 떠돌아서 안일한 생활에 인간성의 약탈을 당하고 경제빈곤을 면치 못하므로 그 발로는 혹 황금가에 번당생활을 하거나 혹 그보다 더한 데에 투신하는 자가 없지 아니하여 신문지상에 모독과 조롱을 면치 못한즉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해방을 주장하며 붓끝으로 남녀 평등을 세창한들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경제상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직업적 생활을 장려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여자해방이라는 수치의 어구를 발하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일하여 경제상 해방과 인격상 평등을 말하며 버렸던 권리를 회복키 위하여 분투 노력합니다. 그러는 때에야 우리의 해방은 사실화할 터이옵니다. 그 전에는 비록 논단에서는 해방을 쟁탈하게 부르짖었지만 가질 안방에 들어가는 때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남자에게 간구하게 되며 복종하게 되려 해방의 정신도 소멸되고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힘들하여 건전한 사회를 건설 창조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로 교육에서부터 여성의 경제 자유를 얻을 것으로써 힘쓰고 또는 여성끼리 서로 도와 경제의 자유를 속히 얻도록 합시다. 그 자유만 얻으면 해방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¹⁹⁾.

여성해방이나 남녀평등을 아무리 외쳐도 여성이 경제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같은 구호도 결국, 부위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을 장려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남녀평등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김필래의 다음 글도 같은 논조를 띄고 있다. 즉,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도덕·직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예속된다면 남녀불평등은 극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성지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인문제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의 중대한 것입니다. 자유사상이 발달되

19) 俞莊卿, 『女子解放과 經濟自由』, 『靑年』 6-4, 1926. 4. pp.16~22.

고 평등주의가 고조되는 시대를 당하여 부인들도 비로소 작성되고 따라서 실제로 실행운동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로 먼저 시작한 것이 부인장정권운동이요 그 다음에는 보통여권운동 즉 여자의 인격운동입니다. 이 여권운동은 다방면인데 교육·도덕·직업 등입니다..... 여자의 권리가 남에게 빼앗겨진 유래를 사회학상 견지로 보면 전부가 여자의 경제적 지위의 불평을 남자가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권리를 회복함에도 먼저 경제로 독립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직업문제는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신진되었습니다..... 조선은 형편상 남자도 정치에 아무 권리가 없고 언론출판에 대한 아무 자유가 없고 경제에 대하여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조선여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겠다고 하겠습니까”(20).

여성의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조위에서 추진된 여성운동에 대해 김활란은 단기간 동안 이만함이나 여성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극소수 신진여성의 희생적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교육을 통해 여성운동을 일반 여성에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무리 자각이 있고 사회의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처럼 소수인 여자로 많은 사회운동의 일률적 임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일천만의 백분지 일 되는 십만 명이라도 깨기 전에는 우리 조선 상태가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천분지 일인 만 명만 되어도 현존한 단체들이 저렇게 무력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중등 정도에 교육을 받는 여자는 오직 수백으로 불과 수천으로 그 수를 세게 되니 언제나 사회생활 각 방면에 우수한 공헌이 있는 여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모든 여자문제가 해결되며 건전한 사회가 확립되었습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조선여자운동은 오는 10년간 교양에 집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유식한 사람이 할 때는 진정한 웅변가가 되어서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하되 무식한 자가 할 때는 그저 늘하는 그 말밖에

20) 金奭鍾, 「婦人運動에 對한 史的 考察」, 『靑年』 6-4, 1926. 4, pp. 6~22.

별수가 없다고 조롱합니다. …… 권위있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고 자기가 있는 개인으로 다수가 사회에 드러나는 공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이 되면 일면으로 전문적·직업적 교육을 힘써 다수의 인재와 기사를 산출하며 일면으로는 상식적 교육을 일반 여자계에 보급시켜 자존심과 사회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자기 본분을 다하는 일반 여자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²¹⁾.

김활란은 여성운동의 나아갈 방향이 극히 한정된 소수에 의해 추진될 것이 아니라 여성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참정이나 경제·여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양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여성운동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 여성의 1%인 10만 명 정도는 자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깨우친 여성이 수백 수천에 머물고 있으니 여성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향후 10여 년 간은 교양계몽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YWCA를 이끌어 간 여성지도자들의 논리는,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기독교신에 의거하여 남녀불평등의 고루한 의식을 타파하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과 여성 일반의 교양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기초 위에서 YWCA사업은 계획·추진되어 갔다.

2. 금주·공참폐지운동

금주·금연운동은 아편·축첩·배음·참기 등의 사회악에 대한 정화운동과 함께 3·1운동을 전후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율리운동인 동시에 여성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 이 운동은 YWCA가 창립된 직후부터 제시되었고, YWCA에서는 이를 여성해방의 제1차적 과제로서 전개해 나갔다. 이 운동은 YWCA 자체뿐만 아니라 YWCA의 주요 인사들이 주도한 조선여

21) 金活蘭, 「朝鮮女子運動의 今後」, 『靑年』 10-2, 1930, 2, pp. 3~4.

자금주회,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등과 같이 YWCA 유관 단체들과 연대를 이루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YWCA의 금주·공창 폐지운동은 이들 유관 단체의 활동과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

1923년 조직된 조선여자금주회는 YWCA의 중심인물인 유각경과 선교사 부인들이 주도하였다. 1926년 당시, 임원 구성은 회장 유각경·최화란, 총무 켈링스 부인·손매례, 서기 문인순·김보린, 회계 밀너 부인·엠프 부인 등이었다.²²⁾ 총무 손매례는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금주 선전활동을 폈다. 1928년 8월 평북 선천군 순회에서는 감동을 받은 변장이 앞장서 금주를 선언하였으며, 충남 공주에서는 금주 강연에 감동되어 그 지방에 술먹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²³⁾

금주와 금연을 비롯하여 절제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던 조선 여자 기독교절제회에서도 역시, 전조선연합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주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 회의 총무 손매례는 지방순회에 앞장서 금주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금주운동에 동참하는 지방조직을 16개나 연합시킴으로써 동회의 활동을 크게 진작시켜 나갔다.²⁴⁾ 동회의 임원은 회장 유각경, 부회장 김선, 총무 손매례, 서기 문인순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임원진을 통해 볼 때 동회는 조선여자금주회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단체라고 해도 될 만큼 임원이 중복되고 활동 또한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²⁵⁾ 이들 대부분은 조선YWCA연합회 임원들이기도 했다.²⁶⁾

22) 『기독신보』 1926년 12월 1일(2)1.

23) 『기독신보』 1926년 12월 1일(2)3.

24) 이 때 순회활동에 의해 조직된 곳과 회원 수는 다음과 같다. (『기독신보』 1924년 12월 24일(3)). 선천(55), 평양(170), 해주(150), 성진(81), 부산(137), 전주(101), 청원(47), 이천(31), 영변(81), 재령(101), 원산(192), 대구(248), 창주(248), 부산진(102), 군산(90), 원주(37).

25) 『동아일보』 1924년 8월 31일(2)5.

26) 제6회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1935년 9월 3일 평양서문밖 예배당에서 60여 명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선출된 임원은 거의가 조선YWCA연합회 연합위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금주·금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YWCA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공창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창폐지운동에 앞장섰다. YWCA의 공창폐지운동은 여론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공창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창폐지운동에 앞장섰다. YWCA의 공창폐지운동은 여론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공창제도에 대해서,

“오늘날 인류 사회제도 가운데 공창제도와 같이 사람 가운데서도 특히 여자의 모욕과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일반이나 같은 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에 있어서 남녀가 역시 다른 점이 없다. 그러한데 현 사회 도덕이 여자의 정조도 남자의 정조와 일반으로 그 망일함을 묵인한다 하여도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자의 정조를 여자 그 자신이나 제사장 다 같이 생명같이 보는 아래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연히 그러한 공창제도를 묵인한다, 그것이 얼마나 여자의 삶된 권리를 무시하며 한낱 등골과 같이 여깁니까..... 그러한 악제도의 발생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 번 밝혀보려 함에 있는 것이다..... 첫째는 금전에 팔리는 것, 둘째는 남에게 피임을 받아 모르고 팔려가는 것, 셋째는 제가 스스로 즐겨 그에 몸을 던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²⁷⁾

라고 하여 공창을 ‘공금’하는 창기의 발생 원인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창제도의 모순을 밝히고자 하였다.

1925년 YWCA는 사회문제연구부를 설치하고, 그 당시 가장 급선무의 문제들을 조사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풀어 가고자 했다. 축첩, 조혼 문제 및 禁娼, 금주, 금연과 공창폐지운동을 여기로 통합시키고 여자노동 문제, 남녀교제문제 그 밖의 사회 진상의 연구

실행위원 : 회장 유각경·최활탄, 서기 정현숙·장정심, 회계 양매륜·박양무, 총무 이효덕 연합위원 : 김물린·홍에스터·김선·김배불·변부인·전마대·고숙원·윤활관(『기독신보』 1935년 9월 11일(316).

27) 『여자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공창제도에 대하여(1)』, 『동아일보』 1925년 11월 24일(31).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각경은 금주·공창폐지운동에 대해 절제운동의 관점에 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절제운동의 어원은 비교적 높아진 줄 알겠습니다. 조선기독교여자결제회가 있어서 전부 충무를 두고 전 조선을 빠짐없이 순회하면서 이 운동을 일으키며 도움 받은 이들에게는 이 운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절제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절제생활을 참가하기를 권하여 왔습니다. 소극적과 적극적 두 방면에 매우 충실한 임무를 다하여 온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교회 안에 있는 애평, 또는 면려 등 청년단체들이 역시 절제 혹은 문자는 다르나 그 실상은 다름없는 사업 등을 열심히 하여 왔으며 또한 구세군이라던가 그 밖에 소위 사회계량을 뜻하는 지사들의 열성으로 적지 아니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줄로 압니다. 더구나 연래에 기독교 신보가 종종 절제에 대한 특호도 발행하고 또는 근년에 와서 매월 1회역은 반드시 절제문제를 포함한 소론을 실어서 일반 신자들에게 절제사상을 격려하는 것이 있으므로 적지 아니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막연한 선동으로만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철저한 과학적·조직적 운동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절제운동이 결코 범연한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선을 잡고 꾸준히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면 기회와 형편에 의한 강연회 혹은 선전지 또는 피동적으로 설립되는 회의 조직 등으로써는 큰 효과를 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그 제도 여하는 불문하고 전 조선교회가 이 운동에 참가하며 또는 전 조선교인들이 다 이 운동에 참가하며 또는 전 조선교인들이 다 이 운동에 나선 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고로 이 운동은 조직으로 기관을 형성하며 따라서 유기적 연락을 갖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유기적 연락을 갖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전 변화시킬 것이며 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실제로 있어서는 명실 상부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겠고 상대자를 향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철한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절제운동을 하는 개인, 절제운동을 하는 기관은 먼저 절제 그것에 있어서 백방으로 산 모본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올시다. 칼로는 글로는 절제를 주장하지만 실지 생활에 들어가서는 절제를 못하거나 또는 아니하는 형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술집이 없어지며 양주회사가 파산이 되며 카페가 전법

이 되며 공장이 폐지가 되도록 적극적 투쟁일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²⁸⁾.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와 엠뮬청년회, 면려청년회 등 기독교 청년단체들이 전개한 절제운동에 대해 일단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제운동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막연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도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동의 중심체는 바로 YWCA와 같은 전국적 종교사회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YWCA의 금주·금연·공참제도폐지운동은 하령회 개최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실천적 운동을 위한 조직으로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한층, 구체적인 활동을 떠나갔다.

3. 문맹퇴치 운동

조선YWCA연합회는 총회와 하령회 개최시 사회복음의 지도방침으로서 문맹퇴치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여성해방을 위한 교육계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YWCA에서는 야학을 비롯하여 각종 강습소를 설치하였는데 특히, 야학은 YWCA가 행한 여성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야학교육은 정식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주로 각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YWCA연합회는 총회나 하령회를 통해 이를 총괄 지도해 갔다. 여기서는 YWCA지부의 야학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YWCA연합회 직할 지부의 성격을 띠었던 경성YWCA는 태화여자관에서 영어강습을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초등·고등·특별

28) 유작걸, 『절제운동의 합리화』, 『기독신보』 1933년 6월 28일(6)1.

등 세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²⁹⁾ 그러다가 1925년 2월 태화여자관 안에 야학을 설치하였다. 연령 제한은 없었고, 공장 직공이나 행랑어멈과 같이 어떠한 신분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 입학금은 무료였지만 약간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월사금 20전씩을 받았고, 졸업 기한은 3개월로 하였다. 교육목표는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었지만 필요에 따라 한문도 가르쳤다.³⁰⁾

야학의 학생들은 주로 고무생상, 제사공장, 직조공장, 연초공장 등에서 과도한 노동을 하는 무산부인들이고, 행랑부인도 입학했다. 그 중에는 '하인'으로 불리는 여성들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학생이 40여 명이었고 선생은 이화학당 교사, 태화여자관 교사 13명이 담당하였다. 학장은 황에스터가 맡았다.

이 야학은 개학 이래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여 불과 두 달만에 70명을 넘어서 보통과를 증설하였고, 학제도 4년제로 바꾸어 교육을 실시했다. 언문반 외에도 편물반과 영어반을 두기도 하였다. 영어반은 3년제로 중등 이상의 정도로 가르쳤으며 생도는 30여 명이 있었다. 편물반은 1주일에 한 번 강습하였는데 가정부녀의 수예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도가 십여 명에 이르렀다. 교사 중 손정규는 재봉교과서를 직접 저술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실생활 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야학은 부녀에게 기독교 정신 아래 부덕을 향상하면서 부인의 교육을 보급시켜 문화향상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³¹⁾

여자 야학부는 재경학생기독교청년회에서 그 경비를 보충하여 운영하였으며, 1928년에는 한 학기에 70여 명이 졸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³²⁾ 야학부 생도는 거의 무산 여성으로 모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면학한 결과, 1929년 봄에도 졸업생 9명이 배출되었다.³³⁾

29) 『동아일보』 1924년 9월 9일(3)3.

30) 『동아일보』 1925년 1월 26일 부록2(2)6.

31) 『동아일보』 1925년 4월 3일(2)1.

32)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청년』 9-1, 1929. 1. p.13.

원산YWCA에서는 100명의 학생에 4명의 상근교사를 두었으며 선천에서는 7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평양에서는 계절에 따라 야학을 개최하였는데,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성경·산술 등을 공통으로 학습시켰다. 청주 YWCA에서는 이와 달리 여섯 명의 고아를 맡아 기르는 시설을 갖추고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³³⁾

광주YWCA는 첫 사업으로 야간학교 즉, 야학반을 열어 부녀자들의 계몽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는 YWCA 단독보다는 교회와 YWCA등이 힘을 합쳐 운영해 나갔다. 이때 야학 장소로 이용된 흥학관은 1층 목조건물로 3·1운동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모임 장소였고, 농민들의 쟁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노동공제회, 신간회 지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야학반 과목은 한글, 산수, 음악, 그리고 성경을 주로 가르쳤고 학생수는 보통 100명 안팎이었으나 많을 때는 300명에 달했다. 연령도 40세 이상의 부인도 있었으며 학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의 딸, 유학생 남편을 둔 새댁, 부잣집 며느리, 이혼을 당한 여성들까지 실로 다양했다.

한편YWCA에서는 신문명과 더불어 색생활 교육법을 실현함으로써 대중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방법은 바자회, 웅변대회, 음악회, 일반 강연회, 극회 그리고 구호활동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YWCA운동사례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33) 「地方青年會活動」, 『青年』 9-4, 1929, p.59.

34) 존스와 베스트 글 참조.

〈표 1 : 조선YWCA연합회의 새생활 교육 활동〉

주관단체	활 동	출 전
경성 YWCA	1934년 1월부터 부인들을 위한 毛織編物강습회개최. 30명 내외의 가정부인들이 화요일이면 찾아와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습 받음.	
종로청년회·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5월 2~3일 양일 간 종로청년회에서 바자회 개최	『동아일보』 1934.5.3
경성 YWCA	5월 7~8 양일에 전조선여자현상용변대회를 조선·동아 양 신문 평양지국 후원으로 개최, 연사는 중등과정 이상의 여학생 및 여자청년단체중 각2인씩.	『동아일보』 1935.4.11
조선YWCA연합회	여자음악회를 11월28일 종로청년회관에서 개최	『동아일보』 1935.11.26
경성 YWCA	1935년 7월, 의료반을 조직하여 춘채문박 마포, 영등포, 양정리 선촌, 착심 등지를 순회, 질병에 걸린 사람 189명을 치료	"Comments on the report of the Survey in Korea and the status of the YMCA and YWCA"
원산 YWCA	3월20일, 고등여학교강당에서 신춘음악회 개최	『동아일보』 1935.11.26
부산 YWCA	7월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청년동맹회관에서 보통위생, 부인위생, 아동위생 등의 강연회 개최, 강사는 김형기	『동아일보』 1938.7.12
전주 YWCA	6월13일 사대문밖 예배당 안에서 창립 2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동아일보』 1939.6.13
영주수피아 YWCA	11월17일 창립기념식을 모교 강당에서 성대히 거행하고 식후 음악회 개최	『동아일보』 1932.11.10
광주 YWCA	3월11일 양정리 송일학교 강당에서 음악과 극의 밤 개최	『동아일보』 1933.3.5
경성 YWCA	동 회관에서 사탕요리 실습, 강사는 최활관과 연소 부인	『동아일보』 1934.10.3
경성 YWCA	5월2일부터 3일까지 종로청년회관에서 바자회 개최. 풍물발레소는 동아부인장회를 비롯하여 20여 장점이 출장하였으며 송모고등보통학교 실업부도 참가	『기독선보』 1934.5.7
형성여자신학교YWCA	10월24일과 25일 시내 죽원정 동교 강당에서 종교극회 개최	『기독선보』 1930.10.22

YWCA의 사회활동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확인되는 것만 열거해 보아도 모사편물 강습회, 바자회, 기근동정토론회, 웅변대회, 음악회, 순화의료, 위생강연회, 요리실습, 종교극회 등이 있었다. 즉, 실생활 교육에서부터 기독교적 정서 함양에 의한 의식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YWCA의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활동은 여성의 의식과 지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여성운동의 성격

여기서 여성운동이라 함은 '여성을 위한 운동'의 의미로 사용한다. 즉, '여성이 주체가 되어 행한 운동'의 의미와는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YWCA는 사회복음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성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YWCA는 여성문제에 관한 모든 방면의 것을 다루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성의 의식개혁과 교육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하여 각 지부를 중심으로 야학 또는 강습소를 설치하는가 하면 각종 계몽강연회를 개최하면서 기독교신앙에 의한 여성의 의식개혁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남녀평등의 위치로 자리매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YWCA의 역할은, 김활란이 『현대평론』 창간호에 실린 「소위 신여성과 양처현모주의」라는 글을 반박한 다음 글에서 잘 나타난다.

현대 여자교육은 여자의 천직(현모양처를 뜻함)을 다하기에 필요한 수양을 시키지 않고 너무나 실사회와 실생활을 떠난 공상적·이론적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평론자들은 현대 여자교육에 현모양처 주의를 더 철저히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평이 곧, 현대 여자교육주의가 전부 현모양처에 있지 아니하거나 있다면 실현치 못하는 것을 암시함이 아

닌가 합니다.

『현대평론』에 기재된 내용은 현대 여자교육이 현모양처주의의 미명하에 여자들로 노예적 지위에서 생활하기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잡지 162면에 보면 “신식의 탈을 쓰고 난 현재 여자교육은 여자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훈도양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로 그들로부터 보다 더 공순한 노예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는 모양이다”. 다시 164면에 보면 “모라면 현모, 처라면 양처 이 이상을 어떤 사람이 비난할 수 있을까? 사실상 오늘날 형편으로는 여자의 대다수는 양처로 되며 현모로 되는 더인 즉,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자교육이 양처와 현모를 양성하기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당사일 것이다. 이 말과 같이 현모양처란 그 좋은 것만 뜻함이라 가정할 지라도 우리는 여자교육의 주의가 전부 거기 있다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적어도 인류 반분을 교육하는 여자교육의 主義를 어찌 편협히 현모양처라 하리오, 여자의 생활 그 전부가 다만 어머니 되고 아내가 되는 것에 그침이 마니어늘 어찌 저들을 교육하는 주의 ‘현모양처’에 한하리오, 만일 여자교육의 주의를 구별할진대 그 자연한 결과가 남녀간 가정에 있어서는 현모양처도 되고 현부양부도 될 것이라 합니다.”³⁵⁾

이 무렵 여성계 뿐만 아니라 남성계에서도 남녀평등의 소리는 높았지만, 이 문제를 가장 앞서서 해결하고자 한 것은 바로 YWCA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활란 등이 반박한 것은 현모양처만이 여성교육의 목표 내지 주의라고 하는 주장이었다는 점이다. 즉, 남녀평등의 기회를 통한 여성의 권리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남녀평등을 외친 신여성 해방의 논리와는 구별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남녀의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가정에서의 역할을 무시한 채 오로지 외면적인 평등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기본권이나 사회활동에서 종래 불평등했던 관습의 인식 타파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35) 金活蘭, 「女子教育에 留意하는 한사람으로서」, 『青年』 7-2, 1927, 2, pp.107~109.

물론, 당시에 교회 중심의 한 여성의 선교회나 전도회가 있었지만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장을 폭넓게 제공한 점에서 YWCA의 역할과 의의는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YWCA는 1920년대 기독교 여성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구심체로서 기능했으며,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IV. 현재 성남지역의 여성운동과 YWCA운동

1. 성남지역의 여성운동

성남지역은 현재, 크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조성되었으며 그 역사도 상당히 짧고 도시 성격상 여성운동도 전국 어느 곳 보다 특색있게 움직이고 있는 면이 있으나 참다운 여성문화의 뿌리가 안내려진 상태라고 생각한다. 시가지가 조성된 후 여성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 활동을 했다가보다는 가정 경제를 위해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복지관이나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력을 했고, 복지시설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그 시설이나 수가 월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 성격상 관변적인 활동이 주로 동, 풍, 반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권익을 위한 여성운동이라고 볼 수 없었고 점차 하나 둘씩 필요에 의해 조직되기 시작한 여성단체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 현재, 성남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표 2>와 같다.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비고
		선임인	생년월일		
경남시 여성단체협의회	분당구야탑동 345-5 차병원내 단체동20번지 여성복지회관내		차광준	280-3234 728-9850 280-5528(F) 011-749-5234	회장
미망인회	수정구 대평4동 7440-1 보훈회관내		김현래	745-5628(가) 736-3079(가) 019-252-3075	
한국부인회	수정구 대평1동 중문영신 가-301		백정진	728-4851 011-343-3536	
새마을부녀회	분당구 호라동 현대(아) 108-1502		김주영	702-2803	부회장
한국주부교실 성남시지회	충원구 성남동 74-6		곽연숙	721-2122(평) 729-5439(주4차) 017-795-2122	수석 부회장
대한직업자 성남분사회	충원구 구성면 보령리 동아 솔라시티 128-401		김연숙	711-7888(가) 751-0450(가) 722-2001(F) 011-722-0079	
여 론 사 협 회	수정구	수정구 대평2동 3364 (가) 수정구 성동3동 4216 (가)	김혜순	745-3071(가) 751-1311(가) 017-217-3071	
	충원구	충원구 금강2동 3003-1 (가) 충원구 삼대원3동 4216 (가)	김종진	744-4538(가) 749-4537(가)	
	분당구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삼원 종합빌라 304 (가)	변태숙	706-4383(가) 702-5059(가) 011-496-7811	
성남이웃소망대	수정구 단체동 4011		김종순	743-2915(가) 752-0169(가) 745-2808(연동대) 011-9031-1127	부회장
경남시 어머니합동당	수정구 대평2동 3364 현대연천 301호		박종순	721-0377(가) 017-277-2153	장사
유권자연맹	분당구 수대1동 한강(아)511-508		박영숙	711-3853 019-317-1422	
생활개선회	분당구 운송동 352		박영문	707-1281(가) 704-3969(가)	
고향생각주부모임 (성남동협)	분당구 정자동 90 스타마을 404-1008		이화연	712-9288(가) 722-2808(가) 019-278-9288	장사
고향생각주부모임 (낙성동협)	분당구 역현동 355 관교동 342-10 낙성동협		이옥자	708-1727 781-1066-7 018-361-1727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 락 처	비 고
		성립일	생년월일		
수정구'어머니'합창단	수정구 신촌2동 30 수정구청내 신촌2동 주공 107-1001	86. 8. 30	백원남 62.10.11	711-5067 757-2311(사)	
분당구'어머니'합창단	분당구 분당동 38 햇볕마을 308-1503	95	김은숙 56. 2. 2	703-3294 016-351-3294	
성남문화사협회	분당구 서현2동 시범단지상설 (아)110-432 총무 김미자 735-1489	96. 5. 20	오성암 48. 1. 15	538-8587(사) 538-2177(F) 782-8811(사) 017-341-8200	
한아라실권연합회	분당구 서현동 시범상설(아) 129-1005	97. 6	김정자 41. 7. 4	701-8986 016-349-8986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부	수정구 태평2동 333-1 (자) 수정구 신촌1동 5001 (사) * 김사 019-285-2008	92. 3	김복순 45. 5. 3	757-5041(자) 757-3308(사) 011-789-3704	
여 학 사 회	서현동 250-4 금호학명스퀘어 107 과대원동 149-3 여학사협회사무실	716.19	노민화 53.11.22	707-1239(자) 753-3300(사) 011-419-3251	
여 동 사 협 회	가성빌딩상 당소 성 남 지 부	87.9.4	이정숙 29. 4. 6	707-6661 011-215-1955 741-6055(F)	
	사랑의 손	96.3	김희경 42. 11. 29	746-2801 011-686-2801	
	국공립보육 시설 연 합 회	95.4	유인선 46. 4. 27	734-2801 011-686-2801	총무
여성호우회	중원구 중동 2004	95.4	김효순 48. 6. 3	734-9025 011-9031-1036 총무 01190011507	
선진전서연합회	중원구 상대원1동 1509	84	김순희 37. 8. 9	731-1357(자) 745-0449(사) 019-316-5002	
생활체육연합회	수정구 태평3동 3728	95.4	고 현 62. 1. 10	757-7621(사) 011-707-5814	
은혜모터클럽	서현동 시범 상설(아)110-232 과대원동 110-6 3층 (사)	90.10.15	이옥심 48. 9. 21	701-4357(자) 756-8897(사) 011-254-2101	
분당리용소방대	분당구 서현동 한신(아) 135-1001	99. 7. 28	김준권 62. 4. 27	707-2300 017-396-2300	
한미음료연구회	분당구 여당동 153-1	2000	김옥란 51. 10. 1	707-4849 707-5700(사) 011-703-5701	세무

〈표 2 : 2001. 11. 10. 현재 성남시 여성복지과 제공〉.

표에서 보듯이 성남YWCA는 여성단체협의회내에 들어있지 않다. 그것은 YWCA는 독자적으로 지역협의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성남지역에서의 여성운동 성격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단체나 법적으로 현실적 문제에 여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 관심이 많으며³⁶⁾ 그 외 전국지부성격의 조직은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중에도 성남YWCA회원은 2000여명에 달하여 그 활동도 짧은 역사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편이다.

2 성남지역의 YWCA운동과 그 성격

“YWCA의 목적은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YWCA는 한국에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움직이는 단체이다. 물론, 기독교적 이념을 갖고 활동을 하는 단체이니 만큼 종교적 이념이 다른 여성이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YWCA는 가입회원 대상을 규제하기보다는 활동하면서 기독교로 전도되도록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활동보다는 사회적 활동의 장이 폭 넓게 이루어짐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성남 YWCA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36) 성남시 각 여성단체의 성격분석은 다음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2001년 1월 30일 제 13회 정기총회보고

- 부서별 사업보고 -

1) 회원부

① 회원활동

행 사 명	집 회 수	참 석 자 수
전국 회원 대회	1	11
걸기도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 간담회	1	36
이사, 직원 기도회	3	13
후쿠시마 참변환 과의 교류	1	20

② 홍보출판

자 료 명	횟 수	발간부수
성남 Y 소식지 발간	2	4000부
총회 자료	1	70부
프로그램 자료	7	650부
포스터 및 홍보비	10	11700부
보도자료 발송	30	200부
계	50	16320부

2) 어린이부

행 사 명	일 시	집 회 수
체험학습프로그램	1월 26일 7월 20일	2회
연날리기	1월 12일	2회
문화유적 답사프로그램	2월 24일	1회
어린이날 문화거리	5월 5일	1회
단원사당 문화축제	5월 21일	1회
환경의날 행사	6월 3일	1회
김치아름 짓밌행사	7월 25일	1회
방과후 교실	1-12월	매일

3) 청소년부

행 사 명		일 시	집 회 수	참 석 자 수
Y-턴	Y-턴 인준식	4/8, 15, 22, 29	4회	115명
	Y-턴 수업	매월 2-3째 토요일	8회	261명
	Y턴- 전국대회	8/9-10	1회	2명
	Y턴 협의화	1월 17일 6월 21일	2회	4명
자원 봉사 활동	어린이날, 환경의 날, 비록시장, 음악회도루미 차별원봉사활동, 자원봉사박람회	1-12월	6회	94명
전 국 만 화 공 모 권		4-5월	1회	96명
청 소 년 위 업 설 명 회		5월 6일	1회	350명
환 경 의 날 행 사		6월 3일	1회	200명
자 원 봉 사 자 대 회		7월 15일	1회	53명
청 소 년 음 악 회		8월 18일	1회	800명
또 래 상 담 원 교 육		9월-12월	6회	112명
미 래 의 여 성 지 도 비 개 발 프 로 그 램		10월 21일 10월 31일 11월 17-18	4회	130명
청 소 년 자 원 봉 사 박 람 회		12월 16일	1회	200명

4) 사회문제부

행 사 명		일 시	집 회 수	참 석 자 수
Y-턴	Y-턴 인준식	4/8, 15, 22, 29	4회	115명
	Y-턴 수업	매월 2-3회 토요일	8회	261명
	Y-턴 수업	매월 2-3회 토요일	8회	261명
	Y턴 협의회	1월 17일 6월 21일	2회	4명
자원 봉사 활동	어린이날, 환경의 날, 버룩시장, 음악회도우미 차병원봉사활동, 자원봉사박람회	1-12월	6회	94명
전 국 만 화 공 모 전		4-5월	1회	96명
청 소 년 취 업 선 명 회		5월 6일	1회	350명
환 경 의 날 행 사		6월 3일	1회	200명
자 원 봉 사 자 대 회		7월 15일	1회	53명
청 소 년 음 악 회		8월 18일	1회	800명
도 래 살 당 원 교 육		9월-12월	6회	112명
미 래 의 여 성 지 도 려 개 발 프 로 그 램		10월 21일 10월 31일 11월 17-18	4회	130명
청 소 년 자원봉사 박람회		12월 16일	1회	200명

소비자 상담실

① 고발내용

고발내용	합 계	1032
품질, 기증	556	
안전위생	34	
가격, 요금	12	
표시, 광고	0	
계약, 약관	197	
법령, 기준	121	
서비스	16	
기타, 정보	63	
임대차	5	
건의	0	
판매방법	18	
기타	10	

② 직업교육

교육명	일시	참석자수
간병인 교육	5.15-5.19 11.13-11.17	69
가사도우미 교육	1.17-1.20 3.6-3.10 6.12-6.14 8.28-8.30 12.11-12.13	154
산모도우미 교육	5.22-5.26 10.9-10.13	75
여성 자립의지강화프로그램	2000.4.10-5.19	60

③ 월례회 및 행사

교육명		집회수	참석자수
월 례 회	가사도우미	11	400
	산모도우미	11	220
	간병인	11	275
	출장요리사	11	55
두레회원의날		1	85
두레야유회		1	40

위 표에서 나타났듯이 YWCA에서는 주로 Y-teen 활동 및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소비자 보호활동 그리고 각 가정에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인, 요리사 등을 필요할 때에 파견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성남YWCA는 전국 YWCA운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성남지역에 필요한 특수한 봉사 프로그램을 및 지도자 육성 교육, 문화운동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원운동단체이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YWCA운동을 기독교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돼있는 단체이다. 분당의 아파트인구가 확대되면서 YWCA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내지는 여성운동에 앞으로 큰 역할이 기대된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운동에 대해서 YWCA라는 단체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1920~30년대 설립되면서 근대화과정에 큰 역할을 했던 YWCA운동을 조명하면서 시대를 뛰어넘어 성남지역의

YWCA운동을 고찰해 보았다.

시대마다 여성운동의 성격이 다르지만 YWCA운동은 기독교 이념의 사회화운동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변천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소 변화가 있지만 역사적 주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구가 많은 한국의 실정으로 볼때 성남지역에서도 교회여성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한, 회원운동단체로서 현재, 성남지역에서도 2000명이나 되는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성남지역의 YWCA운동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아직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 조직이나 활동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丁亮燮, 『韓國女性運動史』, 一朝閣, 1971.
2. 于和淑, 『韓國女性基督教社會運動史』, 母岳實學會叢書 第13輯, 혜안, 2000.
3. 趙東杰, 『1910년대 民族敎育과 그 評價의 問題』,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 연구』, 1989.
4.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1986.
5. 崔昌鉉, 『婦人運動』, 『靑年』, 1921.
6. 李德鳳, 『女子의 歷史的 觀察과 期將來』, 『靑年』 1-8, 1921.
7. 유연숙, 『부인과 사회 사업』, 『동아일보』 1921. 3. 20.
8. 金昶濟, 『現代와 女子의 使命』, 『靑年』 3-2, 1923.
9. 金昌錫, 『女子解放과 經濟自由』, 『靑年』 6-4, 1926.
10. 金執禮, 『婦人運動에 對한 史的考察』, 『靑年』, 6-4, 1926.
11. 金活蘭, 『朝鮮女子運動의 今後』, 『靑年』, 10-2, 1930.
- 『女子敎育에 留意하는 한사람으로서』, 『靑年』, 1927.

- 12. 『기독신보』 1926. 12. 1.
- 13. 『조선일보』 1924. 5. 7.
- 14. 『동아일보』 1924. 8. 31. / 1924. 9. 9. / 1925. 1. 26.

학고(鶴阜) 권오선 文士의 漢詩 연구

한 춘 섭*

<목차>

I. 머리글

1. 한시와 마지막 연대를 지켰던 성남의 문사
2. 오늘, 우리가 소중히 보존시켜야 할 실재

II. 본문

1. 학고의 생애 정리
2. 한시속에 나타난 작품세계
3. 향토문학 중인 〈관교기회회〉 한시 「시집」 고찰
4. 문사 권학고가 간직한 사상

III. 마무리 글

1. 발굴 자료가 갖는 의미
2. 성남에서의 과제

I. 머릿글

1. 漢詩의 마지막 年代를 지켰던 성남의 文士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재는 ‘城南市’라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았기에 역사는 끊긴 적이 없었다. 땅을 일궈 농사를 지으며 밤낮없이 웃고 울며 자식을 위해 땅 흘린 사람들이 수백년 아니,

*성남기능대학 국문학

수천년 이상 나무뿌리같이 주거생활을 영위한 농촌이었다.

사계절속에 비바람을 겪어가며, 여기저기 논밭 고랑을 밟은 선대들 중에는 각기 얼굴이 다르고 성품이 같지 않아 삼과 호미질로 평생을 지냈으나 사람에 따라서는 마소를 키우는 중에도 산과 들의 풍경을 노래한 이도 간혹 있었다. 낮엔 밭에서 김을 매고 산에 가서 뽕나무를 한다손치더라도 어두운 밤, 달밝은 밤엔 吟風弄月로 자신의 感情을 가락에 실은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디 노래 뿐이라. 의사 전달의 수단인 언어 가운데 문자 사용으로 심도 깊은 뜻을 격조 높게 창작한 이가 있었으니, 성남 땅의 지역 조건을 미루어 한낱 벽촌이었다고 함은 잘못된 추측인 것이다.

벽촌이었으며 손글 무딘 사람의 마을이 아니었고, 산야뿐이었으나 지배있는 이가 촌락마다 몇 사람씩은 살아 온 고장이었다.

성남시로 개발된 지 20년이 지난 뒤늦은 지금에 와서야 한가지씩 찾아 지는 향토사의 초석이 될 자료들을 매만지면서, 농경문화권 시절의 지난 역사들이 정말로 귀한 보석임을 감지한 필자는 지역적인 특수성 하나 때문에 그리고 관계자들의 부주의한 이유 탓으로 하마터면 영구 소멸될뻔한 향토 인물지의 재확인 작업은 천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벽촌의 골짜기와 들판에서 삶을 누리던 수많은 원주민 속에 하고 권오선(1900-1974)같은 이들은 발견된 <판교기로회>편의 『詩集』으로 보아 적지않았다. 아울러 성남개발 이전의 원주민 후손 즉, 출향 인사 활약으로 보더라도 이곳 성남 땅은 서울 가까운 지리적 여건말고도 각 분야에서 다른 고장에 뒤집이 없었던 손꼽히는 인물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은 격 불편한 시골이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후덕했고, 서울 중심지와 겨우 20km밖에 안되는 땅에 1960년대만 해도 고작 한행 시외버스 서너대로 군청 왕래마저 동떨어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조선시대에 名儒高官 묘소가 많았던 고장. 아울러 최근세 역사의 인물들이 제나 배출된 땅에서 문인 학자 및 사람썸이야 응당

살았음이 하등 이상할 리 없다고 본다.

이번에 발굴된 文士 권학고의 漢詩 수집 편과 그의 활동 모임이었던 〈판교기로회〉 동호인지 『시집』을 살필은 뜻밖에 향토사료 보충에 값진 성과라고 할 만 하다. 이같은 자료가 별로 없는 성남시 개발 이전 주민들의 역사를 꾸미기에는 더 없는 산 증거라고 보며, 우리 선대의 바로 서지 못한 향토사관을 보다 확실성있게 가꾸는 일련의 사업이야말로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

비밀어진 역사, 오인되어진 향토사에 큰 가르침으로 시정되어져야 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인간사 다양함의 분야 가운데 유독, 문학창작의 芻老 단체가 존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성남시의 개발이전 향토사는 흠대할 리 없는 예술적 고장의 뿌리가 이 고을, 저 마을 사람방과 동구 열 느티나무 아래에서 뻗어 왔다고 심증을 가져본다.

파묻힌 구슬을 찾아내어 씻고 살필은 그 토대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의의며,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보다 확증해 넘겨주는 '우리것'에 대한 애정의 숨소리를 경청함이 아닐까?

민 시대도 아닌 불과, 3~40여년 이전 선대의 고귀한 발자취를 느끼운 몸가짐으로 길이 보존시켜 봄이 훌륭한 민족의 긍지에 가까움으로 생각하며, 이 연구의 詩論을 남앞에 내놓기에 주저치 않는다.

학교 勸五藏 문사는 유별난 선비였다. 이미 死境을 헤매는 한자의 서문학 창작을 고집하면서 고향을 만천년 가깝게 가업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출생 터전에서 다시 자녀를 낳고 또, 자신의 배를 그 마을 앞산에 묻히기까지 언제나 생각의 일념은 오직, 한문시 창작으로 일생을 마친 것이다.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보지 않던 불운의 격동기에 서서 나 혼자만이라도 조상의 가보같은 한시짓기에 독보적인 행로를 밟은 외골수의 선비였었다. 한국의 문학사를 조금만 살펴더라도 그 문학 형태 자체가 이미 손잡이 떨어진 함치 박같은 골동품에 불과했던 漢詩형식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알아,

값고 다음은 이가 곧 학교 勸五樓 문사이지 않은가?

성남이 시골이라서 그에게 있어 세상물정을 몰라서 그러했는가 하면 그럴지는 않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현실감에 열중한 두뇌의 소유자요, 반듯한 성품을 지닌 활동성있는 선비였음을 후손 친척의 증언으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정신세계를 맴도는 오로지 한가지 생각, 그건 다름아닌 내 조상부터 대물린 값진 보배, 시 짓는 眞實性에 의탁한 생활 윤리로서의 신앙같은 자신과의 외침을 평생 지키고자 한 일관성의 흔들림없고자 한 발걸음이라고 보면 된다.

이 논표가 한 생애를 재조명하는 총체로 보긴 어렵다. 다만, 일관한 그의 예술세계를 중심으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발자취는 오래오래 빛을 남겼던 그의 정신적인 그림자를 후대의 사람들 앞에 알리는 데 일차적인 소임이 있음이 되는 점으로 보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 고장 원주민 생활권에서의 시 창작 사료로서는 더 큰 뜻이 담겨 있으며, 시대 여건이나 생활의 분위기로 보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다.

누구의 시킴도 아니었고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일도 아닌, 소일꺼리조차 되기 어려웠을 한문학 창작의 한 문을 두메 산골 한사람이 지켜, 한시 창작의 마지막 연대를 지킨 학교 권오선 성남의 문사 연구는 엉성한 향토사에 보충인 동시에 경기도 광주땅 애항활동에 있어 더없는 가치로 삼으려 한다. 특히, 학교의 인생관에 서려있는 인간적인 사랑과 시민으로서의 흔들림 없었던 사람 가르침의 윤리관은 이 시대의 혼란한 사회를 바로 하려는 우리에게 뚜렷한 가르침의 예언자적 언행일치라고 할 만하다.

학교의 한시 작품 몇 편을 통해 상전벽해의 대형 도시로 변모된 우리 성남시 개발 훨씬 전 세대의 값진 삶이 어떤 것이었나를 비교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 어떤 것인가를 검색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 과제로 남는다. 또한 富의 노예로 전락하고 자기 혼자만의 탐욕심에 이웃을 천시하는

잘못이 더 큰 소리 외치는 이 시대의 비뚤어진 우리에게 이와같은 조상의 산 목소리, 앞길을 열어주는 참 인간미의 삶이야말로 받들어 섬김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2. 오늘, 우리가 소중히 보존시켜야 할 실체

결국, 인위적 노력으로 파헤치고 길을 닦으면서 지어진 주먹다시 도시에서 발굴된 성남권 조상의 유산은 버려질 수 없다. 오순도순 했던 시골 마을 풍속이 사라졌고, 으스스한 산기슭아래 초가의 굴뚝, 산골짜기 도랑물 소리와 논밭 벼이삭, 콩포기는 온데간데없이 없어진 성남시 예전의 그 모습의 극히 일부가 이 시대에 드러났다는 건, 지극히 보존될 가치가 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 조상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산과 들의 그 땅은 예전 그대로인 것이다. 先代의 땅자국이 보이지 않을 뿐, 개발전이나 이후의 땅만은 어디로 갔을 리 없다. 그러할, 앞으로의 과제 또한 모든 분야가 모아지고 살피지어질이 보존시킬 문화 박물관 사업이 서둘러 지속되어야 함이 오늘의 우리 과제인 것이다.

성남땅이야말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인위적 형성 도시로 공인되면서부터 '뿌리가 없는 都市' 라든가 '愛郷心이 없는 도시'라 함도 남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지적일 뿐, 이 곳에서 자손만대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팔 걷어부치고 앞장서 애향문화 보존에 있어 뜨거운 가슴, 냉철한 두뇌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할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사람은 왜 사는가? 명리를 위하고, 한낱 물거품 같은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돌이켜 본다면, 인류문화의 긴 호흡만이 과거와 미래로 영속되는 것만이 가장 값진 가치성으로 판단할 일 아닌가?

우리 고장의 선조 문화유산을 바로 알아 보다 넓은 시선으로,

보다 바른 가치규명을 부여하는 역사관이 향토의 애정에서 얻어지
야 할 일이다. 내가 살아 갈 성남의 바른 인식이야말로 내 가정
의 혈통을 찾고, 내 이웃, 내 직장, 배우자의 신상명세서를 아는
일보다 더욱 값진 일이라고 본다.

파묻힌 크고 작은 역사문화의 실체를 찾고 익히는 궁극적인 목
적은 지난 날의 이해를 통해 현재 그리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
로 설계해 나갈 역량의 확인작업으로 보아, 이 지역의 선대가 참
출한 문화유산 실체를 검토 분석하여 그 가치를 규명함은 헛된 일
이 아니라고 믿는다.

연구 序說에서 제시하려는 문제는 개발이전과 이후의 지역문화
총체를 조감할 수 있는 공인단체가 설립되어 지속성있게 보존되고
연구되며, 가치있는 유산들에 있어 의미 부여가 되어져야겠다는
점,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극히 일부라도 가꿔 나가야 하겠다는
점, 향토문화박물관이 건립되어 성남 역사를 우리 생활안에 접근
시켜야 할 것을 제안하며,

本考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향토문인 權 鶴阜 文士의 문학자료
발굴을 계기로 성남땅의 인식은 새로워져야 할 일이다. 성남시
개발이전에는 산간 촌락에 농민 몇백 가구 정도가 살았던 그런 선
입전이 바뀌어야 하겠고, 적어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고유의 민속
놀이도 보존되면서 우리 한국인 공통의 갖가지 문화적인 활동들이
여러 부락 선비와 덕망있는 이들의 고집으로 꾸준히 전승되었다
는 사실을 재인식하여 주길 바란다.

향교와 사찰, 최초의 교육기관과 서당 같은 기관이 존재하였던
'漢山땅' 에서도 우리 고유의 풍속과 예술적 가무, 문학적 양식의
전수가 뿌리 내려 왔음을 재 확증하면서, 적어도 향토 문화의 꽃
씨는 바람따라 냇물따라 전해져왔고 또 앞으로도 전해질 것을 믿
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漢文學者이자 詩人으로서 충분한 소양을 지녔던 권오신 문사에 관하여 개략적인 삶, 시 작품의 분석 및 〈판교기로회〉同人誌 수록 작품들을 검토함에 있어 첫 삼을 대는 개간지 일꾼의 욕심이 없지 않다. 다만,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論究를 하여 그의 정신세계에 나타난 몇 가지 표본적 문제를 추려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평생동안 일관하고 있는 생활의 인간미, 문인으로서의 가열한 창작 태도를 조명하기에 힘쓸 뿐이다.

II. 본 문

1. 鶴皋의 생애정리

권 학교(權鶴皋)는 1900년 음력 10월 29일에 당시의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금도리 424번지에서 아버지 權植과 어머니 남원 尹氏 사이의 4남 1녀 중 큰 아드님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출생지는 이미 5백여 년 전부터 조상이 대를 이어 살았던 곳이다. 안동 權氏 安襄公派의 18대 선조부터 은거하여 38세 현 후대를 자리잡게 되기까지 賜牌之 고을에서 태어난 학교 文士는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즐겼다고 전한다.

5세부터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며 天性이 과묵하고 영민하여 지나친 언동이 없이 언제나 침착한 말로 마을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았던 유년기를 보낸 이였다.

先親(영식.1872-1930)이 학교의 성품을 키웠으며, 학문을 익힌 후에는 권씨 분증의 賜村(1352-1409) 대학자 著述에 나타난 사상과 학문에 큰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 尹氏(1870-1930)로 인하여 유복하지 못한 살림이나마 漢學을 배워나가기에 부족지 않았던 鶴皋의 글공부는 뜻대로 계속되

지 못했다. 아버지의 잦은 와병으로 인하여 家勢가 극빈하므로써 청소년시절의 공부는 오로지 독학만이 전부였다. 그러므로 학교는 書堂의 기초 한학외에 별다른 배움을 체득하지 못한 채 당시의 慣習대로 결혼을 하게 된다.

13세 어린 나이에 한산 李氏(1897-1976)와 혼인하여 長男으로서 가계를 이어 나가며 물려받은 유산없이 집안을 꾸려 나가는 게 쉽지않아, 결혼 이후의 살림살이 걱정이 컸다고 한다. 그런 중에도 틈틈이 붓을 들어 『사서오경』과 『명심보감』, 『詩經』 속의 명문을 쓰면서 자기 심정을 글로짓는 詩習과정을 거쳤다.

어느 사이에 학교의 슬하에도 자녀 출생을 하기에 이른다. 장자 赫燦(1920-), 차남 赫世(1927-), 삼남 赫紋(1929-), 사남 赫武(1934-) 등 아들 넷을 두었던 鶴華 先生은 태어나면서 자질이 단아하고 글 공부에 소홀함이 없어 밤엔 어김없이 붓을 가까이하며 시 짓기와 名文佳句 암송으로 자신의 素養을 쌓기에 소홀함이 없었던 이다. 한편, 한 집안의 가장역할을 해야했던 그는 자녀 훈도에도 엄격하므로써 뜻을 크게 가져야 함과 언행일치를 위해 修養에 힘쓸 것을 항상 자녀 앞에서 강조한 어른이었다.

나이 30에 이르자 兩親이 모두 별세하므로 그가 집안을 이끌기는 벅찼다. 그러나 학교 선생은 근면했고 교육열이 남달라서 네 아들을 모두 적과 가까이 하도록 자녀 훈육에 정성을 바쳤던 것 같다. 자신 또한 밤낮없이 쉬지않아 가정살림을 늘리고 어릴 때부터의 취향을 위해 꾸준한 독서생활을 전업처럼 익혀 나갔다. 아울러, 안동권씨 門衆社까지 직접 관여하는 열성을 보여 퇴락해가는 집안의 제실보수 작업과 講學 정리에 심혈을 경주하기도 했던 식견을 지녔었다. 학교는 이에 그치지 않아 금포리 내동 마을의 부락일에도 발벗고 나서 公私 일 처리까지 반듯하게 처리하는 고장 어른의 위치를 차지하고 틈틈이 문중에 소요되는 전담을 알 잘서서 마련하였던 이다. 아울러 先代 양촌 權近 선생의 父集 전 40권 속의 방대한 제반 문장에 탐닉되면서 특히, 詩歌類와 『입학도설』이란 유학사상에 눈 돌려 많은 시간동안 그 문집속의 선조

음성을 경청하며 몸소 이를 뒤따르고자 한 듯 보인다.

그는 늘 외로운 사색과 깊은 성찰로 시대를 외면한 학문의 바른 길, 인생의 바른 태도에 자신을 몰입하려 하였고, 시문장 창작에 심오한 경지를 체득하여 스스로 삶을 自足시키려 한 변모가 엿보인다. 평생 동안의 발자취가 한시 문학 창작이외에는 전혀 그 어떤名利에 눈길을 돌리자 않아, 시대에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이를 석자가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과의 뇌, 연찬, 유학자 혼도에는 한줄기 빛을 남겨 놓은 이가 아닐 수 없다.



시대는 암담하였고 자신이 처한 환경어전은 지극히 험난하다고 볼 상황을 뛰어넘어, 주권 잃은 식민지 백성의 울분을 새겨, 옛 조상의 귀한 손짓과 음성 알아듣기에 성실로 살다간 이었다. 자신은 물론, 네 아들의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며 일제의 눈초리를 받아 손발이 묶인 처지에 서기까지 그의 민족 삼리는 강인하였었다. 마침내 일본 순사들의 굴레를 이기려고 이룰 수 없는 긴 동치의 세월을 눈 감

고, 입 다문 상태로 살았던 학교는 관교금융조합(현 농협 전신) 부락 대의원 소임을 타의 추천으로 맡았고, 해방 직후 자녀의 교육에 전심하며 늘, '강한 의지로 희망을 가져라', '땀흘리는 기쁨속에 이웃을 생각하거라'를 힘주어 훈계하였다고 전한다.

효도와 친척간의 우애가 남달랐으며, 마을내의 대소 길흉사에 있어 뒷자리에서 손짓하는 어른으로 무엇보다 지조를 제일로 삼고 자 예쁜 학자다운 문인이었다. 젊어서부터 독실한 學業에 힘입어 새삼살이에 평관이 자자한 가운데 鄕里의 못 청소년 교화에도 언제나 추앙받는 어른위치에 섰던 한학자 문인이었다.

학교선생이 살았던 시절의 나라 사정은 주지하다시피 엄청난 고

동과 궁핍의 연속이었다. 사나운 비바람도 비교가 안될만큼 소용돌이 치는 역경이 국민의 목숨을 겨냥했다. 크고 작은 사건이 줄을 이어 오늘과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필박 민족의 하루생활이란 것이 크게 소중할 리 없던 시절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송두리째 사라진 암담한 어둠뿐인 시대의 청년기를 살아 온 그의 사상에는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고뇌가 더 심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할까도 갈피잡기 힘겨운 시대상황이었다. 하므로, 학교의 내면에 자리한 인생길이란 한낱 버리지에게나 가해지는 필박이 서슬퍼렇게 예서체서 나타나는 때를 힘겹게 지낸 백성 한 사람이었다. 가업이 농업이었던 향촌에서 세 끼니조차 거르기 일쑤였던 어려운 시절에 식솔의 살림 꾸리기란 큰 고통이었고, 식자층이 참아야하는 일제의 야만성앞에 분노는 컸으리라. 그러나, 학교는 오로지 한 생애를 지탱하는 길이란 것을 높고 귀한 것에서 구하지 않았다. 옛 조상의 말씀에 따라 효행과 덕행의 생활실천을 표본으로 삼은 가운데 자신의 궁극적인 한시문학 최고 수준에 이르려는 소박한 선비풍을 그리며 전 생애를 마치려 다짐한 이었다.

해방이 되고 1950년의 한국땅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학교의 뇌리에 새긴 희망은 다시 큰 수렁을 던게 되었다. 각고로 체득한 학문과 삶의 윤리, 힘겹게 마련한 시 창작 기법이 더욱 햇빛 아래 어저 시대는 날로 자신을 퇴락한 村老로 밖에 인정해 주질 않는 큰 변화의 조짐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한문서당을 차려 이웃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던 그의 처신이 자못 시대에 뒤쳐진 구학문밖에 별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서구사회의 새로운 문명과 신 사조가 판을 치던 시대앞에서 억지로 옛 시절을 노래한다는 게 헛수고 같기만 했다. 손자를 앞에 놓고 심중한 대화를 주고받고 싶었으나 이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허함의 이야기일 뿐이다. 영어가 판을 치고, 기술 과학 문명이 물밀 듯이 밀어 닥치는 시대앞에서 도저히 학교의 한시창작과 한문학 연구는 묘수가 나질 않아 보였다. 자상하고 근점절약한 아내와도 별 심통한 자기만족.

평생 익힌 학자다운 시 창작으로 멋진 시품을 낳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교선생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는 이웃 벗과 선배들과 함께 어느날 漢詩同好會 조직을 하기에 이른다.

몸은 이미 반백년의 백발을 나게 하였고, 눈과 귀가 노경의 경조를 나타내는 때에 향리의 한 주막집에서 토론하고 벗하며 취향이 비슷한 노인들끼리 어울려 이름하여 〈板橋耆老會〉라는 漢詩創作同好會를 1960년 초에 結成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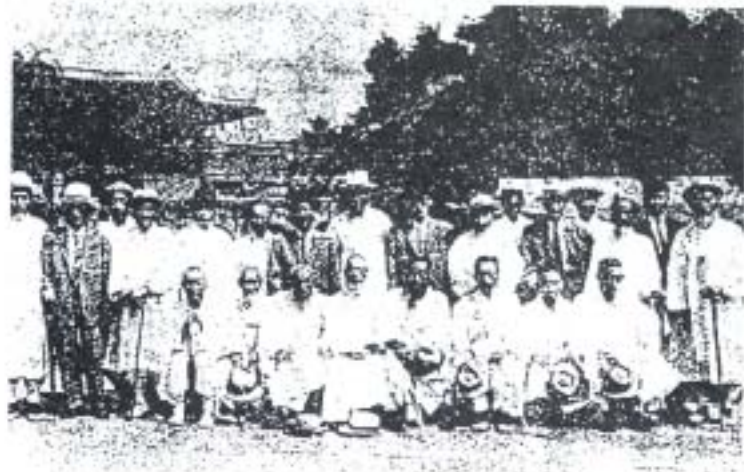
젊었을 때부터 익힌 시 짓기 습관이 뒤늦은 나이에 와서 함께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자리를 한판 마련한 셈이 되었다.

“내 생전에 예전처럼 과거시험 한 번쯤 보았더라면 좋겠다.”

임버릇처럼 하었다는 그의 한시 창작 수준은 전국권에 들어 각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했던 한시 지상 백일장에 여러차례 입상되었던 鶴阜 문사는 판교기로회의 실질적인 주도자 한사람으로서 남다른 행적을 남기고 떠났다. 상남시 이전의 광주군 대왕면 한 마을의 고집스런 문인 송씨에 의해 1965-66년 경의 詩會 창작 결실은 이 지방을 단연 으뜸되는 文士의 고장으로 추켜세우기에 손색이 없는 장본인이 되기에 이른다.

『詩集』이란 1967년도 7월 25일 발행의 160면 詞華集을 남겨 놓은 학교는 그 뒤에 고혈압으로 와병에 들어 노후의 끝자리를 괴로움으로 놓고 만다. 노쇠함의 병 중에서도 한시 창작과 옛 서적의 살핍은 쉬지 않은 채 선영 묘관리와 애써 마련한 약간의 家財를 후대로 잘 넘겨야 한다는 기억을 더듬었다. 여러 友友로부터 오는 서찰 회신과 紙上 詩 白日場을 쟁겨 보내 시 읊조리기와 술 마시고 歡談 나누는 일의 경지를 언제나 즐겼던 학교의 여생은 병마로 시달렸다. 6년 가까운 동안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아끼고 간수한 수십권의 전적을 머리맡에 둔 채, 1974년 음력 4월 3일 그의 생애는 8순 아래 멈추고 말았다. 슬하에 4형제를 뿔뿔하게 성장시

킨 아버지로서 또는 향토문인의 한학자 한자리를 세상에 비워두고 떠났다.



아무도 그의 소중한 위치를 확증시켜 주지 않아 나뉘대로 짓고 발표한 몇권의 시집만을 자손앞에 남긴 채 그의 유택은 또 선대 밀자리에 영면한 셈이다. 학교의 네 자식은 한결같이 선친의 못 못했던 성격과 성실하게 살았던 생존의 모습을 이구동성으로 진술하고 있다. 큰 아들 혁찬(1921-)은 정성직업학교 졸업후에 향리에서 海公 신익희 선생의 정치생활을 도왔던 경력이 있다. 둘째 아들 혁세(1927-)는 동국대학교를 거쳐 교육계에 있었으며, 셋째 혁문(1929-)은 육군대령 예편의 군인생활을 거친 이고, 넷째 학무(1934-)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한중석(주) 연구실장 역임의 공적에 몸담은 적이 있다. 이로써 학교 선생의 자녀 훈도와 교육열의는 누구에 뒤지지 않아 남으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집안을 이끈 셈이다. 특히, 첨가할 이야기는 학교의 쌍둥이 아우 權五衡(아호 獵岩) 선생도 형 학교와 함께 시 창작 활동에 동참하여 『시집』 동호인지에 같이 작품이 게재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율타리를 함께 한 이웃에 살며 절친한 벗이요, 門客으로서 손발을 맞춰 나간 우애를 짐작케 한다. 이들 형제외에 또 한사람이 한시

를 창작하는 데 동참한 형제가 있으니 다름아닌 사촌 형 五奎씨로 1년 연상의 연령차를 빼고는 세 형제가 더불어 시 짓고 농촌생활에 함께 몰입한 동문수학의 친구 같다고 보여진다.

2. 漢詩속에 나타는 작품세계

권하고 文士의 작품은 상당량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양은 많지 않아 활자 속에 전해지는 글 중에 몇 편을 뽑아 시 속에 나타난 정신세계를 찾으려 한다.

『시집』(판고기로회) 안에 남긴 22편의 작품 외에는 『海東詩叢』, 『지상음단시집』, 『예문원시집』, 『원풍시집』, 『영가시집』, 『강남시집』 등에 몇 편씩 산재해 있을 뿐이다. 후손의 회고담에 의하면 삼형제 합동시집을 발간하려고 쌍둥이 아우 권오형 文士가 필사본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료가 보이지 않아 근거가 희박하다. 여하간, 권하고의 한시는 현존 수량으로 40여편을 넘지 않는다. 작자 死後에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으로 보아 아쉬움이 없지 않을 따름이다. 다만, 이만큼의 양만으로도 총체적인 시 세계를 검토하기엔 어느 정도의 신인정신을 규명할 만하여 이 중에 극히 선별한 작품으로 문학성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野色納涼深翠濃	들녘 서늘함이 들어 비취색 더욱 깊고,
一般烟雨帶秋容	이런 이슬비는 가을빛 어려있다.
秀光玉露垂庭竹	빛고운 이슬방울 정원대에 걸려있어
清響金風入潤松	맑은 바람 윤기물은 솔향내 풍겨라.
繼夜課童親燭近	밤새워 책읽는 아이 촛불 가까이

備寒寒老着衣重 서늘함으로 덧입은 노인옷이 무거운데
西成竟達時方熟 가을추수 때가 되어 더욱 계절 익으면
傾喜多豐樂歲達 풍년의 기쁨을 다시 더해 즐거우리.

- 시제 : '納경' (『紙上今壇 詩集』, 1971. 9)

이 작품이 발표된 해는 학교의 병고 속에 있을 시기다. 그의 모든 작품들이 한결같이 전원의 한쪽 산수화¹⁾를 연상케 하고 있다. 생활 주변의 제재로 꾸며진 시 언어가 오랜 숙련을 거친 글 솜씨이므로 구절마다 농도 짙은 감각을 느낄 만 하다.

서울 성북동 소재의 心性情연구대학원이란 단체에서 3차례에 걸친 공모작품 심사로 뽑힌 작품만을 한 책으로 발간한 중에 해당한다. 3차례 때마다 학교 문사의 작품은 佳作²⁾로 입상되어 수록되고 있다. 1회에 '도의정신 양양', 2회에 인용작품, 3회에는 '漢陽秋色'이 뽑혀 3편이 한권의 시선집에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이 시집은 서문과 考試後感까지 실려있으며, 고시위원으로 金永琯, 宋朝彬 두 사람의 평단이 게재되어져 있다.

7언율시로 지은 글 속에는 황금빛 가을 농촌의 풍취가 한껏 표현되어 있다. 이슬, 바람, 소나무, 대나무가 정감있게 안배된 초가를 지붕 아래의 주위 경치가 작자의 나이 늙어짐을 더 한층 우울케 만들어 놓았던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풍년 든 벼 이삭의 마음 흐릿함도 더불어 잠재되어 기억없어지는 자신의 현실감에 비례 아이는 적어도 밤을 새워 책을 읽어 나간다는 가을의 독서 모습이 걸드려지고 있음은 자연순응의 정신세계를 찾을 만 하다.

제목에 맞는 시 구성과 표현의 진실성, 老境의 시력으로 살피는 자연순리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적당히 흥행³⁾ 감정을 대조시킴은 독자의 연령이 얼마이던지 모두에게 시 읽는 기쁨을 넘겨주는 안도감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보겠다.

경쾌하지 않으면서 사색의 길목을 찾아보게 하는 서정시로서의 열매를 손에 넣어 자유자재로 언어와 字句를 선택하는 수완이 뛰

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원래, 문학의 예술행위란 자기도취에 빠져서는 크게 성공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감할 만큼의 사상도 있어야 하겠으며, 가슴에 어리는 명봉한 무지개빛 울렁임도 독자편에 과장으로 건네야 하기 때문에 말장난 같은 잔재주 하나에 창작 수법을 누리다가면 그 밭걸음은 오래지 않아 여독에 지칠 것이고, 곧이어 포기하지 않으면 수모를 당하는 궤배가 뒤따르기 일쑤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의 漢詩 作品은 은근한 향기를 풍겨내는 농익은 과일맛으로 평을 받아 마땅하리라 믿는다. 다음 인용작은 특히, 주목할 작품에 해당한다.

儼然祠宇立城東	장엄한 사당이 성동에 서니
瞻慕執人無感通	바라보아 느껴움에 그 누군들 감동치 않으리
神道向超今世俗	신같은 큰 길, 이 세상 뛰어넘어
名聲永繼舊家風	그 이름 가풍따라 길이 이어지리라.
一身將舉民皆服	한 몸의 장거야 만백성 뒤따르리
百世芳流史未空	진 세월 두고두고 역사에 빛날 이름
回想群賢誠意大	못 성현 돌아보아 큰 뜻 우러르며
滿心多賀不當中	가득찬 속연말 말로는 다 못 이끄리다.

- 『梅軒 윤봉길 의사 忠義祠 창건기념 詩集』 1968.11

역사에도 길이 남을 윤봉길 義士 사당 제막식 기념으로 公募했던 한시 백일장에서의 가작이다. 68년 4월 29일에 가진 사당 준공식 이후 마련한 축하기념 행사에 응모한 학교의 작품이 또 한차례 佳作 수준을 인정받아 문집안에 수록되어 전한다.

鶴阜 권오선 문사는 당연히 향포의 일개 한시 詩人이 아닌 전국적 수준의 公人의 文士인 것이다. 황주의 청계산 기슭에서 몸을 닦고, 정신을 모아 한 구 또 한 구의 운물을 다듬는 향포문인이 아닌 진정, 중앙의 무대에 설 실력있었던 한학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자부하지도 않고 한편, 여기저기 드러내지도 않은 은거의 낙향 선비인 양 오로지 분수 이외의 처신을 행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저세에 급급해 본 적이 없었던 이었다.

수 많은 典籍속에 파묻힌 채 밖으로의 외침을 마다하고 안으로의 열매 익히는 참 선비기질을 노경에 이르도록 바꾸지 않았다고 보겠다.

한국사의 동태한 남아적 큰 뜻을 몰소 실천해 보인 梅軒의 늙은 기개를 추모한 시로서 격식이 충일하다. 어디 헛된 언어가 끼어들 리 없으며, 詩想이 난잡치 않아 옷깃 여미는 참배객의 심장 위에 한 토막 애국충절을 되새겨봄 적도 하다.

굳이 어려운 자구가 동원되지 않았으면서 句末의 압운이 어색할 리 없어 웅만한 通用한자만 아는 어린이라도 전편의 뜻 전달은 능히 감지될 名作수준이 아닌가? 요는, 학교의 시 세계는 자못 독학자의 작품치고는 감탄의 그 이상이다. 그 어떤 스승도 곁에 문적 없이 문갑의 붓 몇 자루와 베투 하나, 『時傳謄解』와 『시전대전』 독학서만으로 한시를 창작했다는 숭세를 나는 높이 평가할 따름이다. 윤봉길(1908-1932) 義士가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극렬히 반대하여 1932년 4월 29일 중국 上海 홍콩 공원에서 당시 나이 25세에 大舉事를 일으켜 일본 사령관 시라카와 기류민단장 가와바타를 즉사케 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학교 문사는 땀방울이 아우 권오형과 동참하여 작품이 실려졌다. 한국인이면 조국 광복의 시기를 앞당겨 보고자 염원하며 항일 정신이 충일하였고, 이 같은 梅軒의 애국적 열사봉공 정신을 기리는 한시 公葬에 나선 것 같다.

구절 가운데 특히, 首聯이후 尾聯에 담긴 추모의 정과 성현을 頌德하는 뜻이 밝혀있다. 애국자 매헌의 殺身成仁 큰 일이 어디 학교의 마음뿐이라마는 민족사의 후대인에게 時片 안에서라도 뜨거운 가슴을 꺼지지 않게 하려는 장거 추모시로서 창작의지가 서려있다.

다음 인용작품은 전국권의 한시 창작문인들이 습席한 5백여 명의 時調 華集인 『海東時叢』 첫째권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다.

恒娥長壽幾存秋	항아 미인 기인 생명 옥토끼와 노닐어라
物外相從玉兔游	
嚙向瓊樓輪彩轉	여러번 누각편에 수레타고 찾아가는
每臨銀漢鏡光流	언제고 은하수 길로 밝은 빛이 흐른다.
我雖衰老豈無愛	나 비록 늙을망정 어찌 사랑 스러지며
君亦美人豈有愁	그대 미인인저. 노를 저어 달을 쫓는
頃名客航望月國	꽃다운 항아 이름이 알려짐에 두렵네라.
芳名若恐世間收	

- 시제 : '恒娥' (『해동시총』 乾. 1970.9)

위의 詩는 전국권을 망라한 反手製本 발행의 책안에 있는 작품이다. 상하권(乾坤) 총 530쪽이나 되는 이 시선집은 그 체제가 완벽하다. 1970년 (4303) 9월 10일, 江南詩社(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244, 남산인쇄소)에서 전국 한시학자 작품을 모아 각 1면에 한 사람씩 배치시켜 사진, 주소, 관향, 아호, 성명, 생년(나이)을 명기한 채 누구나 두편의 대표작품을 게재한 한시작품 선집이다. 세로 21×가로 14 센티미터인 선집의 표지가 녹색바탕이고 별도 冊名을 새긴 別紙色은 紅色으로 최근의 서적과는 꾸밈이 달라 고층스러운 인상을 준다. 두권 모두 제본이 나일론끈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한시의 시집임을 알케한 감각이 돋보여진다.

恒娥란 달나라에 산다는 선녀를 뜻하며 그의 남편이 불사약을 훔쳐 달아났다는 전설속의 예 아내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곧, 달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옛 시인의 글귀에 수없이 등장하는 항아는 다름아닌 밝은 보름달을 완성함에서 붙여진 글 제목일 것이다. 빈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간에게서 하늘과 물, 구름과 새들은 곧잘 시인의 정신적인 도피처임에 틀림없다. 바라봐도 바라봐도 깊은 의문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던 달 정복 이전의 달나라는 동심의 궁금증이 너무나 많아 과학문명 이전의 예전 문장에서 전설까지 만들어 놓았다. 하늘나라와 인간세상, 여기에는 절대적

인 대조가 常存하기 마련이다. 무한한 흰빛 하늘에의 영원성과 유한할 수 밖에 없는 희비애환속의 세상사를 살피며, 작품 후반에 이어지는 늙어짐과 근심중에도 꿈속에 마련된 꽃다운 저 세상의 만남이 어찌 작자에게 사람을 억눌러 버리랴? 무에서의 상상해가는 화열과 두려움이야말로 항상, 그리워하고 외로움으로 반추하는 모든 인간의 버릇인 점이다.

굳이 한시 창작만을 고집하며 살던 학고와 그의 아우에게 있어 『해동시총』 발간과 詩社 결성은 더 없는 기쁨이었다. 그러므로 두 형제는 함께 발간에 동참하여 작품을 실었다. 鶴岩 權五衡의 작품으로 '古木', '聞鷺' 도 별도 실릴 기회를 마련해야 할 일이다. 이 선집의 詩風은 각기 다양하다. 521명의 작품 1천 편이 굳이 글의 신맛과 후추의 매운맛을 두루 알 수 있다고 序文에서 말하듯이 옥석이 없지 않을 것이나, 학고의 시 세계는 물론, 그 아우의 작품은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작품이다.

서구의 새바람에 밀려나기 시작한 漢詩 문화권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던 중에 극처방을 찾아 나선 일로 시선집이 만들어졌다. 『해동시총』 序에서

그래도 우리같은 무리들이 어떻게 강건너 언덕의 불 보듯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바로 잡아 구할 제책이 있다면 응당 그 極處까지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온문한 궁색한 늙은이들은 낡은 저물고 길은 먼데다 시대에 역행하는 격이라, 비록 수를 쓴들 성취 가능성이 있겠는가? 단지,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한탄 뿐이다. (中略) 이로 보건대 우리 동지들이 진실로 일치단 결해서 옛것을 잊고 앞날을 여는데 종사한다면, 추락한 남은 실마리를 보존하여 뒤의 군자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돌아봄에 우리 동지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어 비록 시고로서 그 성명을 서로 통할 수 있지만 꼭 보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아 늘 한스러웠다.

다행스럽게도 동지중에 한 좋은 방안을 내어 놓았다. 각기 평소 지은 것으로 마음을 모은 시 한두편을 뜻에 따라 투고하여 2

책을 만들고 그 곁에 아울러 사진을 싣고 책을 분책해서 인쇄하였다. 각자 책상머리에 두고 조석으로 감상하여 시를 봄에 그 속의 마음을 알만하고 사진을 보며 면모를 알 수 있어 마치, 집안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듯 한지라, 여러 가지로 친목의 자신이 될뿐 아니라, 뒷날 대를 잇는 가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비록 한때의 우발적인 생각으로 된 일이나 오래전에도 없었던 좋은 일이니 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 靑松 沈宜昭 서문, 4面 -

서문으로 보아 학교의 시작품도 스스로 잠원 하시를 뽑아 넣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선집이야말로 현대사에 소외되어진 한문학 시기를 극복해 준 힘겨운 책이라고 본다.

학교는 '황아' 외에 '端宗哀史' 7언律詩를 게재시켰다. 그의 이 두 작품은 이미 『예문원시집』 1970년도 판에 발표되었던 글로서 전체의 작품에서 풍기는 고상함과 부드러운 詩意가 시작자의 인간미를 대변해 주고 있다. 역사의 인물을 대하면 충성과 慨擧가 우러나오고, 자연의 대상앞에 서면 온순과 화다, 늙음에의 허무와 隱逸이 숨쉬는 글로 예전 그대로의 선비다운 학자 인품을 풍기는 글귀를 만든 문사였음을 알만하다.

인용한 작품외에 '서夕', '菊花', '綠陰', '漢陽秋色' 등이 散見되며, 그가 동참한 <관교기회회 『詩集』에 수록된 20여편의 작품을 읽었다면 전원적인 삶 안에서 우러나온 진실하고 화락한 서정시를 지었던 이다. 흥취가 밀면 붓을 들어 노래하고, 취흥 결들면 또 한줄의 글귀를 벗과 토론하여 詩道 걸기를 학문하듯 한 이었다.

『강남시집』에 발표된 '秋聲', '早春', '春雨', '新廬', '菊花'등 일련의 작품들이 상당한 품격을 지닌 부드러운 듯 온화한 글이며, 서정을 바탕을 자리하였으나 그의 시 정신은 항시 선비의 덕과 고상한 성격을 함께하려는 모습이 지배적이라고 보겠다. 향토 上林 賦 기질을 지닌 생애 중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鄉村 선비이면서 철두철미했던 인생관이 늘 그에게 고급 풍류의 향수자로

자리하게 한 것 같다.

순반하면서 고상한 멋의 한시구절을 뽑아 내며, 학문의 깊이를 천착하려 든 鶴阜의 예술정신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던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3. 郷土文學 同人〈판교기로회〉漢詩 『詩集』 고찰

이미 앞에서 말한대로 우리의 향토사를 아끼고 살피는 일은 보다 확실한 과거를 통해 현재로 이어질 미래에의 사랑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자신감을 줄 기쁨의 마련과 숨쉬는 내 고향의 흙냄새를 바로 인식시킬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성남 옛 땀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일이야말로 잠재한 역사현장을 우리에게 의해 더 아껴 나갈 주인정신이고, 모자라는 땅이 아니었다는 실재의 접근작업이다. 이같은 일은 멈출수 없는 향토사의 확신이라고 믿는다.

예전부터 높고 낮은 선조들의 藝所가 산줄기마다 유독 많았던 성남, 사방 어딜 보아도 산수가 빼어나 못 선비와 학자들의 隱逸處 최적지였던 성남에서 특히, 현 창계산과 주장산 아래엔 마을마다 몇 사람씩의 선비가 살다 간 흔적이 우리의 옛 廣州땅 모습이다. 더구나 樂生이나 大旺 부근은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군사시설과 교통의 通門이듯이 과거 역사에서도 三南지방과 서울 首都를 연결하는 '길목'의 하나로서 성남지방에서는 가장 일찍 開明된 마을이었다.

그러므로 板橋지방 일개 마을에서의 문학 同好會 창립은 어쩌면 당연한 지역적 조건에 어울리는 일이었다고 본다. 인근 그 어디에 살던지 나름대로 자부심을 살렸던 한산 李씨, 청주 韓씨, 의령 南씨, 안동 權씨, 진주 姜씨 등의 집성촌 代 이름이 특출났던 지역에서 그 가문 중에 몇 선비지식층 文士들 結社는 크게 어려울 리 없었다고 본다. 우리의 지방지〈도시신문〉제171호('93. 7. 5) 지상을 통해 새 소식으로 발표된 기사 제목.

원주민 문학활동 자료
 漢詩작품 5백편 발굴
 성남시 개발이전의 <판교기교회>
 권오선 중심의 詩人들 모임 확인

문학인 사회에서 아니, 성남의 문화계에서의 때늦은 자료발굴이 아닐 수 없다.

이 모임에서 활동한 결과의 작품을 모아 엮은 시선집 『시집』에 관한 畵誌的 소개를 하자면, 시집 겉면은 흑색바탕이고 별지 책명을 붙인 종이는 백색으로 순 한문본 反手製品의 고서 모양이다. 세로 26×가로 19 센티미터 규격이며, 총 160면에 목차는 표지 안 간지의 내표지에 2명 사진(당시 국회의원 李元永, 광주군수 李圭善), 간지에 이어 전면 사진(同人들 24명) 1장, 正誤表, 판교기교회집 序, 跡, 판교기교회會記에 연이어 기교회 名單 66명 그리고, 11면부터 제1회 '饒春雅韻'(乙巳 3월 20일)을 필두로 제18회까지의 시, 그 외 5차례에 걸친 탐방기행기 등이 묶여져 있다. 전체 작품은 574편이고 활동의 연대는 1965년(乙巳)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회원작품을 차례대로 모은 책이다.

회원수는 66명으로 登載되어 있으나 모임에 열성을 보인 사람은 30명 안팎이었다. 매회 수록된 시가 2-30편 내외인 점으로 미루어 월례회 참석회원이 그 정도였던 것이다.

漢詩의 格律에 의해 매회 시를 창작하는 요령이 일정한 押韻子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공동 창작이 되면서 술도 마시고 깊이있는 토론과 일상사 대화를 교환한 품위높은 회합이었던 점을 찾을 수 있다. 첫회부터 시제도 붙여두어, 饒春雅韻(봄이 감을 서운하게 여겨 술, 음식을 차려 놓고 고상한 詩藝를 짓기), 녹음아운, 판교아운, 佳韻, 하산운리, 아운, 아운 및 수원訪수류정 雅韻, 화성訪화류정운, 충렬서원아운 등의 제목이 있었다. 매회 제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압운자만 정한 상태에서 정자와 음식점, 회원의 가정집

사랑방에 옮겨 다니며, 6순을 넘은 老境의 文士 2-30인은 열심히 한시창작에 서로서로 격려와 질책으로 그 창작수준을 높혀 나갔던 것이다.

회원의 분포를 보면 廣州郡 낙생면 25명, 대왕면 7명, 용인군 13명, 기타 들마면과 시흥군, 서울지역으로 주소를 적고 있다. 연령 분포도 60이살 90에 이르는 老人會 성격을 띤 덕과 풍모를 갖춘 이들의 단체였음이 서. 발문에 비치고 있다.

시집 서문을 쓴 鄭元和(호 雲雨)는,

(前略) 이미 늙었지만 싫어하고 게을러 할 뜻이 없고 홀로 고루함을 혐오하니, 여러 사람이 그들의 착함에 도움됨을 보고 이 모임을 구성함에 멀리 가까워서 많은 선비가 즐거움으로 회원되기를 바랐다. 돌이켜 보건대, 오늘날의 세상은 상하질서가 문란하며 제 자기 이익만을 쫓고, 공적만을 생각한다. 이러한 시절에 이런 모임을 결성한 것은 예전 말대로 이른바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 한 말과 같음이다.

덕을 함양하고 심성을 계발함은 오로지 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 시를 서로 주고받으며 읊조려 달달한 마음을 널리 드리내며 온화한 기운을 잘 다스리는 중에 술잔을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음이 아닌가? (中略) 내가 이 모임의 훌륭한 사람들 끝자리에 앉아 교배를 하므로써 나의 도를 굳게 함이 두터워졌으며, 부지런하기까지 되었다. 더욱이 雲翁(회장 이억령을 지칭)의 깨끗하고 고요하고 빛나는 덕과 큰 풍채를 대해서는 스스로 부러움과 감탄을 이기지 못하여 지극할 뿐이다.

라고 당시의 판교기로회 창립 경위를 밝히고 있다. 뒤이어 게재된 ‘板橋耆老會記’ 중에서 더 소상한 경위를 살펴보자.

(前略) 을사년(1965) 늦봄, 雲下(이억령) 이 때에 느낌이 있

이 詩會를 일으켰으니, 좋은 나무가 빼어남에 무성한 녹음을 이루는 격이요, 그의 미덕은 들의 풀이 향기를 풍기는 듯 하니, 꽃을 찾고 버들을 쫓음에 가까운 고을의 여러 노인들이 어찌 유람을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나 역시, 그의 뒤를 따랐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몇 사람과 의논하여 이 기로회는 만들어졌다. 회원은 용인과 광주의 경계선 인근 여러 노인들로 60이상 70인데, 80과 90에 까지도 이르러 고금을 두고 좋은 일로 되었다. (中略) 매월 1회 상봉함에 형간고 아우같은 데서 서로 기뻐 웃고 즐기며 험담 없으니 이 어찌 賢人君子 가깝지 않으랴!

이 모임의 장소는 낙생면 판교리 시장 요리점이고 참석자는 월 30여 명이었다. 1인당 회비 1백원에 고정시켜 소액이지만 청주, 탁주에 바다육지와 진미스런 안주가 곁들여졌으며 점심 또한 국밥이 극진했으며 세 차례 술 자리로 종일 취하여 즐겁게 귀가를 잊어 저녁이 되어서야 각자 흩어지는 흥취가 있었다. 산 언덕을 넘으면서 즐거움은

‘떨어지는 꽃 적적하고 산새는 지저귄다.’

‘버들은 푸르는데 물 건너는 사람.’

들의 식귀를 부르곤 했다.

이처럼 수차례의 회합에서 장소는 여러 사람 의견을 따라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정이 생기면 예정된 압문자는 시기 적절히 바뀌 불렀다. 모임 일시조차 여러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좋은 날로 정해 가며 이끌어 졌다. - 적역 : 김인화

인용된 문장으로써 <판교기로회>의 창립 이면 이야기를 알 만하다. 시간은 적지 않게 가버린 시기의 내력이나 오늘의 각 분야별 同好會와 다른 점이 없는 내용이다.

문학에 있어 우리의 역사속에 밝혀진 창작 동인체는 적지 않다. 더구나 한문학에 관련된 시문학회는 그 분포가 시대와 지역마다 순하게 起滅하였음을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고전에서 전래한 우리나라 한문학은 무조건 중국문학을 추종하지 않았

다. 옹혼, 광막한 것이 중국의 문학풍이라면 한국내의 한문학은 淸雅, 하면서 그 기력이 정치로 왔다고들 한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科試文들이나 여조의 한림별곡체, 조선의 공용서식 등도 우리나라의 독특함을 보여주므로써 역사가 아무리 긴 동안 한문학권에 서 살았던 선조들도 우리식의 한문사용을 하였다.

고조선때의 俗曲, 秘詞와 삼국시대의 <신집>, <유기>를 비롯하여 도솔가, 구지곡, 상등요, 선운가와 고려시대의 도이장가, 송우연, 보현심원가 등의 작품이 거의 시사 활동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만 하다. 고려 후기에 죽림철현 등장 이후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제도로 인하여 한문학 연구와 시 창작은 크게 발달하였던 역사가 없지 않아, 세종대의 한글창제 후에도 이같은 집회와 연구, 시전의 창작은 전국 지방마다 적지 않았음을 여러 기록으로 찾을 수 있다.

갑오경장 전후부터 서양의 문물이 밀려들어 한글전용 시류로 인하여 한문학은 급격하게 쇠퇴되었으나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생활권에서 한문 숭상은 귀족층의 수준일수록 그 학습과 연구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한문학의 역사를 일장하전대, 성남방 판교지역에서의 애향문학 동인 움직임은 다른 고장 수준에서 있을만한 일로 보아야 한다.

고려때의 강좌철현, 조선시대의 영남학과, 기호학과 그리고 실학사상에 기저한 북학과등의 유파 형성과 그 움직임은 다를 바 없이 오직, 후대에 끼친 영향이 얼마였느냐에 있어서만 논의 중요성을 따질 뿐, 이 지역에서 있어왔던 <판교기로회>의 한시 창작 및 『시집』 발행은 향토문학 수준에서 보아 그 가치를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조 숙영조때의 洛社, 정조때 난절시사, 철송정시사, 직하시사들이 모두 판교기로회와 똑같은 동호인의 집회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취미와 기호를 함께한 동호인 고유의 모습이 여실히 판교기로회의 시, 문, 서, 장, 노인 움직임이야말로 성남방 고유의 자연

적 특성을 갖춘 예향문학의 산실로서 제 구실을 한 것이다. 그들의 활동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아 후원자의 협찬과 회원들의 열성으로 『시집』까지 발행한 결과는 더 큰 의미를 지닌 수확이라고 말해 본다.

관교교회회 유파에서 동호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음은 간은 생각과 주장으로 지향점이 일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격적인 한문학 창작활동의 지방색 짙은 움직임이었다고 본다.

국문학의 경우, 1919년의 『창조』지가 다름아닌 동인지였고, 각 시대마다 유파의식이 분명한 문학단체의 활동도 대개가 동인활동이 그 바탕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역의 2-30여명 주도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한시선집 『시집』도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집』을 살펴보면 판권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국회의원 이원영과 광주군수 이규선 두 사람의 재정지원이 있었던 점을 짐작할 만하다. 그 두 사람이 발행자로 자리하여 있다. 인쇄처는 수원시 중동 소재의 동일인쇄소며 맨 끝 지면이 161면인데 제 1권임을 명시하고 있어 여건이 허락하면 계속하여 발행할 것을 예상하여 본다. 시집 서문과 회 창립 경위로 밝힌 記 중간에 게재된 跡文을 잠시 인용한다.

향약이 폐지되면서 향리의 선비들은 서로의 강론과 신의있는 교제를 맺음에 한결같이 시로서 모이고 헤어지게 되었다. 한달에 한 차례씩 모여 즐겁게 회적으로 삼아온 광주관교회가 그와 같은 모임이다.

나의 시에 대한 관점을 말하건대, 마음속의 혼을 단련하고 표현함에 천성에 의존하는 이유로 하여 비록, 술자리가 무르익어 취흥이 생긴다해도 조금도 난감하거나 무례를 저지름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속을 유유자적하며 늙어감을 위로하고, 또 시의 알맞은 운문이 옛 사람 풍모가 있으므로 후대에 까지 전할 책 만들기로써 후손을 위한다 함은 장차 보배로 알아 옛 것을 좋아하는 훗날 사람에게 덕을 교화하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보겠다.

이원영 씀 -

절국, 판교기르회의 연로한 향토문사에 생각은 글로서 사람 일깨우는 도덕규범을 그들의 방편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곧, 과거의 향촌이나 서원을 통해 학문의 길과 인간존재의 심성수양을 말아왔던 전통 성리학에의 질서 규범에서 직분을 찾으려 한 듯이 보인다. 자기 직분에 따라 분수대로 처신함을 삶의 제일로 삼았던 과거지향의 정몽성 고수로 풍류를 찾았던 이들이라고 본다. 『시집』 속의 천편일률적인 7언율시 하나하나가 상당한 수준작임을 해석 이전의 원시불에서 느낄만하다. 연로한 이들의 경륜과 평생동안 학습한 한시 창작 기법에 따라 서로서로가 격려하고 우정으로 아껴 생활주변의 향토성 자연물 대상에서 모두의 시 창작을 시선을 모으고 있다.

명패함이 부족한 듯하나 숙련의 삶이 작품 서술에서 손짓하여 독자로 하여금 공감대를 확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므로 『시집』 속의 작품들이 갈을 수는 없으나 자기 성남땅을 사랑하는 문사들의 정감이 여실히 그려져 예전의 향토 정감을 작품마다 간직하고 있는 글들의 묶음이라고 말해야 한다. 다음은 첫회 중에 작품 3편을 골라 풀이해 둔다.

어찌하여 저 해를 멈출거나?

봄 손님 빠른 걸음 멈출 수 없으랴.

꽃불 들레 밤 그윽히 놀이 즐기며

또 한번 정자 올라 봄 손님 보재고자 합이어!

산새들 푸른 등산 수풀로 되돌아 들고

인생은 어김없이 흰머리카락 뿐이고너.

넷가버들 손에들고 낙화를 짓밟아 오가며

이처럼 예전 풍류 즐겨 살아가는 내 멋이고너.

- 제1회 모임, 학고 권오선 작. '錢春雅韻' -

어련 나이 반백년 지나 어디서도 되못찾고
 즐기는 시와 술은 예서제서 날 반겨라,
 서글픈 이 백발 천년 헤어도 다 못하나라,
 다만, 즐거운 내 좋은 벗이 함께 누에 올
 푸른 대숲 가운데의 지조를 찾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실남 최고의 으뜸인 것을,
 예부터 봄날 보냄에 발췌를 함께하였거니
 여러 벗과 함께 저녁 노을 빛을 따라 보니라.
 - 같은 자리, 겹재 학문원 작, '上同' -

떠날 봄 앞에 다시 찾기 어렵네라,
 하루 해도 더불어 함께 있지 않거니와
 녹음진 숲속의 새는 날아 드는 철따라
 피꼬리 옛 보금자리 다시 찾는 듯하며,
 시 짓고 읊조림이 내 평생의 기쁨인데
 약주 놓인 이 세상 절자도 최고이고나
 이 너른 광주땅의 절친한 벗 모인 자리
 술동이 마주하여 풍류로운 기쁨이로다.
 - 운하 이억령 작, '상동', 15면 -

시 독자를 위해 제1회 모임에서의 한시 3편을 풀이해 둔다.

한가로운 분위기와 절친한 풍류객 사이의 오가는 정감을 보다
 숙련된 필치로 묘사하여 한글로 해석하는 일조차 큰 어려움이 없
 었다. 세 편이 모두 봄의 향촌 풍경을 공동 제재로 하였기에 유
 사한 흥취가 없지 않다. 다만, 선천적인 취향과 한학의 실력, 능
 란한 기법의 이해와 문법 접근의 미학적 어눌함이 개성대로 달라,
 세 편 한시가 같은 형식이건만 그 감흥은 또다른 일면이 없지 않
 은 것이다. 하므로 이 『시집』의 전원풍 작품세계는 실남땅 벗
 의 향기라고 해야 마땅한 평일 것이다.

앞으로 이 시집 전체의 시를 한글로 풀이하여 향토문학의 선대들의 제취를 후대 문학인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이행해 나가야 하겠다. 잘잘못이 왜, 없겠을까하는 우리 고장에서의 전무후무했던 귀중한 문학유산을 소홀히 외면하기 어려우며, <판교기로회>에 동참했던 선조의 후예된 이들의 사랑과 관심이 모아져 더 영구한 사업의 삶을 들었으면 싶다.

시집내에 나타나는 지역내의 크고작은 지명들과 산천, 계곡의 풍경들이 엄청나게 없어진 지금, 우리는 마땅히 지역문화의 유적지에 지대한 관심으로 더 이상 향토문화 유적 대상지를 파괴시키는 일은 삼가야 할 일들이다. 다른 지역보다 앞섰던 성남땅 <판교기로회>의 선대 문학창작활동은 다시 부흥기를 위해 연구하고 시창작에 펴홀리는 한문학계의 일대 촉발제와도 같은 역사적 의미 있는 활동이었음에 각성을 던지는 심정이다. 전국 몇군데 되지 않았던 한시결사의 성과를 도맡았다고 해도 지나침 없었던 선견문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4. 문사 權鶴阜가 간직한 사상

한산땅은 보다 후대앞에 값어치있는 곳으로 가꾸고자 했던 학교문사는 우선 자기에 있어 생활인으로서 철두철미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시창작과 한학연구에 있어 후손들에게 가보처럼 생각할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야로 초지일관하게 강인한 의지에 따라 인생철학을 심화시킨 이었다고 학교의 장손되는 권순주(1944-)씨는 진술해 주고 있다.

과묵한 청년시절부터 탐독한 <사서삼경> 특히, 문종의 선대 어른 중에 양촌 권 근(1352-1409) 학자의 방대한 문집을 통해 글 읽기와 학문의 길에 몰두하였던 학교문사는 장남으로 가게를 꾸려가기도 힘들었으나 성실과 근면의 생활자세를 지니 자신의 인적수양도 남달랐다고 한다. 중년이 지나서 그는 독서생활, 문중사 講學 등에 식견을 쌓아 청빈한 농촌속에서 일망정 자족의 선비정신

을 지닌 채 오로지, 인행일치 학자다운 생활윤리를 평생 지켜왔다는 것이다.

그가 노경에 이르자 향보문인 그 자리가 아닌 전국 수준의 한시인으로서 공인받을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할 때에 한학은 점차 쇠퇴일로로 빠져들었던 불운을 맞았다고 하나 그의 뇌리에 떠나지 않았던 생각, '언젠가 후대에는 기필코 한문학이 빛을 보리라. 보배처럼 소중한 위치에서 임자를 만날 날이 반드시 찾아 오리라.' 하는 일념으로 결국은 거주지 일원의 뜻있는 사람들과 <관교기사회> 同好人體까지 조직하는 일원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잠시, 학교의 사상을 보양시켰던 양촌 선대의 사상을 더듬어 보려한다. 양촌은 근세조선의 유교를 한국 전통문화로까지 발전시키고 우리 민족의 도덕적인 것으로 심화시킴에 공이 큰 정도전과 더불어 이념의 실천화에 앞장선 학자 문인이었다. 그러므로 양촌이 남긴 40권의 문집을 탐독한 학교 문사의 사상이 곧, 양촌의 폭넓은 가운데 一處이 아닐까 생각한다. '風謠' 라는 시 1편을 이태조에게 지어바치 신임을 얻게되고 관직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양촌의 생애를 통해 받아들인 문제는 유학도의 실행이며, 변절의學德은 버릴일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한다.

한국의 성리학사에서 양촌의 업적은 실로 크다고 보아, 이같은 선대의 그림자를 밟아가며 그 큰 음성을 닮으려 한 학교의 철학은 크든 작든 유교적인 행동의 영향이라고 할만한다. 정치인 양촌의 지략은 버리고, 교육,문장가로서의 대학자 양촌 음성은 길이 천착하려했던 학교의 내면에서 필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즉, 孝治主義에 정신으로 영향을 입었지 않나 한다.

한국문화의 주류를 형성해 온 유.불.도 3敎 중에 생활 깊숙이 침투한 것이 다름아닌 유교임은 사실이다. 특히, 조선시대를 통하여 유교가 우리의 의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구조에 있어 절대적이고도 실천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며 오늘날까지 그 현실주의적 인물을 도덕관이 세대간 차이는 있을 지언정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연원을 거슬러 가면 곧바로 권양촌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감

지할 일이다. 그러므로 후대의 학고 정신속에는 선비도를 유교문화에서 인지했을 것이 자명하고, 일상생활의 의식과 행동마저 모두 유교의 사상에서 귀결시킴이 당연했으리라고 믿어본다.

굳이 성리학으로 변형된 유교의 학동을 고찰할 필요가 없겠지만, 양촌의 스승인 牧隱 이색이야말로 원나라로부터 받아들여졌던 성리학을 한국안에서 크게 일으킨 학계와 문단의 거두있음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 흐름의 한줄기 그림자에 서성었다는 성남의 양촌 문사 권학고 사상은 다분히 인격수양이나 문장력 표현이 자기 주변적인 감흥에 도덕성을 사상으로 융합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을지 하다.

이에 학고의 사상을 요약할 때에 그의 학문하는 태도와 한시 창작 특성은 天理를 바탕으로 인과 덕을 생활안에서 습관화되길 바랐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같은 생각이야말로 양촌 선대의 사상 속에 있는 子處設 곧, '마음을 바르게 하자는 사람만이 천리에 동참이요, 고로 속마음을 비우는 일이 군자의 中이니라.' 라고 한 警句를 사상의 핵심으로 본받았지 않았나 한다.

문자로 전하는 것이 한시이외에 전무한 학고의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할 길은 없다. 다만, 후손 몇 사람들의 회고담이라고 할만한 진술로서 율파만 짐작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학고가 항상 탐독하고 살았다는 『양촌집』에서의 도와 유학, 심성과 입신 등의 언급을 살펴보면 천지만물의 리와 인륜을 비교적 깊이 연찬하였던 면을 짐작케 한, 심성과 수양에 많은 분을 접하고 있는 양촌집 내용에서 직접 영향이 많았음을 알 것 같다.

- 배우는 이는 마땅히 敬으로서 마음속을 바르게 하여 혼백함을 물리치고 그 밝음으로 되찾아 나서도록 해야 한다. - (천인심성 분야도 一句)

- 학문하는 법은 책속에 있으나 그 요점은 心術을 바로잡는 데 있을 뿐이다. (略) 비록 성현의 글을 읽고 화려한 문장을 잘 짓

더라도 심술을 다스림으로써 만이 소인적 선비를 면하게 된다. -
(양촌집, 제주향교기 一句)

- 이 학교에 있으면서 그 공을 읽는 사람은 마땅히 그 도 구하기를
생각하고, 또 인륜을 두터이 하기를 생각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다하고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를 다하며, 長幼, 朋友에 이르
기까지는 가는 곳마다 각각 직분을 다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儒
者の 實學이다. - (영흥부 학교기 一句)

인용문구를 통해 권학교가 추구하려 했던 생의 중심적 태도를
어느 만큼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선대의 대학자 양촌의 저술
『入學圖說』 및 『四書五經口訣』, 『五經淺見錄』 그리고 『양
촌문집』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讀習이긴 하나 학문의 길에 처
하길 즐겼고, 틈만 나면 향촌의 산수를 두루 감상하며 자신의 생
활에 만족한 기분으로 한시 창작에 담담한 은둔자적 行步를 걸으
면서 사상의 깊이를 채운 이로 본다.

힘약한 비탈 산길을 오르내리는 농부가 밭부리 한치라도 헛던기
어렵듯이 학교는 그의 산 시대가 亂世만을 꿈라 산 살이므로 하여
조용히 향리에 묻혀 살아 새 문명의 물결에 눈 돌리지 않은 채 한
낱 자녀의 훈도와 불종사의 손짓, 효경의 도에 파묻히기를 즐겼던
모습이다. 때때로 유적지와 관광명소를 유람하며 즐겨하던 시 창
작에 한 잔 술을 벗하는 일로 생애를 마쳤다. 학교의 장남 혁찬
(1920-)에 따르면

선친께서는 겸소함이 이를 데 없으셨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늘
말과 행동을 통해 소박한 생활이 사람의 도리임을 강조하셨지요.
저희 네 자식들 앞에서도 책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은 사치라는 걸 모르셨던 어른입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님도 자상하시고 마을 태소사에는 두분이

앞장서서 어려운 일이라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혼상제 법도를 손짓하셨어요. 또한 자손들을 위하여 후원단을 모아 놓고 미명기도하심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남에게 해 끼치거나 싫은 소리를 말아라. 사람이 죽어서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말과 행동은 착함만을 따라 살아야지, 하셨어요.

라고 전해준다. 학교 문사의 사촌형이었던 권오규(1899~)씨의 후손 허조(1920~)씨 집안에서도,

그분은 너무나 엄격하신 학자였습니다. 매사에 깔끔한 성미에 한학이 특출하시어 마을 어린이들을 가르치실 시절에도 친구 사귀기를 잘하라, 마음 먹은 바 처음과 끝이 일치하도록 하라, 속이 찬 사람이 되거라 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학교 주변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전의 정신에 담았던 인생관을 극히 일부이긴 하나 짐작할 만 하다. 결국, 시대는 빛나간 세상에서 딸 홀린 선비였으나 고금을 통해 진리에 가까운 사람다운 이치는 밝은 사람이었음을 알겠다. 자신이 예씨 마련한 학업의 결과가 새로운 물질사회와 혼란한 가치로 인하여 골동품 전열장이 되었으나, 그의 청년시절부터 쌓아 올린 덕망과 한문학 자산은 보배처럼 간직하며 성남의 문학사의 일부를 보양시켜 준 문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원의 삶 속에서 뜻은 곧게, 마음은 순수로운 선비로 부조리한 시류를 거부하며 평생 향토문화 터 다지는 일념에 살다간 학교의 초지일관했던 생애의 작은 업적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처한 환경이라든가 시대의 곤궁함과 불의가 태반이었던 가운데 자신만은 때문지 않은 선비의 도를 따르고자 했음. 그 하나로도 추앙해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가 즐겨 사용한 雅號 '학교(鶴阜)'도 남들이 흔하게 지어 불러진 말이 아니다. '학명구고 성문우천(鶴鳴九阜 聲聞于天)'이라는

글귀가 『시경』에 있으므로 하여 문구에서 뜻을 추려 만든 의미 깊게 담긴 筆名이라고 하겠다. 이 문구는,

- 학이 깊숙한 연못가에서 울어도 그 소리는 하늘까지 들리게 되다, -

한이어서 결국, 군자가 아무리 깊숙한 산촌에 숨어 살지언정 그 명성은 세상에 높이 드러나 알려짐을 말하고 있다. 이 한가지 아호만 생각하더라도 학교의 생각은 밧살치 않은 선비로서 선입견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자신은 학이며, 금포리 청계산 마을은 연못으로서 한시를 짓고 <관교기로회>를 결성하여 『시집』을 만드는 일이 사소함이 아닐 것을 예상한 듯 보인다. 언젠가 자신과 선후배 동료들의 활동이 지엽적인 사소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알에 알려질 것을 확신했는 지도 모른다.

군대의 서구쪽 강풍에 밀려 참시는 넘어갈까 몰라도 언젠가는 다시 못뚝한 대나무 志節로 한마디 한마디씩 글 것을 예견하며 살았던 학교의 청담한 사상과 시종 한학의 붓대를 켜지 않은 평생동안의 문인 모습은 함으로 위인다운 정신이었던 것 같다.

사방을 에워싼 목직한 산세들이 그를 더욱 성실한 인품로 키웠고, 주장산, 문형산, 청계산 고을 물줄기 또한 그의 심신을 연마하여 갈수록 학교의 사상은 빛을 풍길 만 하다.

보다 값진 인간의 삶을 윤리에서 터득한 발길이 달을만한 터를 우리 한국사 전통문화에서 깨우친 학교의 일상생활 흔적은 이제, 서서히 빛전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중심으로 모여졌던 2-30여 명의 <관교기로회>의 발자취는 기록으로 오래 남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인자인야(仁者人也)” 라든가, “기소불욕(己所不欲 勿施於人)” 또는 “극기복례(克己復禮)” 라는 명구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자주 거론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개인의 도덕을 깨닫고 대인간의 품성을 갖추면서 자연 질서예의 순응, 본성예의 순리추구와 실천원리를 강조함이거늘, 언제나 학교 이외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에 대한 추

구인 것이다. 도덕규범을 따라 誠과 實로서 인간 본연의 제도적인 규범을 더욱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할 때에 이같은 선조들의 자연스러운 가치추구는 정당한 예절로 익히며 실천해 나가야 할 밖에 없는 것이다.

Ⅲ. 마무리 글

1. 발굴자료가 갖는 의미

성남시가 탄생한 지 20년 되는 해에 원주민 사회에서의 한시 창작 활동단체 및 漢詩人이 나타났음은 반가운 일이며 놀라운 소식이었다. 한 집안의 古書가 전문 연구자에게 넘겨지는 과정에서 의외로 분사로 평생동안 일관한 작품들이 수십편 찾아질은 성남시로서는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새삼 빛을 보인 <판교기로회>의 한시선집 『시집』의 발굴이야말로 향토문화 자료로서 더 없이 귀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本 稿는 개인 연구의 일부이므로 『시집』에 관한 상세한 조사는 다른 기회로 미루면서, 향토문학의 漢詩人 鶴阜 權五機 文士의 극히 일부로 보여지는 작품의 자료적인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학교 문사의 개인사정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시대상황등을 통해 볼때에 선대의 정신적인 감화로 인한 인간 삶의 도리, 오직 배움만이 우리 생애의 가치를 깨달았던 이, 자기 스스로는 신학문을 접하지 못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讀書과정만으로 평생 독서에 힘쓴 나머지, 지역의 열학함과 시대의 고풍스러움도 모두 감내한 체로 오직 한시 창작 신념은 전국권의 문인식에 들게 하였지 않았나 한다. 그러므로 학교의 말년 40여편 한시자료는 어쩌면 성남 태동 이전의 '漢山 땅' 냄새로 착각이 아닐까 싶다.

그의 손때가 묻은 고서적 하나하나가 모두 시를 이해하고 짓는 이에게 더없이 참고서적으로도 가치있는 전문서적들인 점에서, 지역조건의 수준은 벽촌락이었으나 활동해 온 발자취는 그 어느 지역에 뒤질 리 없다. 아울러 학교의 작품세계 역시 生僻한 어구라곤 찾기 어려운 한국인 선비로서의古朴한 읍시안에 순백한 전원적 예술미학이 전편에 자리하고 있으므로써 부드러운 서정시 계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의 시 세계는 어느 하루 사이에 높여진 성과라고 보진 않는다. 적어도 반평생 그 이상의 한학 탐독과 시 창작법의 연마로 이루어진 성과이며, 실전 되어진 청년시절의 수 많았던 작품과 그 외의 記, 頌, 碑, 說 등의 한학문장들이 아깝게도 사라졌다는 데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어쩌면 間人 閒事의 음풍농월 창시품도 꽤 여러 편 있을 법한 그의 유품작이 전무하다는 데에 애석할 따름이다.

보통 지식인은 감히 손 끝에 집하기조차 힘겨운 한시의 창작 수준작이 耳順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표시켰던 학교의 문학 취향안에는 함포문화는 물론이요, 농촌지역의 인덕예절과 충효경신이 다른 지방을 앞질렀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지역적인 여건으로나 집성촌의 구성조건으로 미루어 분명히 성남이전의 한산땅이야말로 출과 효가 오랜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계곡물 즐기같이 흘러내려 왔던 고장임을 직감케 한다. 결국, 이 해에 학교 권오선 문사를 성남시민 앞에 알리고 성남 문학계에 소개시키는 자료로서만의 그 의미가 아니라 이 고장의 문향을 더 없이 드높이는 일이 아닐까 한다. 더구나 학교 이외의 2-30여명 동인들이 이 고장에서 시집 출간에 함께 입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후대의 우리들이 이 자랑스러운 자료앞에 해야 할 사업은 관계되는 후손 및 유관기관이 더 이상 때를 늦추지 말고 "시집"의 번역과 한글판 시집 간행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경기도 안에서 많은 인구를 포용한 거대도시라는 것만으로 자랑을 삼을 일이 아니라, 내 고장 선조의 뛰어났던 예술문화 성과에 더 중한 의미를 부여하여 이 땅, 성남시의 뿌리 가꾸기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姜靜一堂(1772-1832)과 더불어 우리 성남의 문학 뿌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던 학교 문사(1900-1974) 및 <판교기로회>의 몇몇 한시인에 있어, 하루 속히 그 업적을 작든 크든 살피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사업이 어디 문학에 있어서만이랴. 아직도 어둠에 가려진 성남 땅 안에서의 각 성씨 문중의 위대한 선조 묘비명(신도비), 최근세로부터 80년대까지의 역사속에 가려진 각 분야의 위인 찾기에 시일을 늦출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작년도에 논구했던 『여류문인, 姜靜一堂』(성남문화원 92. 8. 1발행, 100쪽)에 이어 이번에 첫 삼을 든 학교의 한시연구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조사와 추모 신앙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기에 학교 문사의 작품분석 및 추모사업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안다.

2. 성남에서의 과제

지금까지 미약한 식견으로 살펴본 권학교 문사의 한시 조사는 한 사람의 인품을 추앙하려는 뜻에 앞서 우리 성남땅이 타 지방에 뒤지지 않았던 고장임을 재조명하려는 데 주안점이 컸다. 작년도에 '강정일달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성남 시민의 날에 시상했던 "으뜸 시어머니"와 "으뜸 며느리" 시민상의 출발도 사실상 그 분 위인 한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줄로 안다. 성남시는 예절바른 도시, 정신문화가 살아숨쉬는 고장임을 현 시대앞에 현창하여 좀 더 나은 도시, 도덕질서가 온 시민들에게 파고들게 하려는 데 그 참뜻이 있어 시문화 예산을 야깍없이 마련하였지 않았는가. 일당 추모사업 그 맥락에서, 권학교의 참된 선비정신과 문학세계가 널리 알려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문제는 문헌 보석을 찾고 소중히 살피나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글이 문학분야에 국한함이 아니며, 각계 각 분야의 숨겨진 역사적 표본들이 체계성있게 정리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미 과거사일망정 이 고장의 위인으로서 추앙할 만한 선조라면 마땅히 삶의 태도와 정신철학을 배워야 할 일이다. 학교의 선비다운 품위와 지조, 평생 일관한 문인정신을 후세에 살아숨쉬게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보다 고향의 자연을 지극히 사랑했던 학교의 삶 속에는 5백년 가깝게 살아온 마을을 아끼며, 봄날의 눈발 들꽃풀 사랑, 여름철 농작물 가꾸기와 산새의 소리, 가을에의 단풍든 들레산천, 겨울날 들길에 오가는 인정속에 작고 큰 산수완상을 아주 즐긴 이었다. 순리와 조화로운 인간생활을 가장 좋아했던 학교의 생애를 통해 아는 만큼 실천하고, 옛것을 아끼는 그의 성실한 외고집 같은 버릇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표상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누구보다 현실을 충직하게 살면서 영민한 두뇌를 모든 이웃마을 사람앞에 표본되길 원했던 학교의 반듯한 성품은 우리 성남을 타지의 못지 않은 문화의 고장, 충효와 질서의 마을로 가꿔나가려는 속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한다. 한시의 짓더라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격조높은 정신을 품었고 평리에 초연한 학자다운 시인으로서 평생동안 풍류의 도와 향토에 발취에 힘쓴 어른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천성이 과묵했던 어른, 마음을 바르게 실천 도리를 갖춘 군 자기질을 한 몸예 지녀, 못사람들에게 살아 생전에도 흠모를 받았다고 하니 실로 이 고장의 문사수준은 뛰어 넘는다고 하겠다.

향토성을 간직한 마음들로 꾸며진 “시집”안의 작품세계 또한 서정적인 전원시면서도 그 밑바닥에 깔린 사상은 후세를 위한 인문의 교화라고 보아야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시만의 고집 같은 생각이 “시집”안에 가득하여 덕을 함양하고 심성을 계발시키는 곧,〈판교기회회〉전체 어른들의 소임으로 말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한낱, 옛 것만을 무조건 숭상하고자 한 고루함의 회고적 사상이 아니었던 점이 나타나 있다.

빛 바랜 몇 장의 사진과 곰팡내 나는 고서 및 권을 통해 이 시대의 정신적 지렛대임을 과장함이 아니다. 어떤 글귀를 음미해도 명철한 지혜와 선비다운 미의식이 도처에 자리한 훌륭한 문학정신의 감미로움에 찬사를 발산하는 것 뿐이다. 이 고장 예전 어른들이 남긴 詩句속에는 우리 성남의 훈냄새가 서림이요, 어쩌면 혼탁해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들어 볼 '곧은 한국의 정신'이 행과 연에 짝여 있음이다.

앞으로 우리의 합 입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성남의 이 터전에서 숨쉬고 후손을 뒤높고 잡자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덕성 윤리와 공동질서예의 '시민정신' 함양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보기로 세상을 살았던 이 지역의 성실했던 옛 문사 발자취에 그 모습을 뚜렷이 밝혀보이는 이야기와 그분들을 추앙하고 살피나가는 일에 힘을 것을 새삼 강조함이다.

이제 성남 향토의 인물과 한시 자료를 통해 많은 생각을 말한 셈이다. 머릿글로부터 본문 그리고 마무리 글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의 우리가 무슨 일을 어찌 해야 할까에 관하여 결론을 내릴 단계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산업, 기술, 경제등이 괄목할 만큼 진보되어 인간의 생활여건을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나아졌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인간의 소외문제, 생활환경의 문제 특히, 도덕윤리의 문제는 너무 타박됨을 모두 개탄할 지경에 이르렀지 않는가. 하여, 조상과 선배들로부터 물려나고 배운 우리 문화의 계승, 보존, 발전이 중요함이 눈앞에 덩치고 발았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언제나 모방과 창조력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리하고자 함이 어느 하물며, 성남시민이라고 여기에서 정체되어 있길 원치 않음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므로 정신적 작용만으로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류역사상 진리를 따라 이 시대의 우리 또한 물질적인 것에만 문화의 가치를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동안의 관심이 과학, 기술의 테두리에서 문화적 안정과 재건에 철저한 반성이 시대발전에 긴요하다고 보아, 문화의 핵심이라고 보는 예술과 윤리의 가치성을 보편적 기준으로 한

성남시민의 사람다운 삶에 인간성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래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름답고 멋진 사회생활이 곧 다름 아닌 예술과 도덕의 정신적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아 필자는 우리 성남의 정신유산에 옷 어은 추앙사업이 활기차게 이어지길 바란다. 이같은 일이 다름아닌, 향토 문화의 되어져야 한다.

이상의 제언에 가까운 과제를 정리하면서 보다 사람 살기 좋은 성남시가 되게 하려는 상당수의 시민들의 격조높은 문화 활동무대가 각 분야별로 조성되길 다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살림은 가났했음망정 정신문화와 윤리가 대단히 존중되었던 과거의 한산땅에 어느날 갑자기 붙여닥친 도시로의 개발 휴먼지는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덕지덕지 군더더기로 남아 있는 인상이다. 전원풍의 자연부락마다 연로한 어른들이 살아 계셨고, 동잔불 아래일망정 글 읽는 소리가 이집과 저집에서 들렸던 변한 것 없는 이 한산땅에, 빌딩과 불야성의 아파트 빗줄목은 불법적인 비인간의 흐느적임이 이땅의 옛 선대 조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현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루 속히 물질문명으로만 떨어가는 그릇된 성남시의 오명을 씻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거대 도시화로 달리고 있는 이때에 격세지감이 없지 않을까 모르나. 한생애를 고향땅에서 옛 조상의 성실한 효도와 우애심을 좌우명으로 삼은 채, 오로지 전통계승의 문학창작을 일삼으며, 후대 앞에 청빈성으로 살았던 권하고 문사의 인덕을 그의 문학 정신과 더불어 기려 나가는 성남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많은 고난과 유혹이 없지 않았을 학교의 생애 중 인간은 고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높고 귀한 선비의 도를 밝게 깨우친 가운데 정신문화의 선각자로 남게 되길 바랬던 그의 생애를 마땅히 추앙해야 한다. 생활은 검소하게 살되 뜻은 학치럼 높았던 선비정신이 오늘의 우리앞에 절실히 다가오는 것이다. 학문과 시 정신이 준아한 중에도 학교의 소박했던 미덕과 향촌에서의 공동체 삶에는 언제나

인격으로서 추앙받았던 어른이었음에 더더욱 우러러 보일 뿐이다.

편집위원

문수진, 백남옥, 한춘섭

城南文化研究 8호

인 쇄 : 2001년 12월 20일
발 행 : 2001년 12월 30일
발행인 : 남 선 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성남농업기술센터 2층
전 화 : (031) 781-1020
팩 스 : (031) 709-5246

이 연구논문집은 성남시 문화사업 지원금에 의한 제작임.

